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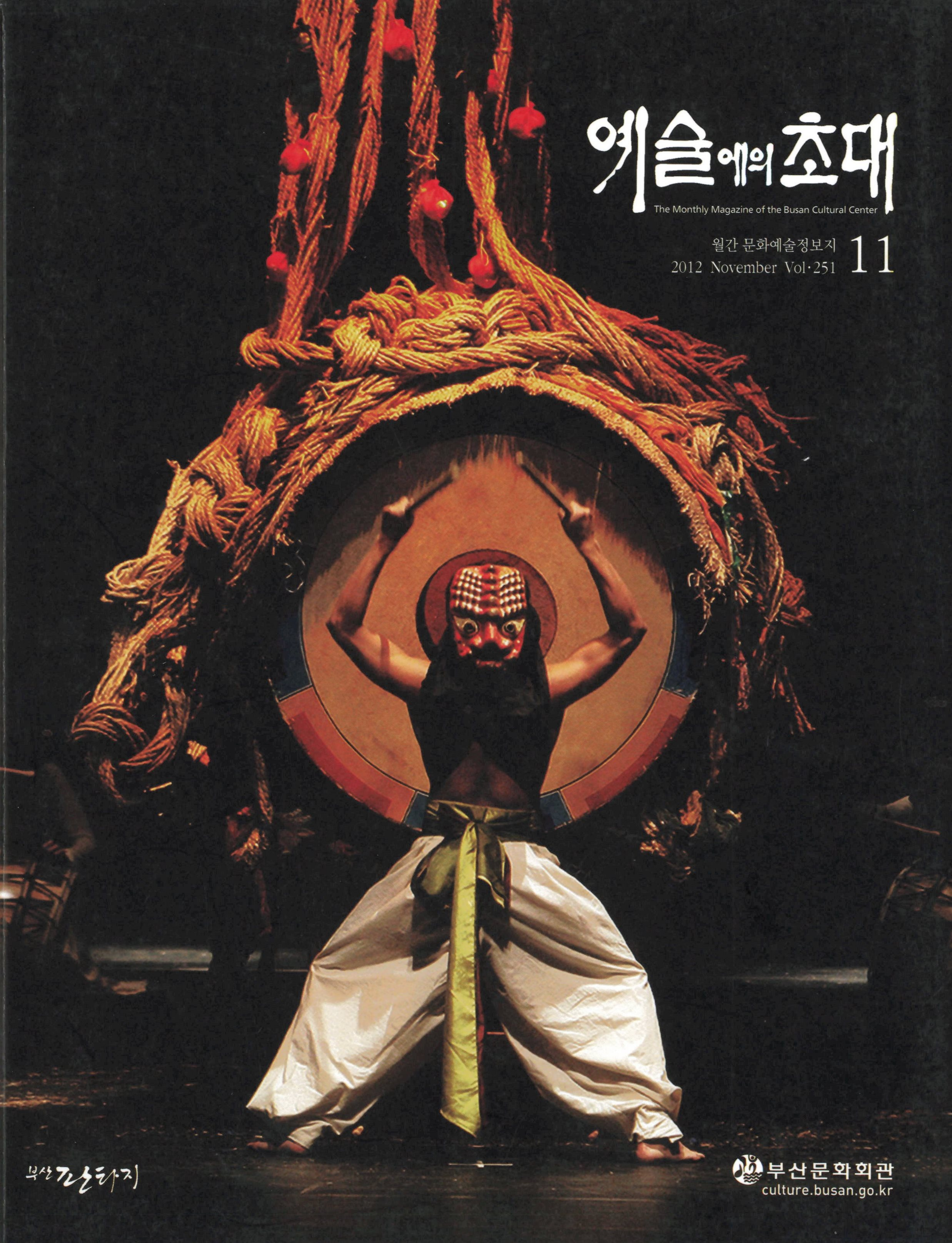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November Vol.251

11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La Luce

Sumi Jo Beautiful Challenge

조수미 콘서트

2012.12.20 | 목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발매예정음반 <La Luce>의 수록곡들과 품격있는 클래식 레퍼토리로 이뤄진 **조수미의 아름다운 도전**

| 주최 | 부산광역시 | 국제신문 | 주관 | 부산문화회관

|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문의 | 051-607-6058

초량교회설립 120주년 기념

부산시민을 위한

헨델의 메시아 대공연

G.F. HANDEL MESSIAH



지휘 전상철



소프라노 장은영



알토 제화미



테너 김지호



베이스 유형광

오르간 구영혜 | 피아노 고지혜 | 합창 초량교회연합찬양대 | 연주 초량교회관현악단



2012. 11. 6(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가을..... 낭만에 빠지다

Schubert
VS
Mendelssohn

Program

창작곡 「"Blitz II" für Orchester」

F. 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F. Schubert / Symphony No.5 in B flat Major D.485

2012. 11.8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김동욱



작곡 김인철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uk United Korean Orchestra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BS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생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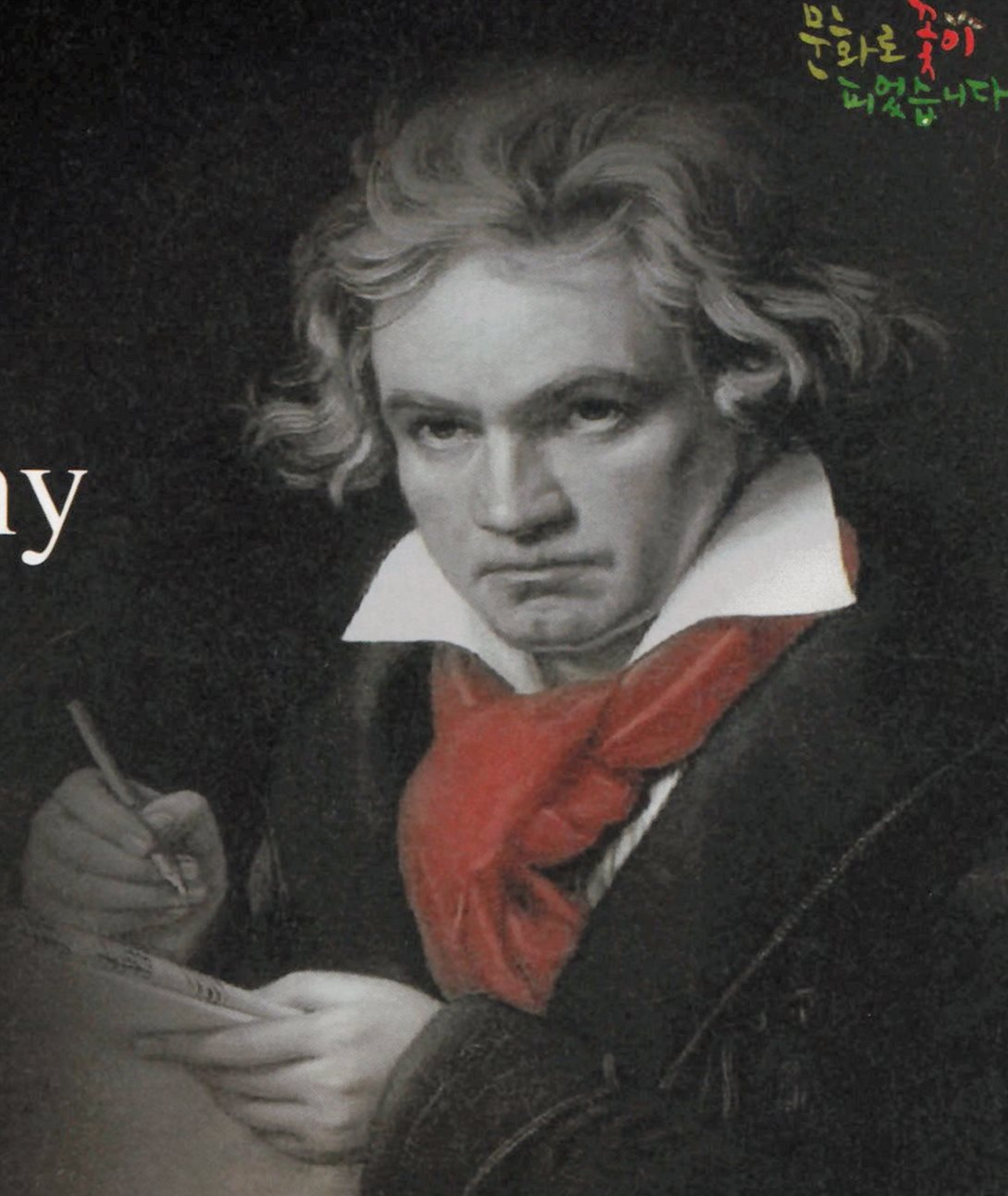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Program

창작곡 "길"

L. van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티.아이.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박성완



소프라노
서활란



메조 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전병호



베이스
Christopher Temporelli



작곡
양성남



해설
박은승

2012. 11.23 (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티.아이.에프.

후원 특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Home plus 장림점 BS 팝부산 사하인터넷뉴스

입장료 전석 2,000원 문의 220-5805

예매처 팝부산 (www.popbusan.com) 부산은행 전지점 나눔티켓

본 공연은 <2012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의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BS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제34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2년 11월 19일(월)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곡목

요제프 용엔 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
Joseph Jongen Symphonie Concertante for Organ & Orchestra

생상스 교향곡 제3번 다단조, 작품 78 '오르간'
C.Saint-Saens Symphony No.3 in C minor, Op.78 'Organ'

- 지휘_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
- 연주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 협연_ 오르가니스트 펠릭스 헬

“선생님께 존경을!”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펠릭스 헬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함께하는 오늘 이 음악회는 학생들 교육에 힘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최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BS 부산은행 KWKWANG 조광페인트 Bⁿ 비엔그룹 Bⁿ 대선주조 Winsteel 윈스틸 Ohong Keun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후소산기(주) FUSO Ind. co., Ltd. 대한웰니스병원 진도순 이비인후과의원

입장료 | 전석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 문의 | 051)621-4577 www.bso21.com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무용단 제67회 정기공연 '부산판타지'
- 10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패밀리합창단과 부산국제합창제 찾는 지휘자 금난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혼돈의 방식 Ritual of Chaos _ 박세욱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① | 교향곡 '大地의 노래' (상)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 -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 ② | 백남준의 독일시대(1956~1963) _ 안소현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②
'대동강 월야선유도' 평양감사의 대동강 뱃놀이에 모인 사람들 _ 변광석
- 26 그곳에 가면 | 부산 유일의 전통음식 상설체험장 '뜰에장'
- 28 우리는 문화가족 | '우리가락 좋을시고...배워서 남주자'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 30 리뷰 | '카르미나 부라나' 와 비보이 _ 신설령
세계인의 문화콘텐츠, '강남스타일' _ 남인용
- 32 테마가 있는 여행 |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의령
- 35 CULTURE LIFE
- 59 나의 애청음반 | 브람스와 함께하는 가을 _ 조영석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11월호 통권 251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10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부산시립무용단 제67회 정기공연
 타악으로 펼쳐지는
 춤의 향연
 '부산판타지'

일시 11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부산판타지

다양한 춤언어로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5월 정기공연 춤극 '바리-서천꽃 그늘'에 이어 11월 22일과 23일 타악으로 펼쳐지는 춤의 향연 '부산판타지'로 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안무, 구성을, 여름마당춤판 '효녀 심청', '평강과 온달'로 부산시립무용단과 호흡을 맞춘 오정국이 대본과 연출을 맡아

첫선을 보이는 '부산판타지'는 우리 춤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깔끔하게 상징화시켜 무대 위의 풍요롭고 지성적인 느낌의 장면들을 타악의 라이브장단으로 펼쳐는 춤의 향연이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토를 두들겨 일깨우는 땅의 울림, 북의 울림을 역동적인 북가락과 신명난 춤으로 승화시킨 '부산판타지'는 부산시립무용단 전 단원들의 열정으로 탄생된 타악 공연의 결정판으로도 손색이 없다.

홍기태 안무자는 '부산판타지'에서 기나긴 역사의 여정 속에서 굳건히 버텨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국 춤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살아있는 고요함과 역동성을 동시



작품구성

- 첫째 판 : 비워있는 곳이 채워진다
 둘째 판 : 머물게 되며 썩어간다
 셋째 판 : 흩어지며 깨닫게 된다
 넷째 판 : 되돌아오며 다시 비워낸다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오정국
 · 음악/최상인
 · 무대미술/황경호
 · 특별출연/이창규(창원시립무용단 상임단원)

에 표현하며, 흥(興)과 한(恨) 등 우리민속 고유의 정서를 한국적 몸짓으로 드러낸다.

전체 구성은 첫째 판 '비워있는 곳이 채워진다', 둘째 판 '머물게 되며 썩어간다', 셋째 판 '흩어지며 깨닫게 된다', 넷째 판 '되돌아오며 다시 비워낸다' 등 4개의 이야기로 구성, 아름답고도 역동적인 부산판타지를 풀어낸다.

첫째 판 '비워있는 곳이 채워진다'는 삶의 터전에 한사람, 두사람 모여들면서 서로의 빈곳을 채워 나가는 이야기로 자유로운 일상들이 즐거움으로 채워진다. 둘째 판 '머물게 되며 썩어간다'에서는 너(즉 권력)는 꿈틀거리는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

고자 하는 이기심의 속내를 드러내며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과 반대 세력의 싸움은 건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셋째 판 '흩어지며 깨닫게 된다'는 방황의 시작이다. 참혹한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피폐해진 사람들이 하나, 둘 어디론가 또 다른 삶의 터를 찾아 떠나가고 점점 빈자리만이 남게 되었다. 마지막 넷째 판은 희망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며 우리가 하나 됨을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전체 무대는 지구를 연상케하는 둥근 바닥 무늬를 주 무대로 구성, 서로 소통하며 인간답게 어우러져 신명을 나누는 '부산판타지'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Preview

축제의 장, 나눔의 장, 알림의 장, 교류의 장

제8회 2012 부산국제합창제



● 합창음악을 통해 인류와 소통하고, 세계 합창인들과 교류하는 부산국제합창제 2012년 축제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역대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무대는 노르웨이, 중국, 라트비아, 싱가포르, 이란, 폴란드 등 14개국 28개팀(Cantus, Sichuan Bashu Chorus, Imusicapella, 인천시립합창단 등), 참가인원은 1,100명에 이른다. 2005년 APEC 부산개최를 기념해 첫 출발한 부산국제합창제는 국내 공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격조 높은 합창음악으로 사랑받아왔다.

14일 열리는 개막 공연에는 2012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하는 각국의 참가 합창단 소개와 기념공연, 윤학원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 초청연주, 15일 갈라콘서트에서는 Cantus(노르웨이), Harmonia(폴란드), Imusicapella(필리핀), The Greeners' Sound(홍콩) 등 최고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 경연은 개막 다음날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클래식 혼성, 클래식 동성, 민속음악, 대중음악 등 4개 분야의 경연이 진행된다.

일시 11월 14일~17일 수~토요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개막공연 VIP 50,000원
 일반 10,000원
 시상식 & 수상팀 공연 2,000원
 기타 경연공연, 갈라공연,
 찾아가는 공연은 무료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 콘서트 프로그램

개막 콘서트 11. 14(수) 19:30
 갈라 콘서트 11. 15(목) 19:30
 시상식 & 수상팀 공연 11. 17(토) 19:30

■ 경연 프로그램

클래식 혼성 11. 15(목) 13:00 대극장
 클래식 동성 11. 17(토) 10:00 대극장
 민속 음악 11. 16(금) 13:00 대극장
 대중 음악 11. 17(토) 14:00 대극장

■ 찾아가는 콘서트

11. 12 11:00	해운대문화회관	필리핀 Imusicapella, 대한민국 은파합창단
11. 13 19:30	영도구문화예술회관	노르웨이 Cantus, 대한민국 영도구 여성합창단
11. 13 19:30	군산교회	폴란드 Harmonia
11. 14 11:00	우리들병원	노르웨이 Cantus
11. 14 12:20	부산광역시청 로비	필리핀 Imusicapella
11. 14 14:00	동서대학교	이스라엘 Lev Tel Aviv Choir
11. 14 14:00	아이파크	라트비아 Anima Solla, 홍콩 The Greeners' Sound 중국 Baosteel Senior Choir 피지 Christian Culture Choir 이란 Teheran Vocal Ensemble
11. 15 11:00	우리들병원	라트비아 Anima Solla
11. 15 14:00	동서대학교	중국 Shichuan Bashu Chorus
11. 15 17:00	마산제일여고	필리핀 Holy Angel University Chorale
11. 16 14:30	디자인고등학교	인도네시아 DivyaStotra Choir
11. 16 15:00	대동대학교	홍콩 The Greeners' Sound
11. 16 19:00	인도네시아 센터	인도네시아 DivyaStotra Choir IM Telkom Choir
11. 16 19:30	김해문화의전당	필리핀 Holy Angel University Chorale 대한민국 부산하모니합창단
11. 16 20:00	이인아트홀	라트비아 Anima Solla
11. 16 20:00	석포교회	이스라엘 Lev Tel Aviv Choir, 피지 Christian Culture Choir
11. 17 13:00	소망요양병원	인도네시아 IM Telkom Choir

※공연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합창워크샵

11. 15~16 09:3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실
 강사 : 이상길(안양시립합창단 지휘), David Ray(미국)
 Enrique Azurza(스페인), Bengt Ollen(스웨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V - '세비야의 이발사' *Highlight*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소프라노 장은영

바리톤 김종화

테너 조윤환

바리톤 박기국

후견인 로시나, 바리톤 김종화가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 테너 조윤환이 지방 귀족 알마비바 백작, 바리톤 박기국이 로시나의 후견인 바르톨로 박사로서 오페라의 감동을 전한다.

●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오전 11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웰빙콘서트 시리즈 '무대예술의 결정체-오페라' 네 번째 무대가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2012 웰빙콘서트 시리즈 마지막 무대에서 만날 곡은 로시나의 '세비야의 이발사'.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오페라·뮤지컬 전문 연출자 유철우의 연출로 세비야 이발사의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로시나가 그의 나이 24세에 프랑스 작가 보마르세가 1775년에 발표한 '세비야의 이발사' 희곡을 바탕으로 13일만에 작곡한 곡으로 유명하다. 무대는 18세기의 세비야이고, 줄거리는 '피가로의 결혼'의 전편이다. 방탕한 바람둥이 권력가 알마비바 백작은 바르톨로 박사가 돌봐주는 로시나에게 눈독을 들이고, 이발사 피가로에게 중개 역할을 부탁한다. 피가로는 능숙한 수완과 재치로 바르톨로의 눈을 피해 백작과 로시나를 만나게 하고, 로시나는 백작부인이 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영이 바르톨로의 피

장은영은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팔리아치'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춘향전' '라보엠' '마술피리'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 서왔다.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한 바리톤 김종화는 베켄바흐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 1위, 파싸우 국제성악콩쿠르 가곡부문 1위 등 다수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한 테너 조윤환은 독일 김가우 국제음악제에서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주역, 체코 Karlsbader Sinfonie Orchester 독일 Berliner Symphoniker, Gewandhausorchester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바리톤 박기국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라몬 올 대학교, 바르셀로나 루피에르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오페라 무대와 방송진행자(부산 극동방송 '오후의 향기')로 청중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곡을 시작으로 저기, 웃고 있는 하늘,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돈 버는 재간이 내 머리에, 방금 들린 그대 음성, 그게 나라고...놀리는 건 아닌가?, 나의 지위, 박사예겐,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길 등 주요아리아를 들려준다.

일시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월광 (月光)



객원지휘 신영균

옥류금 김계옥

저대 최민

소리 박애리

● 순수와 대중음악의 세계를 넘나들며 우리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1월 22일 늦가을의 정취를 담은 '월광'으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연주자이면서 지휘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신영균의 객원지휘로 옥류금과 저대 등 그동안 자주 접하지 못한 국악기의 협연무대, 구성진 국악가요로 편안하면서도 친근하고, 때론 엄숙하고 장엄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첫 무대는 한태수 작곡 관현악 'Fly to the sky' 부산초연무대로 연다. 'Fly to the sky'는 고단한 삶이지만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굿거리장단으로 담아낸 곡으로 넓은 평야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쾌한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이경섭 작곡 관현악 'Paradise' 부산초연 무대. 악상이 계절의 변화를 보이듯 시원스럽고도 잔잔한 대화처럼 흐르는 'Paradise'는 춤꾼의 발디딤을 연상하며 장단을 실어내고 소박한 굿판을 벌이듯 흥청거리는 음악을 그려낸 곡이다. 세 번째 무대는 물 위에서 한가롭게 혼자 노니는 허공에 뜬 달

의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으로 담아낸 정동희 곡 관현악 '월광'을 들려준다.

세 관현악곡에 이어 옥류금과 저대의 협연무대가 이어진다. 옥류금은 북한이 1970년대 전통국악기인 '와공후'를 개량해 만든 공명체 악기로 옥이 굴러가듯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번 무대에서는 옥류금 연주자 김계옥이 연변의 음악가 황금산이 편곡한 도라지를 연주한다. 1920년대 이후 '아리랑'과 함께 신민요로서 널리 불리워진 '도라지'는 옛날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많이 불리던 곡이다. 협연자 김계옥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 중국음악가협회 회원로 활동하며 아리랑, 궁타령의 멋, 아리진도, 아랑의 꿈 등 25현 독주곡을 작곡, 발표한 바 있다.

대금을 개량한 북한의 대금 '저대'는 중국문화부 주최 제2회 文華藝術政府獎-文華獎 민족기악콩쿠르 1위 수상자 최민의 연주로 만난다. 중국 연변 예술대학교 민족기악학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석사과정)를 졸업한 최민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민이 연주하는 저대협주곡 '노한파도'는 망망한 바다, 바위에 저항하며 도전하듯 밀며 부딪치는 파도의 힘을 극적으로 그려낸 곡으로 저대의 높은 기교와 표현력을 요구하는 저대 협주곡의 백미이다.

그 외 부산국악작곡가회 회원 이은경 작곡 국악관현악 '해몽', 국립창극단 단원 박애리가 들려주는 국악가요 상사몽(이경섭 곡), 귀거래(박범훈 곡), 쑥대머리(오지충 곡)로 늦가을의 정취를 전한다.

일시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사익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고단한 삶에 큰 위안을 주는 소리꾼 장사익이 11월 29일과 30일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로 부산을 찾는다.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장사익은 한 서린 절창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면서 청중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소리꾼이다. 장사익은 45세인 1995년 8월, 1집 '하늘 가는 길'을 발매하며 가수로 정식 데뷔하였다. 데뷔 후 국내 무대는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 공연도 여러 차례 가져 한국의 소리를 세계인의 가슴 속에 심고 있으며, 수준 높은 한국의 예술을 세계 속에 퍼뜨리고 있다.

가수 데뷔전 태평소 연주자로 이름을 날린 장사익은 1993년 전주대사습놀이 공주농악 장원, 1994년 전주대사습놀이 금산농악 장원에 이어 1996년 KBS 국악대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시절, 한동안 암울한 삶에서 헤매이던 장사익은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스스로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가수 데뷔 후 2년마다 '하늘가는 길', '허허바다', '꿈꾸는 세상', '사람이 그리워서', '꽃구경' 등을 주제로 꾸준히 정기공연을 가져온 장사익의 이번 공연 주제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이다. "수많은 인연들, 부모형제, 아내, 자식들, 친구들, 심지어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 모두가 노래하는 오늘날의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장

사익이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그의 속내를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짚레꽃, 꽃구경, 여행 등 그동안 불러왔던 노래들과 7집에 수록된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차는 간다 등의 노래와 함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를 노래하며 주옥같은 옛 가요들을 장사익 특유의 구성진 가락으로 그의 음악친구들과 함께 들려준다.

- 기타, 음악감독/정재열(Yamaha Music Korea 엔도싱 아티스트)
- 트럼펫, 하모니카/최선배 · 모듬북/고석진
- 드럼/박현민 · 베이스/정영준
- 타악/고석용, 신승균, 최영호 · 해금/하고운
- 아카펠라 그룹/솔리스트

일시 11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 할인)

문의 행복을뿌리는판(638-0514)
부산문화회관(607-6057)



패밀리합창단과 함께 부산국제합창제 참가하는 지휘자 금난새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해설음악회 '클래식은 내 친구'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지휘자 금난새가 남자의 자격-합창단 시즌3 '패밀리합창단'을 이끌고 2012년 부산국제합창제 무대에 오른다.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고경영자로,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창원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국내 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 그의 예능 프로그램 진출은 금난새 자신은 물론 시청자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금난새 지휘자는 그 동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설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을 전하며 우리의 삶속에 녹아들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왔다.

“오락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는 편이라 처음에는 남자의 자격 합창단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처음 지휘자 제의를 받고 물론 거절했죠. 지휘자 제의를 거절하고 나니 왜 거절했나고 주위 분들의 향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남자의 자격 패밀리합창단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음악을 더욱 가깝게 전하고자한 자신의 음악활동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에서 합창단 지휘자를 수락하게 되었다. 패밀리합창단은 합창단 구성원 대부분이 아마추어들이니 만큼 성악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연습과정 전부가 TV를 통해 방송되는 만큼 부담이 크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오디션과정, 연습과정이 공개되면서 음악회장이 아닌 TV를 통해 지휘자 금난새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주말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다.

패밀리합창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사연도 많다. 개그맨, 탤런트, 영화배우, 뮤지컬 가수 등 연예인 가족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일반 참가자들이 오디션에 참가했고 현재 56명의 단원을 선발해 연습이 한창이다. 6명의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연령층도 다양하다.

“오디션을 통해 많은 가족을 만나고 많은 사연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새삼 위대한 음악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합창단에는 물론 유명한 연예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참가인들과 하모니가 좋습니다. 다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디션 과정이 TV를 통해 공개되면서 패밀리합창단은 수많은 오디션 응모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다. 금난새 지휘자는 특히 희귀병에 걸렸던 어린 남매, 갑자기 시각을 잃게 된 청년과 연인의 사연과 노래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악보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 청년의 경우 노래 시작 부분이 힘들지만 연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갈 생각이다.

'패밀리합창단'은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한다. 단원들의 열의가 높아 촬영과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은 파트별로 모여 따로 연습하고 있다. 패밀리 합창단은 부산국제합창제 마지막 날인 17일 대중음악부분 경연에 참가한다. 이들이 선택한 곡은 영화 '대부'에 나왔던 음악 오페라곡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에 가사를 입힌 합창곡과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곡.

“합창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노래가 안 되는 사람도 서로 도와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합창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우리 사회도 계층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합창, 합창정신이 생활화되면 더 아름다워지겠죠.”

금난새 지휘자는 부산국제합창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패밀리합창단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연말 자신이 지휘하는 자선 음악회에 합창단 출연을 제의하기도 했다.

음악은 우리네 일상생활 속 삶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금난새 지휘자.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그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며 우리는 어느새 음악과 조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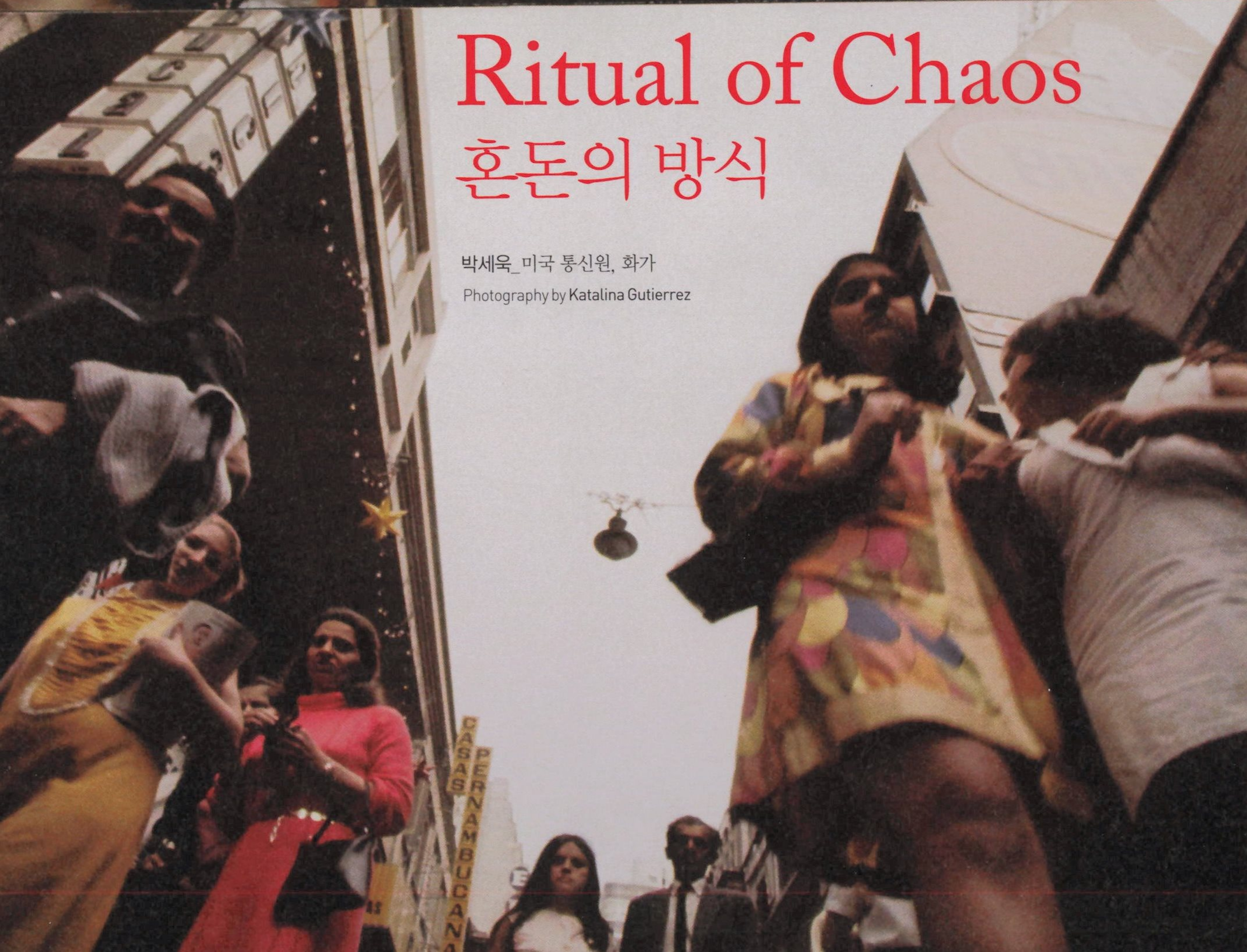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Ritual of Chaos

혼돈의 방식

박세욱_미국 통신원, 화가
Photography by Katalina Gutierrez



뉴욕이라는 공간이 정작 뉴욕다울 수 있는 시간이 요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비키니를 입고 늦여름 햇살 아래의 공원 벤치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뉴욕어도 있긴 하지만 센츨럴 파크의 산책로를 감싸고 도는 호수 위로 부는 바람에서, 벌써 할로윈에 쓸 장식용 호박과 기이한 복장의 소품을 서둘러 내놓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기자기한 골목에서도 어느덧 가을은 성큼 다가와 있다.

이렇게 두계절이 공존하는 햇살 좋은 늦여름의 뉴욕은 'Autumm in NY'이라는 노래의 무대처럼 가을이 참 어울리는 곳이다. 난 선선한 바람이 기분좋은 야외 카페에 앉아서 일년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문화행사와 전시회 일정을 다 제쳐놓고 그동안 가보고는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Bronx Museum of the Arts를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곳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800점 이상 소장되어 있지만 뉴욕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박물관 중 하나이다. 물론 맨하탄에서의 지리적 거리가 있어서 방문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컬렉션의 주류를 이루는 작가들의 인종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도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이 박물관과 마주하고 있는 양키 스타디움은 년 4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Bronx Museum of the Arts가 위치하고 있는 브롱스는 맨하탄 가을의 낭만과는 조금 거리 있는 또다른 뉴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십 년전 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갈수록 빈가게들이 늘고 인적마저 끊겨서 삭막한 유명도시처럼 변해 가는 할렘처럼 브롱스가 그렇다.

뉴욕은 브롱스, 부르크린, 맨하탄,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자치구가 하나로 묶여있는 도시인데 상주하는 뉴욕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남미계와 흑인이지만 그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이 브롱스와 할렘에 밀집해 있다. 따라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사회보장의 불확실성의 여파로 어느때보다 힘겹게 가을을 맞고 있는 곳이 사회적 절대 약자인 이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기도 하다.

이 뉴욕의 뒷안길에서 각박한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봄직한 좋은 전시회를 만날 수 있었다.

● 혼돈의 방식 Ritual of Chaos



혼돈의 방식 Ritual of Chaos

같은 제목의 작고한 멕시코의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인 'Carlos Monsivais'의 책 이름에서 명명한 이 그룹 전시회는 사진과 비디오 작품을 통해 대도시에서 있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직관적 매체로 캡처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도시와 문명이라는 구조속에서의 인간 행동의 다양한 역학적 실험과 현대적 분석이 돋보이는 전시회에서 정점에 온 대도시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도시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며 삶과 생명의 가치를 상실한 대도시 속의 인간을 투영하고 있는 세 작가의 작품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 Enrique Metinides 作

주말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전시관에 처음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1980년대 차림의 흑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순간을 담은 빈티지한 사진 한장이었다. 이 사진은 멕시코의 저널리스트인 Enrique Metinides의 작품으로 그는 11살때 처음 찍게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갱스터 두목의 사진을 계기로 50년 동안 활동한 멕시코의 범죄현장 사진가이다. 그는 일년내 내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 사고와 참사 현장, 끔찍한 범죄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범죄자와 희생자들의 절망과 고통의 기록을 특유의 휴머니즘 가득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범인과 대치하고 있는 경찰의 공포에 질린 표정, 공원 산책 중 만난 강도에 희생된 약혼자의 곁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젊은 여인, 사고를 당한 아이를 안고있는 엄마의 망연자실, 자살을 하기 직전 다리난간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남자의 절망의 눈빛과 같이 매일 수없이 발생하는 도시의 사건속에 한 사람의 목숨조차 단지 통계의 수치에 지나지 않는, 대도시의 잔인함 뒤로 가려진 인간이기에 겪어야 할 고통과 비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방문객의 발걸음을 오랫동안 붙들어 놓는다.



• Rick Liss 'No York City'

그리고 다음 인상적인 전시물은 뉴욕 출신 아티스트인 Rick Liss의 'No York City'라는 비디오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작 배경이 되고 있는 1980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패스트푸드, 팝송, 코카콜라,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시대, 서구사회 전성기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모두의 꿈이었고 미국은 전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영원할 것 같았다. 히피와 냉전은 미국식 자유주의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미국의 대중문화는 놀라운 침투력으로 세계 어느곳에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No York City'는 그러한 뉴욕이라는 거대 생명체의 세포와 다를 바 없는 개인의 일상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로 상징한 60초의 영상이다.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자본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단순한 전기의 전자 입자에 불과한 소외된 인격체로서의 무가치한 도시속 인간의 공포를 그리고 있다.



• Sophie Calle 作

또 오랫동안에 프랑스 파리 출신의 유명한 사진작가이자 설치작가인 Sophie Calle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질문에 친밀한 사진과 낙서의 형태로 우리의 공공 생활과 개인 자아 사이의 연관성을 스스로의 행동 패턴을 통해 정의하고, 사실과 허구 사이의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공공장소와 그곳에서 스스로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표류하는 작가 개인적 독백을 통해 답하고 있다. 개인적인 서사시와도 같은 그녀의 작품들은 강렬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그녀의 삶 자체를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예술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거대 소비시장인 동시에 밤낮 없이 가동되는 생산공장인 대도시의 인간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하며 사회의 주역이라기 보다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도시인의 상실감은 사회병리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부적응자들의 반사회적 병태 현상인 자살과 범죄는 심각할 만큼 급증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공포는 도시 구성원 개개인을 더욱 고립시키고 또다른 부작용을 전염하게 되는 악순환만 대안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들이 담아내고 있는 1980년대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해체와 급격한 도시화가 낳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도시의 화려함과 허상에 묻혀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 시대의 혼돈을 작품으로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는 이 작가들의 전시회는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1980년대에 봉인된 '인간성 회복'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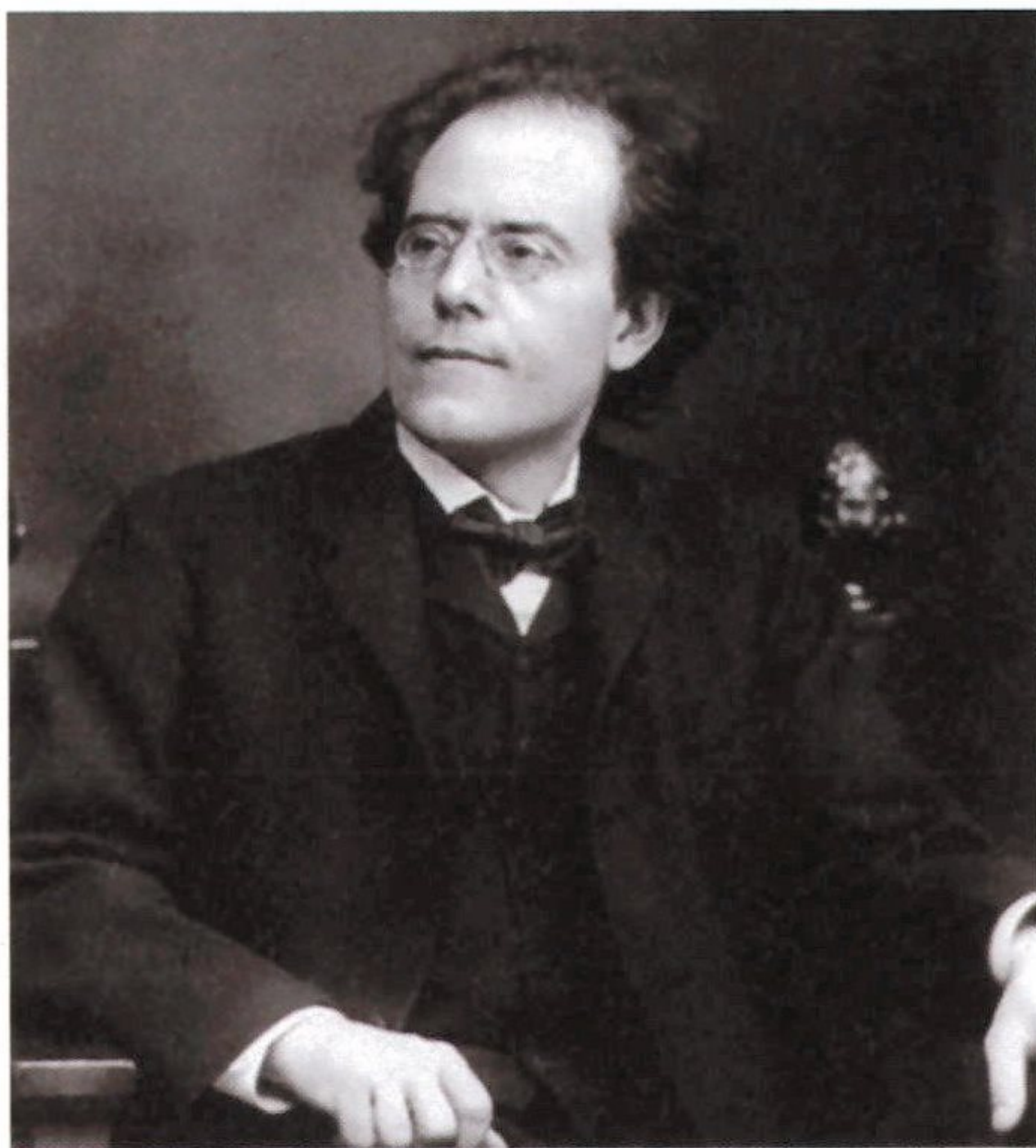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세기의 스타 마이클 잭슨이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12년 미국은 40년전 마이클 잭슨의 자리를 한국에서 온 한 가수에게 내 주었다. 이원적 독점시기에서 다원적 경쟁시대로의 전환, 미국의 필연적 변화를 예감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아닐까?

가방은 무겁고 신발은 좀 불편했지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초가을 정취속 고즈넉한 할렘 리버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짧아진 해만큼이나 강바람이 제법 쌀쌀하다. 내 손에 김이 피어오르는 라떼가 문득 기분 좋다.



교향곡 ‘大地의 노래’ (상)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말러

말러(1860-1911)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1908년에 작곡된 말러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이다. 가곡의 느낌이 강하나 교향악적 구성을 하고 있고 작곡가 본인이 교향곡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교향곡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곡은 이태백과 왕유, 맹호연 등 중국의 한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작곡한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말러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세주의에 빠져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양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이 곡을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예찬과 삶에 대한 회의를 주제로 작곡된 이 곡은 전체 6곡으로 곡마다 표제가 붙어 있다. 하지만 말러는 자신의 곡을 들어보지 못하고 1911년 5월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 해 11월 브루노 발터에 의해 초연되었다.

1907년 6월 말러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감독 하인리히 콘리트로부터 지휘자 제의를 받는다. 마침 말러는 1897년의 시즌부터 11년간 몸담았던 빈 국립극장과 마찰을 겪어오다 5월부터 사임을 고려하

던 중이었다. 6월 말 말러는 극장 측에 사임의사를 밝혔고 이 요청은 곧 받아들여진다. 이 해 여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말러 가족은 휴가를 위해 별장이 있는 마이에르니히로 떠난다. 그곳에서 장녀 마리아가 성홍열에 걸려 7월 중순 세상을 떠난다. ‘푸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말러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나이는 불과 다섯 살이었다. 큰딸이 죽은 지 며칠 후 말러는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고 의사의 진단 결과 말러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는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말러는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마이에르니히의 별장을 내놓은 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 향후 여름을 티롤의 실루더바흐라는 곳에서 보낸다. 한스 베틀게(Hans Bethge)가 중국 시를 독일 시로 번안한 시집 <중국의 피리>에 말러가 몰두하게 된 것도 이 곳에서였다. 이 시집이 담고 있는 어둠과 초월,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아름다움과 고별은 지친 말러를 사로잡는다. 천성이 작곡가였던 말러는 이 시집의 시 몇 편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의 여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작곡에 몰두해 ‘대지의 노래’라는 특이한 교향곡을 완성한다.

하지만 한스 베틀게가 <중국의 피리>를 쓰면서 사용한 텍스트는 중국의 원시가 아니었다. 그의 시집에 담긴 83편의 시 중 말러가 사용한 시는 모두 700년대 당나라시대의 시 일곱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피리>에 담긴 시의 시대는 방대하여 19세기에까지 이른다. 여기에서 19세기의 중국 시에 대해 베틀게는 영어 번역 텍스트를 사용했으며, 고시에 대해서는 한스 하일만의 독일판 <중국의 서정시>, 주디트 고티에르의 불어판 <옥(玉)의 책>, 에르베이-생-드니의 불어판 <당나라 시대의 시> 등을 참고하였다. 이 저자들 중 한스 하일만 또한 중국 원시를 번안한 것은 아니고 고티에르와 에르베이-생-드니의 두 불어 텍스트와 영어 번역 텍

스트를 사용했다. 다행히 고티에르와 에르베이-생-드니는 중국어에 능통하여 중국 원시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도 베트게나 하일만의 시집을 표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같은 시를 쓸 때에도 저마다의 감정을 담아 서로 다른 문장과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스 베트게의 <중국의 피리>는 발매되자마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당연히 세기의 전환과정에서 유럽문화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들어온 목판화, 시, 풍경화, 건축물 등은 유럽문화에 새로운 소재와 기교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스 베트게의 시집은 한편으로는 여학생을 위한 감상적인 시집 정도로 진지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베트게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그다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가 번안한 것 역시 원시가 아니라 영어나 독일어, 불어 등으로 이미 색깔이 달라져 있던 것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시에 담긴 배경과 분위기, 시인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럽 언어로 옮겨진 시의 이국적인 매력과 시가 서술하는 이야기 그 자체의 허무와 감상 등만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시집이 동양적인 것과 몽환적 정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굳이 한시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베트게의 시집 자체가 독립된 훌륭한 작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사실 베트게가 이런저런 텍스트를 모델로 사용하긴 했지만 독특한 자기만의 표현도 담고 있는데, 이를테면 1악장에서 인상적으로 반복되는 구절 '삶도 어둡고 죽음도 어둡다'는 어느 텍스트에도 없는 베트게의 문장이다. 게다가 베트게는 이 모든 번안가들 중에서 중국의 시를 유럽 정형

시의 형태로 가장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말러는 '대지의 노래'를 위해 시의 문장을 바꾸거나 빼고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는 등 많은 수정을 가했다. 말러에게 있어 이런 작업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8번 교향곡을 제외한 다른 곡의 텍스트들은 대부분 말러가 많은 수정을 가하였다.

'대지의 노래'를 위해 선택된 7개의 시 또한 여러 편집과정을 거쳤다. 내용은 물론 시의 제목도 말러에 의해 수정되었다. 하지만 말러가 가한 수정은 단순히 음악에 필요한 가사를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류에 대한 자신의 표현 방식에 맞게 고친 것이다. 이 고대 중국의 시들은 유럽의 언어로 옮겨지면서 외면과 내면의 풍경화를 유유히 그리는 듯 한 한시 특유의 매력이 많이 사라지고 허무와 어두움, 아름다움에 대한 서양적 개념으로 채색되었는데, 말러는 한스 베트게의 다소 직설적인 언어를 다시 고쳐서 허무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더 형상화하려고 했다.

일곱 편의 시를 말러는 대칭구조로 구성하였다. 첫 악장에서 봄이 피어나는 대지와 삶의 하찮음과 허무를 노래하고, 마지막 악장에서 삶에 대한 이별과 역시 봄이 피어나는 대지를 그린다. 2악장은 가을에 대한 노래이며, 5악장은 봄에 대한 노래다. 3, 4악장에서 말러는 '젊음'과 '아름다움'이라는 밝은 주제로 목가적인 곡을 만들어 놓았다. 말러는 곡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후 각 악장의 제목을 변경시켰다. 말러의 자필 악보에서는 시의 각 제목들이 베트게의 것 그대로이지만 이 제목들이 나중에 수정된 악보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제목은 곡이 완성된 후나 수정되었을 것이다.

● 1908년 작곡된 말러의 최고결작 중 하나인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한스 베트게가 중국 시를 독일 시로 번안한 시집 '중국의 피리'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되었다.



백남준의 독일시대 (1956~1963)

안소현_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 계단에 앉아있는 백남준(1963)
(만프레드 몬트베 사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작업한 백남준은 그가 머문 곳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보다 더 많은 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마다 그곳에서 가장 참여하다고 느끼는 예술적 실험들을 감행했다. 그런 면에서 백남준의 여권상의 국적이 한국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때로 그의 '세계시민적' 행보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느낌이 든다. 백남준은 지역이나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고, 유럽 사람들은 그가 쓰는 문법적으로 엉망인 언어를 Paikisch(독일어로 백남준의 언어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부르며 그 불완전함에서 시적 뉘앙스를 읽어내려고 했다. 따라서 그가 낯선 곳에 체류한 것은 일종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위였으며, 어떤 곳에도-심지어 한국에도- 완전히 동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1950년 일본으로 건너간 백남준은 작곡과 입학에 실패하면서 미학을 공부하게 된다. 실패의 결과였지만 이때 그가 접한 다양한 미학 텍스트들, 특히 독일 관념론의 텍스트들은 이후에 자신의 예술적 실험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그의 놀라운 사상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6년 후 백남준은 쇤베르크를 공부하기 위해 독일 뮌헨으로 가서,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 신음악과 미술사 등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였다.

재학 중에 백남준은 마침내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을 마련해준 도시인 다름슈타트로 가게 된다. 다름슈타트에서는 해마다 '신음악을 위한 국제 여름코스'가 열리고 있었는데, 백남준은 그곳에서 존 케이지를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케이지를 만난 1958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원전(BC : Before Cage)과 기원후로 나눌 만큼 케이지를 만난 순간을 '경이로움'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4분 33초>나 우연의 요소들로 작곡한 여러 곡들은 이전의 음악들이 주지 못한 새로움의 희열을 백남준에게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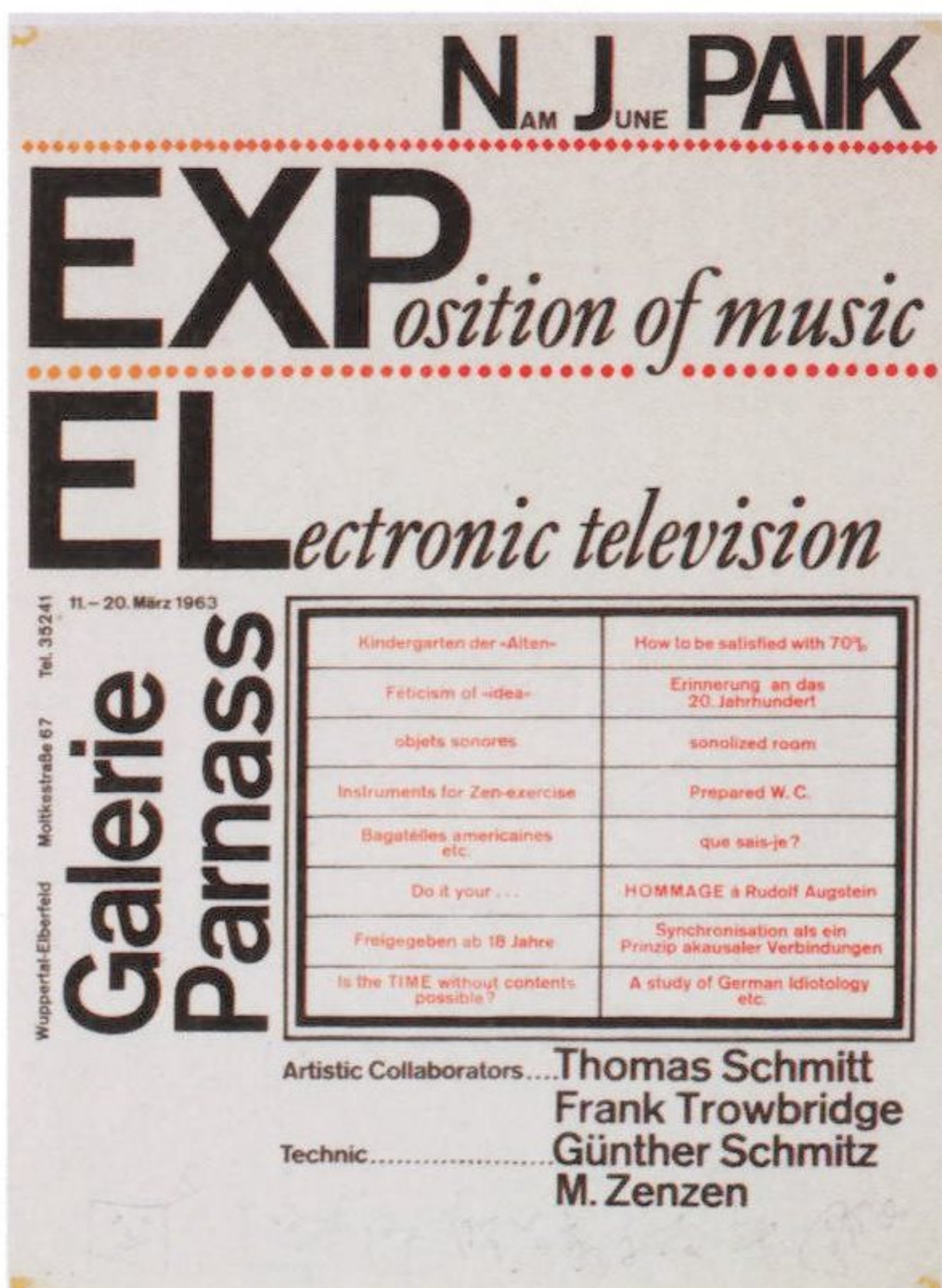
그러나 백남준은 우연의 음악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좀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했다. 작곡 공부를 계속하려던 백남준에게 그의 스승 볼프강 포르트너는 서부독일방송국(WDR)에서 일해 볼 것을 권한다. 이때 백남준은 전자매체가 가진 매력에 빠져들면서 전자음악, 텔레비전 등의 뉴미디어에 눈을 뜨게 된다. 이 시기에 그는 특히 테크놀러지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묻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의 행위예술을 전개한다. (지난 호 참고)

1961년 백남준은 잘 알려진 대로 플럭서스(Fluxus) 운동에 가담한다. 조지 마치우나스부터 요셉 보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금 보아도 다소 충격적인 퍼포먼스들을 실행한다.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객석에 있던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고, 머리에 먹을 묻혀 종이에 쓰는 등의 공연을 했다. 우리에게 백남준은 <다다익선>이나 로봇 시리즈 같은 이른바 '비디오 조각'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 백남준의 이름을 알린 것은 이 퍼포먼스들이었다. 그의 유쾌함이나 변화무쌍한 행동들은 비디오 조각이나 퍼포먼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이른바 예술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미술사에 남은 작업들은 이 퍼포먼스였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1963년 3월 11일 독일의 작은 도시 부퍼탈에서 드디어 백남준의 첫 개인전인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 열렸다.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는 온갖 장난감들과 철망, 선풍기 같은 이상한 물건들이 장치된 피아노가 있었고, 넘어지거나 부서진 피아노들이 놓여있었다. 음파나 전파의 조작을 통해 화면을 변형시킨 이른바 실험 텔레비전들이 늘어서 있고, 레코드판을 줄줄이 꿰어 놓은 '레코드 꼬치'도 있었다. 장르를 규정하기 힘든 이 전시장면에는 백남준의 예술관이 묻어났다. 그에게 음악은 화음이나 리듬이 아니라 파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파장을 받아들여 시각화하는 텔레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이 부퍼탈의 이 개인전을 비디오 아트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한다. 그것은 백남준이 비디오라는 장비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매체의 본질을 꿰뚫고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백남준은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독일이라는 토양에서 최대한의 예술적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음악과 신음악의 긴장이 충돌하던 독일에 입성하여, 미술과 건축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으며, 전후 매스미디어에 대한 경계와 비판 의식이 날카로웠던 독일에서 텔레비전을 예술의 매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세계 시민적인 행보와 작품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찌면 지난한 시절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의 남다른 가정환경 덕분이라기 보다는, 그가 머무르던 곳에서 거침없이 모든 자원을 흡수하려했던 그의 남다른 촉각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 <음악의 전시> (1963) 포스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음악의 전시> (1963) 공연 장면 (만프레드 몬트베 사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대동강 월야선유도 평양감사의 대동강 뱃놀이에 모인 사람들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월야선유도〉 일부

‘평양(平壤)’이란 들이 넓은 땅이라는 뜻으로 서도(西道)의 으뜸 고을이다. 땅넓고 물산 풍부한 평양땅의 젖줄은 바로 대동강(大同江)이다. 뭇물줄기가 다 모인 강이라는 뜻이다. 천하를 호령할 기세의 평양감사가 한양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감영에 부임했다. 그를 위해 몇날며칠 동안 준비해온 연회를 드디어 열게 되었다. 무대는 물줄기 확트인 대동강이다.

오늘 감상할 내용은 〈대동강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종이담채, 71.2×196.9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앞서 소개했던 〈연광정연회도〉〈부벽루연회도〉와 함께 〈평양감사향연도〉의 일부이다. 흔히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관서(款署)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일단 단정하지는 않겠다. 따라서 제작년도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그림은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환영하기 위해 대동강 선상에서 수많은 배가 행렬을 지어 성대한 연회를 연출하는 장면이다. 화법은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조감(鳥瞰)하는 방식의 투시도법이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읽어보자. 멀리 산의 경치를 보니 계절은 화사한 봄날인 것 같다. 날이 어두워지자 평양감사를 위한 뱃놀이가 시작되었다. 이쪽 강변과 건너편 대동문(大同門)과 읍호루(挹灑樓)를 잇는 성벽 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 횃불을 들고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성 안 마을을 보니 집집마다 깃발과 연등을 달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 양쪽의 연호하는 횃불 만이 아니라 강물 위에도 수많은 유황불을 띄워 흰하게 밝혔다. 강 이쪽에는 일반 양민이 많은 편이고 저쪽 강기슭에는 사대부가 많이 나와 있다. 성 안팎에 민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강가에 나와 감사행렬을 가까이서 보고싶었을 게다. 몇 킬로에 이르는 강변따라 아마 평양고을 사람들이 다 나온 듯하다.

드넓은 강물 위에 많은 배들이 감사가 탄 주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 좌우에서 따르고 있다. 먼저 감사가 탄 배를 보자. 이 배는 가장 크고 시야가 아주 넓게 트여있어, 감사가 사방을 조망하기에 좋은 자리다. 화려한 지붕과 주철을 한 기둥의 장식이 위엄을 더해 준다. 감사 앞에서 전통(箭筒)을 맨 군관(軍官)과 비장(裨將)이 호위하고 있고, 앞뒤로는 육방관속 아전(衙前)들이 바짝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연신 조아린채 대기하고 있다. 어린 시동도 예닐곱 보인다. 바로 옆엔 관기(官妓)들이 대기하면서 시중들고 있고, 앞에선 4명의 악사가 양쪽으로 앉아서 철릭(天翼)과 전복을 입고 음악을 연주하며 흥을 돋우고 있다. 이쪽은 해금과 생황이며 저쪽은 피리와 대금이다. 다음에 감사

일행 앞의 배 5척에는 군관들이 승선하여 의장기와 청사초롱을 들고 있다. 옆과 뒤에도 군관의 배가 1척씩 따르고 있다. 그 앞에선 전복을 입은 대취타(大吹打) 군악대가 8명씩 2척에 각각 타고 고각(鼓角: 북과 나팔)을 울리며 선도하고 있다. 감사의 뒤를 따르는 행렬에는 수청들 관기들, 평양고을 사대부들, 축하차 참석한 인근 고을 수령들이 탄 배가 뒤 따르고, 그보다 작은 수십척의 목선에도 많은 고을 민인들이 타고 부산하게 따라가고 있다. 대동문 앞에는 연안에서 기다리던 구경꾼이 배에 타려는 모양이다. 배가 움직이는 동선의 특색은 감사를 비롯한 군관·대취타 등이 탄 관선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위엄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사대부와 민인들이 탄 민선들은 불규칙한 사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 분방함을 느끼게 하였다.

강 건너 하늘을 보니 초승달보다 조금 큰 게 초닷새 무렵은 되었다. 아직은 어두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햇불과 유향불로 휘황찬란한 야경을 연출했다. 수제 강물 위에는 배와 인파로 뒤덮였다. 한눈에 보아 장관이다. 마치 궁중에서 행하는 대악부(大樂府)에서의 풍악(風樂)과 정재(呈才)에 크게 못지않게 연출되는 지방의 화려한 유흥이라 할만하다. 과연 평양감사다.

이 그림은 구경나온 인파와 배 뿐만 아니라 대동문, 연광정, 읍호루, 모란봉과 부벽루 등까지 배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조선후기 성곽건축의 양식을 참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더불어 관리나 군관 및 사대부와 민인들의 복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중기의 문인관료 최립(崔崱; 1539~1612)은 시문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임진왜란 중 명나라와의 관계가 복잡해지자 문장으로 나라를 지켰다. 주청사의 질정관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중국문단을 쥐락펴락하던 왕세정(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하였고, 그곳 학자들로부터 명문

장가라는 격찬을 받았다. 명나라에 다녀오는 길에 평양에 자주 머물렀다. 대동강 나루에서 고려의 문신 정지상(鄭知常)의 유명한 시 <송인(送人)>에 차운해서 절구를 지었다.

대동강 나루 건너는 사람 하도 많아서 / 大同江口渡人多

길손 보내는 슬픈 노래 질리게도 들었소만 / 慣聽勞勞送客歌

삼년 임기 마치신 우리 님만 한 이 있었을까 / 誰以三年咨度定

조정에 돌아간 뒤에도 덕의 물결 출렁일 테니 / 身歸天上漣餘波

강나루 고운 배에 귀한 사람 하도 많으니 / 蘭舟在渡馬聲多

작별하며 슬픈 노래 굳이 부를 필요 있으랴만 / 作別何須唱楚歌

이제부터 남몰래 흐르는 눈물 걸잡기 어려워서 / 自是令人難忍淚

바람부는 석양녘엔 강물도 불어나리이다 / 風吹落日水增波

전자는 평양주민의 입장에서 지은 송덕시요, 후자는 관기의 입장에서 읊은 애뜻한 시다. 대동강 월야선유도에 출연한 감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위의 시에서처럼 선정을 베푼 양반이 아니었을까.

오늘 감상한 대동강의 수상 퍼레이드는 이백년 전 관등(觀燈)과 선유(船遊)의 극치를 이룬 놀이다. 요즘 부산과 서울에서 화려한 불꽃쇼를 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든만큼 화려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왠지 포근함이 나 사람다운 향기는 찾기 어렵다. 대동강의 햇불 속에서 보는 뱃놀이의 정경은 지금은 볼 수 없고 그림으로만 만난다. 다행히 선비의 고장 진주에서는 드넓은 남강을 무대로 매년 유등축제를 열고 있다. 강물 위에 뜬 여러 유등이 정겹고 진주성과 축석루의 불빛이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테마가 있는 축제의 공간이다. 필자는 이번 축제에도 다녀왔다.

● <월야선유도>





부산 유일의 전통음식 상설체험장

뜰에장

만덕민속오리마을 입구를 지나 좁은 길로 들어서자 주택가 한켠에 낮은 돌담으로 둘러싼 고즈넉한 고택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운 야생화가 군데군데 피어있는 양지바른 잔디밭과 반들반들하게 잘 닦여진 장독들, 나란히 걸려있는 대형가마솥, 여기가 바로 부산 유일의 전통음식 상설체험장인 '뜰에장'이다. 말 그대로 '뜰에 장(독)'이 가득하다 해서 이름 부쳐진 '뜰에장'은 된장, 간장에서부터 김치, 장아찌, 동래파전, 한과까지 우리의 전통음식을 비롯해 부산의 향토음식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뜰에장’은 저장발효음식 전문가로, 지난해 대한민국 산업포장 훈장까지 받은 권소숙 씨가 운영하고 있다. 부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많은 손님을 치렀던 어머니로부터 음식솜씨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권소숙 씨에게 어찌면 전통음식 전도사로의 길은 당연한 일. 권소숙 씨는 그동안 장류 가공, 전통주, 다도, 혼례음식, 한과 뿐 아니라 천연염색, 규방공예, 플라워디자인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전통음식과 문화를 전파해 왔다. 1991년부터 부산광역시 생활개선회 활동을 해오던 권소숙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장직을 맡아 생활문화 개선활동에도 앞장 서왔다.

10여년 가까이 전통음식 상설체험장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지금의 ‘뜰에장’ 이름을 걸고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재개발로 금곡동에서 지금 이곳 만덕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부터이다. 올해 10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서 체험 뿐 아니라 우리 전통음식을 알릴 수 있는 상품개발에도 힘써 오고 있다.

‘뜰에장’을 방문한 지난 10월 17일, 넓은 마당이 한눈에 들어오는 키작은 담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박한 기와집 한 채와 이층 양옥건물이 나란히 맞는다. 주 체험장으로 사용되는 기와집에 들어서자 방금 나온 색색깔 양갱과 약과 포장으로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녹차와 팥, 호박 등 세가지 재료의 양갱과 대추 꽃으로 장식된 약과는 아직 정식 시판은 되지 않았지만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해 가진 시음회에서 전량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바로 옆에 자리한 이층 건물에는 단체 체험실과 더불어 세척실, 숙성실 등이 자리하고 있어 단체체험이 가능하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부산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뜰에장은 타 지역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명소로 이름이 높다. 전통 장 담그기와 김치, 장아찌 등 주부들의 필수코스에서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식 체험교실, 외국인을 위한 전통음식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뿐 아니라 타지역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전통음식 체험교실 요청이 쏟아지면서 권소숙 씨의 한달 달력 일정표에는 빈틈이 없다. 학교체험의 경우 출장체험도 가능하다. 직원들과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도구를 챙겨야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전통음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겁다.

‘뜰에장’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1가족 1개 장독 갖기’. 메주 쭈기에 서부터 장을 담고, 간장을 걸러 된장을 뜰 때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담근 장을 가져가는 체험으로, 손수 장을 담고자 하는 주부들의 참여가 높다.

부산의 향토음식인 동래과전 만들기는 ‘뜰에장’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도 체험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조선시대 동래부사가 3월 삼짓날 임금님께 진상한 귀한 음식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쌀가루가 들어가는 동래과전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특히 외국인과 타 지역 체험객들이 좋아한다. 그냥 음식만 만드는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체험으로 인기가 높다.

“그동안 부산의 관광 코스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아쉬웠다”는 권소숙 씨. “부산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 맥을 이어 부산의 또다른 모습을 알리고 싶다”는 그는 ‘뜰에장’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상설체험관으로 꾸려나가고 싶다.



●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받은 ‘뜰에장’은 약과, 양갱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사진은 약과와 녹차, 호박, 팥으로 만든 양갱.

● ‘뜰에장’은 그냥 음식만 만드는게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체험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가락 좋으시고...배워서 남주자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배워서 남주고' 있는 교사들이 이번에는 우리가락의 매력을 '배워서 남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부산시내 초중고 교사 40여명으로 결성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단장 류성식·경남공고 교사)이 바로 그 주인공. 11월 16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릴 제8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학교수업과 업무로 바쁜 중에서도 연주회 연습이 한창이다.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의 태동은 20여년 전 '민음(民音, 민족음악 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 창립되던 해인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민음'은 당시 서양음악에 치중된 음악교육을 바로잡아 정작 우리음악이면서도 외면받는 국악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자는 뜻으로 모은 교사들로 결성됐다.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음악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토론하고 학술심포지움을 갖는가 하면 국악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국악기를 배우고 나섰다.

제대로 된 국악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국악을 아는게 최우선이었을 터.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악교사 중에서도 국악전공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구와 민요에서 시작된 국악강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 회원의 1인 1악기 배우기로 확대됐다.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01년 부산교육대학교 故 이두원 교수의 주도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국악연주단체가 어울려 부산교사전통문화연구회가 결성되면서 국악오케스트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 민음 회원들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은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교과서음악회 등을 통해 매년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93년 민음이 결성된 후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가져온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요즘도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연산동에 위치한 연습실에 빠짐없이 모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단원 수도, 연주기량도 늘었지만,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단원들 대부분이 국악기를 처음 접해보는지라 연주실력도 입단년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악에 대한 열정과 이해. '배워서 남주

자'는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모토에 따라 '남'인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국악교육을 펼치는게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일까,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단원인 교사들 중에는 국악관련 동아리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많다.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1월 16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8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부산진여고 조익래 교사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국악관현악곡인 '프론티어(양방언 곡)', '아름다운 인생Ⅱ(김선제 곡)', '산행(김영동 곡)', '연(이경섭 곡)' 등 국악창작곡을 들려준다. 전통음악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연주회에서는 매년 국악창작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들려주고 있다. 또 이번 무대에서는 조위현(해금), 박은정(가야금), 신아진(거문고), 진민진(아쟁) 등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의 지도를 맡고 있는 연주자들의 객원연주도 함께 펼쳐진다.

특히 올해 정기연주회에서는 대구교사국악관현악단과 교류음악회를 갖는다. 타 지역 단체와 갖는 첫 교류무대로, 대구교사국악관현악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정기연주회 무대에 이어 11월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에는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이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2013년은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문의_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단장 류성식
(010-4567-1582, cafe.daum.net/mineum)

● 제대로 된 국악교육을 위해 직접 국악기를 배우며 오케스트라를 결성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교과서 음악회 등을 통해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카르미나 부라나〉와 비보이

신설령_음악평론가

● 10월 공연 안내를 보며 눈길이 머문 것은 색다른 조합의 공연무대 예고였다. 순간 이거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티켓 예매에 들어갔다. 이는 연주 기획의 특별함이 청중을 공연장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이라는 대규모의 합창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까지 함께한다면 일단 〈카르미나 부라나〉가 요구하는 울림을 제대로 나타내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보이의 무대가 함께 펼쳐진다니 호기심이 발동한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아마도 비보이 〈스텝크루〉 무대 때문인가 보다. 비보이를 보러 왔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공연장을 찾았든 그들에게 이 저녁 시간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맡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잠시 소망해 본다.

합창으로 운명의 여신을 노래하고 비보이가 봄날의 환희를, 청춘의 넘치는 에너지를 온 몸으로 드러낸다.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며 리듬에 맞추는 이들의 몸동작을 보며 감탄한다. 얼마나 이 음악을 많이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리며 보냈을까. 누가 안무를 하고 균형과 절제와 화합을 이끌어냈을까. 무대 위에서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저들의 자유를 포기했을까. 어떤 일에서든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훈련의 강도임을 비보이를 통해 또 다시 본다. 공연장을 찾은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의 맛을 알기를 원했던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는 비보이의 춤을 통해 나의 예술 취향의 편협함을 보게 된다. 어디 춤이라는 게 클래식 발레뿐이라.

〈카르미나 부라나〉 곡의 특성상 유니슨으로 부르는 부분이 많아 합창의 웅장함은 드러나지만 섬세함은 부족할 수가 있다. 곡의 시작부분에서 유니슨으로 중세음악의 분위기를 나타냈던 합창은 곡이 계속되면서 합창의 섬세함도 드러났다. 여성 2부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합창도, 4부합창의 건실함도, 곡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니슨의 단순함을 다이내믹의 적절한 사용으로 변화를 줌은 지휘자의 몫이었겠다. 물론 이 공연은 전체 구성의 배치가 중요했을 터이고 이 또한 지휘자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곡 중 솔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성악가가 아니었다. 팜플렛과 당일 스크린을 통해 알게 된 바리톤 솔로는 박홍우였다. 갑자기 솔로리스트가 바뀐 걸



● 비보이 스텝크루

까. 칼 오르프는 이 곡에서 성악가들에게 간혹 너무 높은 음을 요구하여 부담을 준다. 박홍우는 2년 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너무나 탁월하게 표현하여 그의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했었는데 음역이 높아서인지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나오는 데 조금은 무리가 간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그의 멋진 저음이 빛을 발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이날 소프라노 솔로 박미자는 정말 매혹적인 아름다운 소리로 청중을 홀렸다.

마지막 곡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비보이가 함께 운명의 여신을 입술로, 악기로, 몸으로 노래하는데 그 장엄함이, 그 끓어오르는 열정이, 넘치는 젊은 에너지가 무대를 벗어나 객석으로까지 흘러 청중을 압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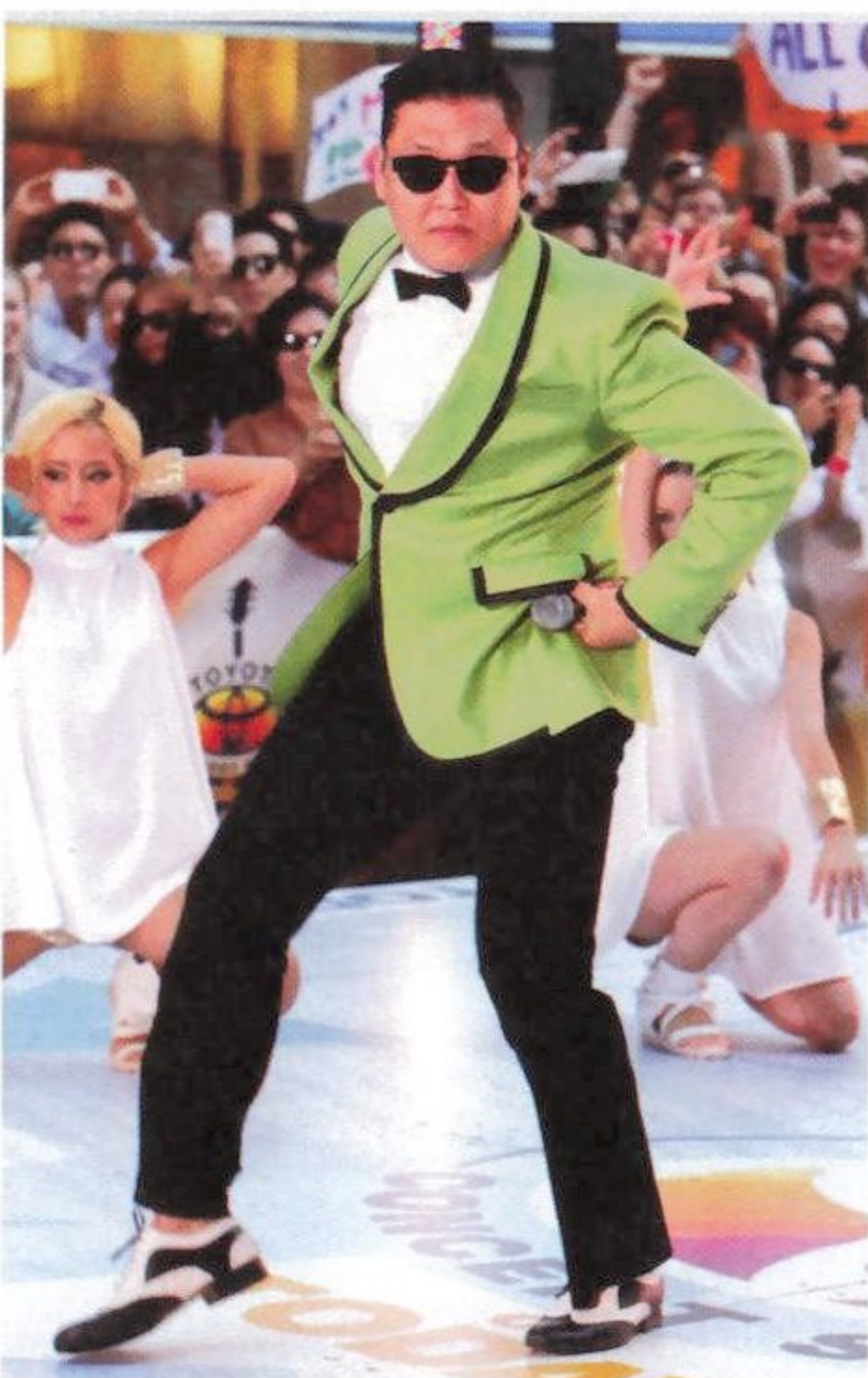
무대공연에서 기획의 중요함을 보는 순간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꽤 많이 연주되는 곡 중 하나다. 그러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시도가 있을 여지가 있는 곡이기도 하다. 다양한 악기 편성으로 새로움을 주기도 하고, 혹은 발레와 함께 함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비보이와의 협연은 고무적이다. 그들에게 큰 무대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는 공연의 의미도 크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주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다.

세계인의 문화콘텐츠, '강남스타일'

남인용_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롬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대역이 Jay Leno가 진행하는 NBC의 Tonight Show에서 강남스타일 춤을 추더니, 싸이는 NBC의 Today Show에 직접 출연해서 진행자와 춤을 추며 강남스타일을 두 차례나 불렀다. 한 프로그램에서 같은 노래를 두 번 연속으로 부른다는 것은 보통의 노래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강남스타일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류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스타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싸이의 공연에 수만명의 관객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는 등 관의 지원이 부각되는 추세이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강남스타일이 정부나 서울시를 비롯한 관의 지원 덕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강남스타일은 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다. 수많은 문화콘텐츠는 관의 지원이 없이 성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의 지원이 없으면 문화콘텐츠가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다. 관의 지원이 문화발전에 유익한 것만은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충실한 준비와 저렴한 관람요금 덕분에 고급문화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은 좋은 사례가 된다. 그렇지만, 관이 지원과 함께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문화콘텐츠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간섭할 일이면 차라리 지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강남스타일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며, 우리 국민의 자긍심 고양에도 기여할만한 것이다. 관의 지원 방향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은 미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의 트렌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 'Sexy and I know it'이라

는 LMFAO의 노래가 크게 유행했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의 많은 스포츠 행사장에서 LMFAO의 'Party Rock Anthem'을 지겹도록 들을 수 있었는데, LMFAO의 뮤직 비디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많이 닮아 있다. 강남스타일은 한국만의 산물이 아니며, 세계 각지의 문화가 교류하면서 생산된 문화콘텐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강남스타일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견해는 주목할만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각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흡수해 왔다. 외부의 문화를 때론 모방하고, 때론 변형시키면서 세계인 누구나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 관이 지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강남스타일처럼 동서양 모두에 수용되는 문화콘텐츠가 더욱 발달할 수 있도록 문화자양분을 육성하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게 되면, 우리 문화가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화 교류에 지배의 개념을 포함시켜 왔다.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권력 확장의 도구로 본 것이다. 우리 미디어는 이와 같은 저급한 패권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세계문화를 두루 소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끊임없이 내놓을 수 있다.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의령



- 1. 광재우 생가앞 천연기념물 제302호 세간리 은행나무
- 2.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생가
- 3.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생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로 가득했던 지난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79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의병의 얼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의령. 망우당 광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군의 침공을 막았던 충절의 고장이다.

테마여행 당점의 행운을 안은 44명의 정기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특히 이번 의령 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인 이현숙, 김동숙, 김태훈 씨가 동행하면서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가을로 물들어가는 차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 어느새 의령이다. 의령관문을 통과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정종규씨가 반갑게 정기회원 가족들을 맞는다. 이번 의령 여행에서는 의령의 3대 인물인 망우당 광재우 장군과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의 자취를 찾아 그들의 정신을 배워보기로 했다.

정종규씨의 인솔로 처음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선생의 생가. 이병철 생가는 1851년 故 이병철 회장의 조부가 손수 지은 전통 한옥으로, 그동안 몇 차례의 증, 개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단장됐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 곳은 곡식을 쌓아놓은 것 같은 노적봉 형상을 하고있는 주변 산의 기가 산자락의 끝에 위치한 생가 터에 혈(穴)이 되어 맺혀 있어 그 지세가 융성할 뿐 아니라 멀리 흐르는 남강이 생가를 돌아보며 천천히 흐르는 역수(逆水)를 이루고 있어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한다.

호암생가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 독립운동가로 창남학교, 의신학교 등을 설립해 신학문 보급에도 힘썼던 안희제 선생은 부산과도 매우 인연이 깊다. 선생이 지금의 중구 동광동에 설립한 백산상회는 부산 최초의 무역회사이자 일제시기 독립운동자금 마련과 연락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백산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백산 생가는 별도의 건물없이 한 건물 내에서 해결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주택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안희제 생가에 이어 의령이 또다른 인물인 광재우 장군의 생가로 발길을 돌렸다.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고 활동하여 홍의장군으로도 불렸던 광재우 장군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왕의 시정을 비판하는 논지로 뒤늦게 자리에서 물러나 초야에서 지내던 중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13일, 왜병이 침입하여 서울로 향하자 '나라를 지키는 일을 관군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4월 2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의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면서 왜란 극복에 중추

테마가 있는 여행

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005년 복원된 곽재우 장군 생가는 조선 초기 건축양식으로 안채와 사랑채, 별당, 문간채, 곳간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곽재우 생가 인근에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모으고 훈련시키기 위해 큰 복을 매달았던 수령 520년의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세간리 현고수'라 불리는 이 느티나무는 생가 옆에 자리한 수령 600년의 세간리 은행나무와 더불어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당당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다.

'의령' 출신의 3명의 인물을 통해 짧게나마 우리나라 근현대사 체험을 했던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의령조청한과에서 운영하는 한과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찹쌀유과 분야에서는 첫 명인으로 지정된 김현의 씨가 운영하는 의령조청한과는 다양한 한과체험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자굴산 자락이 병풍을 두른 듯 감싸고 있는 넓은 잔디밭에 140여종의 수목과 야생화가 조성되어 그 아름다운 풍경만으로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과체험에 앞서 의령조청한과에서 준비한 웰빙 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본격적으로 강정과 한과 만들기에 나섰다. 대표인 김현의 씨의 설명과 시범에 따라 하다보니 어스레 색깔도 고운 강정과 한과가 수북 쌓인다.

이번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함께하는 탈춤 강습. 넓은 잔디밭에서 한과 색깔만큼이나 고운 색색깔의 한삼을 팔에 낀 회원들이 북소리에 맞춰 신명나게 탈춤을 춘다.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 속에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 했던 의령 테마여행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오랜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4.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 곽재우 생가
5. 의령조청한과에서 가진 한과체험
6.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탈춤강습

12월에는 **합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11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11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신규가입자
김미성(서구 토성동)	강홍중(연제구 연산9동)
김은재(해운대구 재송동)	구용주(남구 용호동)
박태옥(남구 용호동)	김문성(수영구 남천1동)
이근희(해운대구 반여1동)	김영희(해운대구 좌2동)
이황경(해운대구 우동)	박상욱(동구 범일동)
장미정(금정구 구서동)	안영희(동래구 온천3동)
장양애(서구 서대신동3가)	오주연(동래구 안락1동)
정용수(사하구 하단2동)	유영빈(연제구 거제4동)
정혜숙(수영구 수영동)	이나리(남구 대연4동)
최지훈(양산시 물금읍)	이본우(해운대구 좌동)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Culture Life

- 36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6 NEW MUSIC
- 57 NEW BOOK
- 58 SPECIAL MOVI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이수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제484회 정기연주회. 11세의 나이로 2012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 콩쿠르에 참가해 주니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시완춘(施万春)/축일 서곡(节日序曲)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홀스트/행성 모음곡

- 지휘/리 신차오 · 바이올린/이수빈
- 수르나이/시하이빈(중국중앙음악원 교수), 왕잔잔(중국중앙민족악단 단원)
- 여성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우정출연/중국 칭다오 심포니오케스트라

2012 김복선 발레공연 - 해설이 있는 발레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김복선발레단(200-7823)



발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끝없는 대립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갈등과 회의를 표현한 김복선 안무 '군중속의 고독'를 비롯해 스페인 무용을 클래식발레 양식에 도입시

킨 '돈키호테', 포키이 안나 파블로바를 위해 특별히 안무한 빈사의 백조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4인무 Pas de Quatre(안무/Jules Perrot)
빈사의 백조(안무/Michail Fokine)
군중속의 고독, 오후의 그늘(안무/김복선) 등
· 출연/신세정, 권나현, 김희경, 이수정, 백가람, 이보라, 김환희, 박지희, 이소율, 이영화, 사공다정 외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정식(301-9701)

아마추어 남성 성악동호회 멜로매니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의사 바리톤 민정식 두 번째 독창회. 20여년간 꾸준히 성악 공부를 계속 해온 민정식은 멜로매니아 단장, 어울림 남성중창단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특별출연/멜로매니아, 어울림남성중창단, 부산낙동로터리클럽국악예술단, 윈드앙상블
- 찬조출연/테너 박광하, 소프라노 민하영
- 바이올린/김은정
- 사회/왕종근 · 피아노/곽윤희, 오란아

2012 김희은의 춤 'Abschaum'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김희은 댄스컴퍼니
(890-2513, 010-7770-5395)



창작 작품이다.

- 안무, 연출/김희은 · 기획/김은정
- 영상감독/김상화 · 특별출연/김정순
- 출연/윤석태, 최정화, 최준호, 이성희, 신상현, 서아롬 외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김희은 교수의 춤 'Abschaum'. 인간이기를 거부한 현대인의 비극적 모습을 여러 형태로 그려낸 'Abschaum'는 부조화된 사회성을 담아낸

테너 박인수 데뷔 50주년 기념음악회 박인수 & 음악친구들 '향수'

11월 4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청향회(010-2595-9249)



테너 박인수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청향회(회장/허충순)가 박인수 데뷔 50주년, 청향회 50주년을 기념해 들려주는 기념음악회 박인수 & 음악친구들 '향수'. 이동원과 함께 부른 '향수'로 1990년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테너 박인수와 제자들이 함께 노래한다.

프로그램

레하르/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못이루고' 등 수곡

출연

- 박인수, 양인준, 조현호, 윤상준, 왕승원, 김성준, 정익근, 신동원, 김성빈, 이성민, 박현재, 김성진, 전종옥
- 피아노/박성은

샌드애니메이션으로 풀어보는 전통춤 남선주의 춤 '십우도 춤추다'

11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남선주 무용단(011-9557-1929)



전통공연과 샌드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남선주의 전통춤 '십우도 춤추다'. 불교 선종화(禪宗畵) 십우도의 내력에서 춤의 본성이 나타나 있다고 해석하고 전통춤과의 연결을 통해 십우도를 재해석해본 작품이다.

프로그램

- 태평무, 검기무, 장고춤
- 해금병창 '고고천변', 산조춤, 승무, 살풀이춤
- 예술감독/남선주(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남선주 무용단 대표, 새얼춤회 대표)

- 연출/육승업(김천과학대학교 연기뮤지컬과 겸임교수)
- 대본/김대식(香道 연구가)
- 음악감독 및 해설/이성준(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대금 산조이수자, 태오름민족가무악 대표)

**초량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부산시민들을 위한 헨델의 메시아 대공연**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우리아트\(010-5555-3825\)](tel:010-5555-3825)



1892년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로 일제시대 애국지사들의 화합의 장소로, 항일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한 초량교회의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헨델의 메시아 대공연.

140명의 초량교회 연합찬양대, 40명의 관현악단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3부로 구성된 헨델 메시아 전곡 53곡 중 35곡을 들려준다.

- 지휘/전상철
- 솔리스트/소프라노 장은영, 알토 제화미, 테너 김지호, 베이스 유형광
- 오르간/구영혜 · 피아노/고지혜
- 연주/초량교회 연합찬양대, 초량교회 관현악단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정기연주회
2012 강태홍의 소리 '교학상장(敎學相長)'**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010-9392-8727)



1989년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지정된 신명숙 선생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무대로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교학상장'의 의미를 담은 훈훈한 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삼도농악(연주/우리소리예술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가야금/김세정 · 장구/구환석)
봉장취(편곡/박한규 · 가야금/김명수, 윤이나, 이은규, 박다운 · 장구/김형섭)
공타령의 멋(작곡/김계옥 · 25현가야금/장가람, 황혜원, 최혜지, 김소희, 정희경)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2중주(편곡/백대웅 · 가야금/김지영, 이선혜, 고윤이, 최경철, 박소영, 차다영 외)

김필분의 춤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필분\(010-9428-7143\)](tel:010-9428-7143)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무용을 전공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무용 전담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필분의 전통춤.

프로그램

- 고죽향, 태형무, 살풀이 춤, 산조춤, 장고춤, 태평무, 고죽향, 승무
- 특별출연/김진홍(동래한량무 예능보유자), 엄옥자(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 해설/김해성(부산여자대학 교수)

**제2회 최재호 대금 독주회
'음과 음색의 공감각화'**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재호\(011-704-4444\)](tel:011-704-444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최재호의 대금독주회.

이번 두 번째 독주회에서는 '음과 음색의 공감각화'라는 주제로 최재호 자신이 작곡한 3곡의 창작곡과 2곡의 위촉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최재호/노니로와 떠이어 담론(초연)

- 최재호/점, 직선, 곡선, 사인곡선(초연), 우기(초연)
- 김보현/농(弄)에 대한 각서 - 대금과 피리를 위한(초연)
- 박선영/History of Gaia(초연)

**MBC 제1139회 목요일음악회
바리톤 박대용 초청연주회**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박대용\(010-4213-8220\)](tel:010-4213-8220)



이태리 프란체스코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이태리 엔나국제성악콩쿠르 3위, 콜레페로국제성악콩쿠르 2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하고 오페라,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무대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박대용과 함께 하는 MBC 제1139회 목요일음악회.

프로그램

- 토스티/나는 죽고싶어, 안녕히, 꿈, 매혹,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마레끼아레
- 슈베르트/보리수, 세레나데
- 변훈/쥐 등 수곡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은수 · 반주/윤지영

김성혜 귀국 플룻 독주회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혜\(010-6265-0674\)](tel:010-6265-0674)



미국 Campbellsville University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플루티스트 김성혜의 귀국 독주회.

유학중 김성혜는 2009 The Macauley Chamber Music Young Artist Competition 1위, 2011 미국음악교사협회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Young Artist Competition 목관부분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마장조 BWV 1035

조르주 후에/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백경환(편곡)/거문도 뱃노래 등 수곡

· 피아노/박선민 · 특별연주/Bass-Baritone 정하해

제갈삼 교수 미수 기념

제18회 운아회 정기연주회

1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전 부산대학교 제갈삼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운아회의 제18회 정기연주회.

1998년, 1999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32곡)을 연주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운아회는 스승의 미수(88세)를 기념, 그동안 제

갈 선생이 작곡한 곡들과 부산트리오 멤버로서 트리오 연주, 제자들의 다양한 연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보헤미아의 숲에서 중

제갈삼/감상적인 환상곡, 피아노를 위한 비가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 해설/곽근수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부산공연

11월 10일-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2:00,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KnP(1599-8879)



뮤지컬 '김종욱 찾기(뮤지컬 어워드 작사, 극본상)', '오 당신이 잠든사이(한국 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 등을 히트시킨 장유정과 뮤지컬 음악의 대가 장소영 음악감독이 호흡을 맞춘 화제작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용감했다'는 제2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관객이 직접 뽑은 가장 인기있는 뮤지컬, 제3회 더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 작사/작곡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 프로듀서/이광호, 송승환

· 작, 작사, 연출/장유정 · 작곡, 음악감독/장소영

· 출연/김도현, 김재범, 성두섭, 신문성, 강지원, 임선애,

성열석, 최나래, 윤수미, 최영화, 박훈, 최영준 외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주)프로아트(02-585-2934)

유진 프라이코프, 이고르 시오르네이, 오비두 발란 등 유명한 지휘자들의 지도 아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루마니아의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956년 창단된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미국에서 열린 알타무라 뮤직 페스티벌 온 더 그린과 2001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초청받아 정교하면서도 웅장한 연주를 선사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쇼스타코비치/재즈모음곡 제2번 왈츠 등

· 지휘/스타니슬라프 우셰프(Stanislav Ushev)

제16회 새물결 춤 작가전

11월 12일 월요일, 14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

(632-5116, 010-8755-5284)



역량있는 부산지역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창작작품을 만나는 새물결 춤 작가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 춤꾼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 12일(월) 오후 7:30

'판' Company 'Kairos #3. 시간을 파는 상점'(안무/김수현 · 출연/김수현, 허종원, 홍성률)

그랑발레 '선택'(안무/최연순 · 출연/최연순, 김유진, 조은비)

Ganesh Project 'The Blind'(안무/이용진 · 출연/김초슬, 한지은, 이용진)

할 무용단 '부(父)/father'(안무/전승환 · 출연/이준희, 이나라, 윤형삼, 전승환)

■ 14일(수) 오후 7:30

안선희 현대무용단 'Haven'(안무/안선희 · 출연/박근영, 권아름, 안선희)

춤패 배김새 '달리... 아무도 없다'(안무/남지원 · 출연/남지원, 우진수, 박광호)

줄라이무용단 '꿀림'(안무/강용기 · 출연/김현정, 강용기, 허종원)

강경희 무용단 '담'(안무/강경희 · 출연/이연정, 윤채린, 강경희)

부산예술기획 창립 25주년 기념

나눔시리즈 36 '애창곡의 향연'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중고생 5천원

문의 | 부산예술기획(010-5590-4728)



1987년 좋은 연주자와 수준 높은 관객과의 만남을 목표로 창립된 부산예술기획의 창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부산예술기획은 만남 1 '나 폴리민요의 향연'을 시작으로 만남 100회 '축배의 노래' 무대를 연데 이어 행복한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나눔, 사랑나눔'를 캐치프레이즈로 새롭게 나눔시리즈 음악회를 기획, 그동안 35회의 무대를 열어왔다.

· 출연/소프라노 정성희, 유명숙, 이영은, 임혜정, 김정현, 테너 김한길, 정필윤, 조주환, 바리톤 강재권, 정성민 · 피아노/이현주, 문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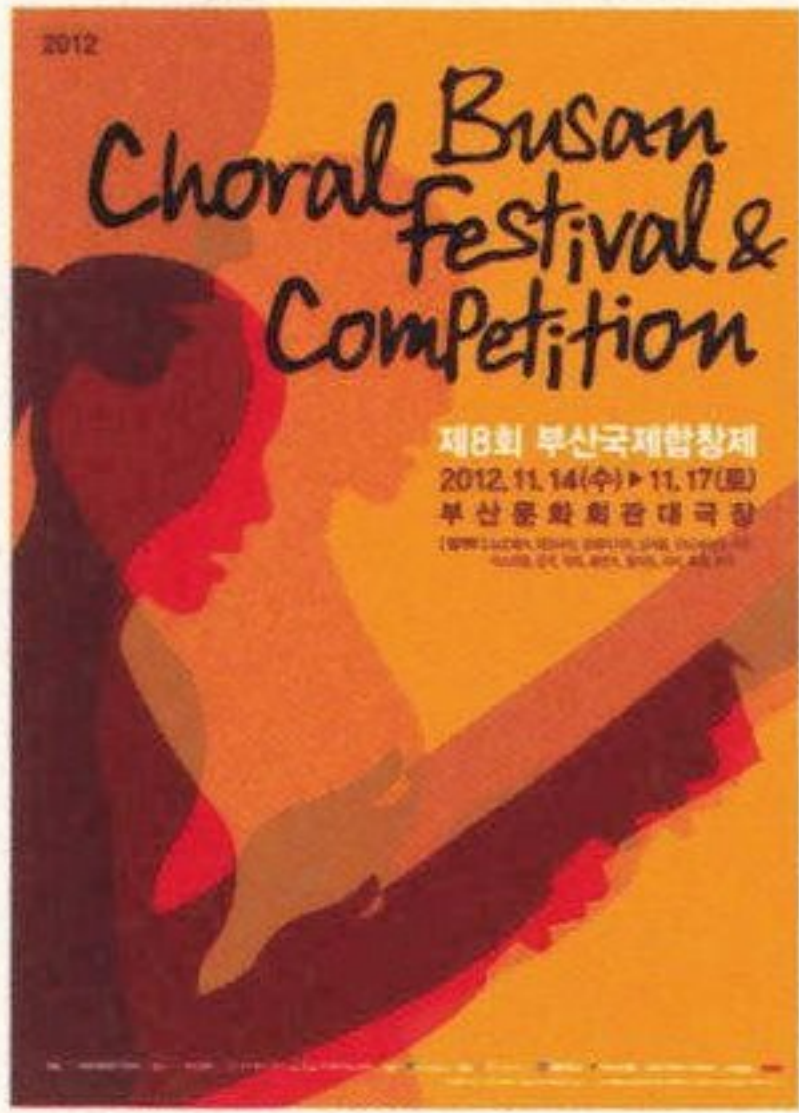
제8회 2012 부산국제합창제

11월 14일-17일 수-토요일 **대극장**

입장료 | 개막공연 VIP 5만원 · 일반 1만원

폐막공연 2천원(경연, 갈라공연 무료)

문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632-0176)



합창음악을 통해 인류와 소통하고, 세계 합창인들과 교류하는 부산국제합창제 2012년 축제.

올해는 14개국(노르웨이, 중국, 라트비아, 싱가포르, 이란, 폴란드 등) 28개팀(Cantus, Sichuan Bashu Chorus, Imusicapella, 인천시립합창단 등)이 참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2012 부산국제합창제는 인천시립합창단(지휘/윤학원)의 개막축하공연, 최고의 합창단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클래식 혼성, 클래식 동성, 민속음악, 대중음악 4개 분야의 경연 공연 등이 펼쳐진다.

■ **콘서트 프로그램**
 - 개막 콘서트 : 11. 14(수) 19:30
 - 갈라 콘서트 : 11. 15(목) 19:30
 - 시상식&수상팀 공연(폐막 콘서트) : 11. 17(토) 19:00

■ **경연 프로그램**
 - 클래식 혼성 : 11. 15(목) 13:00 대극장
 - 클래식 동성 : 11. 17(토) 10:00 대극장
 - 민속 음악 : 11. 16(금) 13:00 대극장
 - 대중 음악 : 11. 17(토) 14:00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2 웰빙콘서트시리즈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V '세비야의 이발사' Highlight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인 부산시립교향악단 2012 웰빙콘서트 시리즈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네 번째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오페라, 뮤지컬 전문 연출자 유철우의 연출로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하이라이트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오페라 · 뮤지컬 전문 연출자)
 · 소프라노/장은영 · 바리톤/김종화
 · 테너/조운환 · 바리톤/박기국

한얼정악연구소 제17회 정기공연 천년의 소리, 正歌 유네스코지정 세계인류무형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보유자 '김경배 · 조순자' 초청무대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얼정악연구소(622-4472)



세계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가곡 보유자 김경배, 조순자 선생과 함께 하는 한얼정악연구소의 제17회 정기공연. 김경배, 조순자 선생의 언락 '벽사창', 평롱 '북두칠성'을 시작으로 한얼정악연구소 정인경 소장의 가사, 꿈나무들의 정가 등으로 우리나라 전통 성악 가사, 가곡의 매력을 전한다.

프로그램
 남창가곡 언락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가곡/김경배)
 여창가곡 평롱 '북두칠성' (가곡/조순자)
 태평개소리/김경배, 조순자)
 정인경의 가사무대/백구사, 죽지사
 정가와 국악실내악을 위한 '길'
 꿈나무들의 정가무대/여창가곡 편수대엽 '모란은',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사 '매화가', 엮음 지름시조 '학 타고 저 불고' 등
 · 기획/정인경 · 대금/채수만
 · 한복/송이한복연구원
 · 특별출연/김정원(춤소리에술단 대표)
 · 출연/박수진(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자), 정유정, 송연순, 김민정, 정승경, 양채원, 백소희, 정수빈, 황시아, 정혜선, 배지현, 김희준 외

부산플루트앙상블 창단 20주년 특별연주회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992년 이하룡, 박찬엽, 장극태, 이상창, 조성철로 창단된 부산최초의 플루트 전문 실내악단 부산플루트앙상블의 창단 2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부산플루트앙상블은 2003년 일본 후쿠오카 플루트컨벤션 초청연주, 2006년 중국 북경음악청과 북경 중앙 TV 방송 초청연주, 수십 회의 방송 출연 및 해설음악회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플루트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

프로그램
 로시니/윌리엄텔 서곡 피날레
 이찬우/청산은 나를 보고
 비제/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 등 수곡 출연

이하룡(고문), 박찬엽(리더), 장극태(기획), 정옥경(총무), 김성은, 조진학, 강미경, 길명훈, 유주영, 이진향, 김하나, 장예지, 바이올린 조현미, 혼 백상홍, 박용인, 타악 이재복, 테너 장원상, 소프라노 신진범, 피아노 박미은

엘송과 함께 하는 4인 4색 피아노 독주 & 듀오의 밤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최지미(010-6426-0968)

동아대학교 음악학부 동문피아니스트 최지미, 김미정, 김아영, 이지언이 들려주는 4인 4색 피아노 독주 & 듀오의 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2번에 의한 D단조 '사콘느'
 볼콰/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덴의 정원' 중 제3곡 등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제34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선생님께 존경을!'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초대(초대권 지참, 좌석권 교환 후 선
 착순 입장)
 문 의 | BSO(621-4577 www.bso21.com)



지휘 오충근



오르간 펠릭스 헬

진지한 음악정신으로 청중들과 만나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34회 정기연주회로 '금세기의 위대한 연주자 중 한사람' (AGO회장, 프레드릭 스완 박사), '명성있는 노 연주자들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정도의 세계무대의 표준을 창조하는 연주자' ('미국 오르간 연주자' 마이클 바론) 등의 극찬을 받고 있는 펠릭스 헬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 옹엔/오르간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 콘체르탄테 생상스/교향곡 제3번 다단조, 작품 78 '오르간'
- 지휘/오충근
- 협연/오르가니스트 펠릭스 헬(필라델피아 게티스버그 선더만 콘서바토리 오르간 학과장)

김은희 클래스 연주회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은희(010-9269-5567)

이화여자대학교와 독일 에센 국립음대 피아노 전문연주자 과정,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피아노 최고 전문 연주자과정, 독일 마틴 루터 대학교 음악교육-피아노 교수법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은희의 클래스음악회.

- 연주/전세라(고신대4년), 김예슬, 김은민(고신대 3년), 이환희(경성대 3년), 서예은(경성대 2년), 김하경, 선희정, 이상화(고신대 2년), 김희진(경성대 1년), 방현주(고신대 1년), 정명후(부산예고 3년), 김지은(부산예고 2년), 천세은(대연중 2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1- 이한철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하늘아래 그 콘서트(이하 하그콘)'의 서른한번째 뮤지션 '이한철' 초청공연. 인디밴드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을 볼 기회가 드물었던 2009년 '부산에서도 이런 공연을 즐겨 보자'라는

취지로 출발한 하그콘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하그콘의 첫 번째 연주자로 열정의 무대를 열어준 이한철이 3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1993년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동상, 1994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이한철은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의 밴드, 프로젝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공연은 '두개의 방'이라는 부제로 밝고 어두운, 즐겁고 슬픈, 소박하고 화려한 이한철의 음악을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 제67회 정기공연 타악으로 펼쳐지는 춤의 향연 '부산판타지'

11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www.koreanfolkdance.com)

다양한 춤언어로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제67회 정기공연 타악으로 펼쳐지는 춤의 향연 '부산판타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우리 춤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깔끔하게 상징화 시켜 타악의 라이브 장단으로 펼치는 춤의 향연으로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살아있는 고요함과 역동성, 흥(興)과 한(恨) 등 우리민속 고유의 정서를 한국적 몸짓으로 표현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 대본, 연출/오정국
- 특별출연/이창규(창원시립무용단 상임단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월광(月光)'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3)



가야금 연주자,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 신영균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 김계옥의 옥류금 연주, 중국문화부 주최 제2

회 文華藝術政府獎-文華獎 민족기악콩쿠르 1위 수상자 최민, 국립창극단 단원 박애리 협연으로 편안하면서도 친근하고 때론 엄숙하고 장엄한 우리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프로그램

- 한태수/관현악 'Fly to the sky' (부산초연)
- 이경섭/관현악 'Paradise' (부산초연)
- 정동희/관현악 '월광'
- 박위철/옥류금 협주곡 '백도라지'
- 이은경/국악관현악 '해몽' (초연) 등 수곡
- 객원지휘/신영균(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김계옥(옥류금, 중앙대학교 교수), 최민(저대), 박애리(국악가요, 국립창극단 단원)

제2회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풍물예술봉사단 정기공연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32)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이수자들로 구성된 풍물예술봉사단의 제2회 정기공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지역 문화, 복지행사 등에서 흥겨운 가락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해온 풍물예술봉사단은 부산, 호치민시 자매결연 10주년 축하공연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 공연 등에 참가한 바 있다.

프로그램

- 김놀이(맞이놀이), 앉은반 설장구, 삼도설장구, 판굿 등

2012 T.I.F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T. I. F(010-3848-8995)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 T. I. F의 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2012년 무대. 2001년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윈드 오케스트라로 활동해온 T. I. F는 2010년 울산, 양산, 김해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Flashing Wind, The Legend of Celobrium
 아리랑, 독도랩소디, 그리운 금강산 등

2012 신라대학교 합창정기연주회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라대학교 음악학과(999-5265)

신라대학교 음악학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합창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로시니/미사 '아베마리아'
 흑인영가/Swing Low, Sweet Chariot
 이적/다행이다(학생편곡 출판곡) 등 수곡
 · 지휘/박광해(신라대학교 겸임교수)
 · 솔로/소프라노 김희진, 알토 김효경, 테너 김지현, 장용,
 베이스 전문길
 · 반주/이은화, 이소영 · 편곡/김우찬

Happy Music Concert(3rd Story)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디아트(070-7532-1117)



한혜자 이철성 허동권

약사 성악가 한혜자, 테너 이철성, 테너 허동권, 테너 장진규, 테너 양승엽, 바리톤 고영호의 아름답고 때로는 박력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는 해피뮤직콘서트 세 번째 이야기로 관객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내외 가곡, 대중적인 곡들로 추억과 사랑을 향수한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리사이틀 'Pianologue'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 의 | 공연예술 전위(582-2026)



박종화는 12세 때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에서 1위 수상을 비롯하여 1998년 루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산타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는 특별상과 청중상, 200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 상 수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입상(5위) 및 최우수 연주자 상,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는 표트르 안드리센이 수여하는 비평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프랑크프렐류드/코랄, 푸가
 라흐마니노프/피아노소나타 제2번, 악흥의 순간 작품 16

휴피리오카리나 제20회 정기연주회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휴피리(010-2947-9580)

물, 불, 바람의 3가지 자연의 요소로 이루어진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휴피리오카리나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삼림광상곡, 러브어페어, I Will Follow Him, 캉캉 등 수곡

기드온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윤진용(010-9613-0020)

1994년 창단된 이래 국내외 선교 후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기드온콰이어는 깊은 영혼의 음악과 남성만이 갖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청중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주님을 신뢰해, 주의 지팡이와, 나는 크리스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나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등 수곡
 · 지휘/연명희 · 반주/김예진

(사)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II 라보엠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 R석 3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
 (070-7727-0188, 010-3881-3753)



2011년 5월 부산, 경남지역 오케스트라 중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데 이어 2012년 9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은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의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무대 '라보엠'.

출연

테너 김지호(음악감독, 루돌프), 소프라노 김유진(미미), 소프라노 장은영(뮤제타), 바리톤 윤오건(마르첼로), 바리톤 김종표(쇼나르), 베이스 양종근(콜리네)

남구 문화회 음악회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남구문화회 회장 강학윤(010-9287-6350)

남구민들에게 문화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위해 남구 지역 음악인들이 마련하는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

프로그램

박판길/산노을
 칠레아/페데리코의 탄식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타레가/알함브라궁전의 추억 등 수곡
출연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강학윤, 김정민, 플루티스트 김선영,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 피아니스트 이용란, 손혜진

테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그리움'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오동주(010-4556-5058)



깊어가는 가을 밤의 정취를 더하며 가을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주는 오동주의 열세번째 독창회.
테너 오동주가 속해있는 '남성성악양상블 4+1',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B-STAR), 성신여자대학교 전임교수 소프라노 오미선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그리움에 대한 3가지 색깔/그리움,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아름다운 그대 모습
그리움에 대한 2가지 이야기/내 영혼 바람 되어,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등 수곡

제2회 한국청소년 합창축제 (사)송인문화재단과 노엘합창단의 '2012 우리 반이 최고의 합창단'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송인문화재단(010-8496-0691)

지난해 노엘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4개의 고교합창단, 선명회합창단과 함께 제1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를 연데 이어 올해는 축제의 형식을 바꾸어 부산지역학교 학급 합창단 중, 최고의 합창반을 뽑는 합창축제를 펼친다.

참가학급

금곡중 1-4, 금정중 1-8, 거제여중 1-4, 덕포여중 1-2, 부곡여중 3-9, 부곡중 2-5, 용문중 3-8, 장산중 1-5, 해연중 1-4, 부산동여고 1-9, 부산서여고 2-2, 주례여고 2-3, 동삼중 3-2, 운송중 1-2, 브니엘여고 2-4
· 특별출연/부산교사합창단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사익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11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큰 위안을 주는 장사익의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45세의 나이에 데뷔한 늦깎이 뮤지션 장사익은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 한 서린 절창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면서 청중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진정한 소리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짙레꽃, 꽃구경, 여행 등 그동안 불러왔던 노래들과 7집에 수록된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차는 간다는 등의 노래와 함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를 노래하며 주옥같은 옛 가요들을 장사익 특유의 구성진 가락을 들려준다.

제16회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320-8332)
단장 이복희(010-8523-2306)

1993년 음악을 통해 건강한 삶의 길을 공유하고, 합창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단된 미루샘합창단은 2009년 부산·후쿠오카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후쿠오카 오노조 마도카피아회관 대극장에서 후쿠오카 여성연합합창단과 함께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 교류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그린 슬리브스, 꿈길에서, 금발의 제니, 애! 목동아, 생명의 양식, Amazing Grace 등 수곡
· 찬조출연/바리톤 박대용
· 찬조출연/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기타연주예술봉사단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 리사이틀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다니엘 전(010-4057-8278)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통해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음악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의 부산연주회.

다니엘 전은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 콩쿠르 2위, 한국음

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2위, 이태리 리게티 국제 콩쿠르 1위, 이태리 알베르토 쿠르치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프렐류드 슈만/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 작품105 사라사테/카르멘 판타지 등
· 피아노/박진우(하노버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재학중)

제8회 둘로스남성중창단 발표회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손상기(010-3872-5661)

2000년 부암제일교회의 순수찬양봉사단으로 출발한 둘로스남성중창단은 교회 특별 초청 연주회,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등에서 노래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프로그램

언젠가요, 복있는 사람은, 너의 등불 밝히려, 주와 같이 걷는 것, 내가 만일, 꽃파는 아가씨 등 수곡
· 지휘/우원석 · 반주/윤선혜
· 특별출연/창원예술여성중창단, 모퉁이돌여성중창단



하연화무용단



부산시립교향악단 G클라넷



일파가야금합주단



줄라이댄스시어터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1월 3일 하연화무용단 공연

프로그램

태평무(춤/하연화)

화려하지 않고 은근한 향기를 뿜어내는 단아함과 정갈함에서 오는 춤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산조춤(춤/강미선, 송선숙, 송임숙)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1894-1957)이 자신의 가야금 산조가락에 춤을 엮어 춤을 성립시킨 것으로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춤사위를 풀어간다.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춤/하연화)

교방청에서 전승된 춤으로 차분하면서도 은은하며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무태로서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소고춤(춤/최우정, 김지선, 양한나)

농악에서 벅구놀이 형태의 민속무용으로 오랜 역사 속에 전해 내려왔으며 마당에서 노는 축제적 성격을 띠어 멋과 흥이 어우러져 장단을 친다.

춤바라춤/엄효빈, 박민내, 서수정, 김민지, 장서윤)

바라는 '힘'이란 말로서 바라의 소리로 모든 악기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기원 양식의 춤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춤/하연화)

한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쁨이 있는 인간의 이중 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한 살풀이춤은 살풀이라는 독특한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 해설/홍순연

11월 1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콰르텟-G' 연주회

프로그램

베를리오즈/환상교향곡 작품 14 중 제2악장 '무도회'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2번 나단조 작품 1067 중 제7곡 '바디네리'

헨델/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작품 351 중 제4곡 '환희'
코렐리/바이올린 소나타 라단조 작품5-7 중 제2악장 '코렌테'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1043

맥린/탱고-세레나타

· 연주/Violin, 박언정 Violin, 신민정 Viola, 손주연 Cello, 전지윤

11월 24일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회

프로그램

3대의 25현 가야금을 위한 중주곡 '리틀스토리'

(타악/윤승환 · 25현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하주현, 김명선, 김지우)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화 '침밀밀' OST

(가야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김지우, 김경현)

백도라지(황금산, 6중주)

(가야금/장경미, 하주현, 김명선, 채미경, 김소라, 김미나)

비틀즈 모음곡 'Hey Jude, Let it be, Ob-la-de Ob-la-da' (타악/윤승환 · 가야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하주현, 김지우)

25현가야금 5중주 하바나길라(타악/윤승환 · 가야금/최수정, 김명선, 채미경, 김지우, 김경현)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타악/윤승환 · 가야금/장경미, 박은영, 최수정, 김명선, 김소라)

12월 1일 줄라이 댄스 시어터 공연

프로그램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1

(공동안무/김현정, 강용기 · 출연/김현정 강용기)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2

안무/구은혜 · 출연/김태훈, 김종민, 구은혜)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 3

안무/박재현 · 출연/최우석, 박재현)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4

(안무/손영일 · 출연/신보라, 이유미, 손영일)

녕마주의 그대들은 Part5

(안무/남대우 · 출연/강용기, 구은혜, 남대우)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2012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청배(淸拜)'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풍류전통예술원(010-2781-3888)



1999년 3월 창단 후 동해안별신굿의 무속음악과 경상도 지역의 토속적인 풍물의 원형과 맛을 구현해오고 있는 풍류전통예술원의 2012년 정기공연. 부정굿을 시작으로 동해안별신굿의 타법을 이용한 팽과 리 연주곡 '자브라깅', 골메기굿의 양식을 엮은반 형식으로 만든 '청배', 무속 사물놀이, 판굿 등을 들려준다.

3人 Piano Recital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임유정(010-5696-6535)



임유정 정지영 손영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임유정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정지영, 손영주가 함께하는 3인 피아노 리사이틀.

프로그램

- 브람스/4개의 발라드 작품 10
- 베토벤/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슈베르트 3대 연가곡 전곡 연주회 III '백조의 노래'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 전곡 무대로 마련되는 기획공연 세 번째 무대 '백조의 노래'.
 · 테너/조윤환 · 피아노/노만 셔틀러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영화음악 OST 음악회'

11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2007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함께해 온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가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클래식 곡 및 영화 OST를 들려준다.

· 지휘/임준오
 · 협연/소프라노 정혜리, 테너 장진규, 오보이스트 강인호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1일 가을밤과 어울리는 성경현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10여차례 독주회를 비롯 체코 프라하교향악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심포니와의 협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성경현 독주회.

▶8일 여주현 바이올린 독주회

미국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김해심포니에타 수석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여주현 독주회.

▶15일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는

히엘 싱어즈의 코러스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여성 선교중창단 히엘 싱어즈는 2009년 12월 창단 이후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악을 통한 따뜻한 사랑을 전해오고 있다.

· 출연/소프라노 김하늬, 김희정, 손시내, 신혜은
 · 피아노/하영화

▶22일 피아니스트 김지현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미국 이스트만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7차례 독주회와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지현이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29일 하지림 재즈피아노 콘서트

부산대학교와 미국 뉴욕 Five Towns College(석사)를 졸업하고 재즈밴드 'Pop & Jazz Big Band'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하지림 재즈피아노 콘서트.

정경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정경아(010-3590-0474)



동아대학교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아우구스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그동안 세련되고 풍부한 음악적 감성을 지닌 연주자로 평가받아온 피아니스트 정경아 귀국독주회.

을숙도 금요 해피콘서트

I'm your B-STA(R)

11월 2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2011년 6월 창단한 부산시공무원합창단 'B-STA(R)'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가곡과 가요, 애니메이션 메들리를 들려주는 금요 해피콘서트 11월 무대.

· 지휘/오동주 · 피아노/이승윤

이유태 교수의 '히히락락' 독창회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금융경영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다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김경출의 지원으로 성악공부를 시작한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의 첫번째 독창회.

- 피아노/김경출
- 특별출연/정안선(피아노),

이라희(바이올린), 이옥희(첼로)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3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취타풍류, 삼고무, 동부민요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 부채춤, 판국

10일 프로그램

해령,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육자배기, 흥타령', 승무, 가곡 '언락, 우락', 동래한량춤, 삼도설장구가락

17일 프로그램

수제천, 통영교방진춤, 서도민요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무고, 가곡 '태평가', 강강술래, 사물놀이

24일 프로그램

창작모듬북 '난타', 창작 '화화(和花)', 창작판소리, 창작 무용 '부(釜)의 신명', 창작 '부산아라' 중 '흥련의 노래 +사랑의 춤', 창작국악관현악 '신모듬' 3악장(박범훈곡), 창작무용 '풍장놀이'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내한공연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 내한공연.

하이든의 고향 아이젠슈타트에서 온 세계 정상의 앙상블 '하이든 피아노 트리오'는 1992년 결성 후 아이젠슈타트시의 음악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제1회 가족음악회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 (010-3002-0543)



CTS부산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마련하는 첫 번째 가족 음악회.

· 지휘/나준영

부산정가회 10주년 기념연주회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문금자(010-5559-6119)



가곡, 가사, 시조 등 정가를 공부하는 비전문인 예술단체인 부산정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환교수로 있었던 미따 노리아기가 이끄는 일본 미즈호아악회

연주단을 초청, 일본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 특별출연/일본 미즈호아악회, 연지초등학교 정가단, 한국소년소녀정가단

플루티스트 김인호의 여덟 번째 이야기 '힐링'

11월 4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프레멘토(017-554-7777)

지난해 2월 플루티스트 김인호를 중심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기 결성된 프레멘토 장학회가 후원학생의 뇌종양 수술비 마련을 위해 마련하는 사랑의 무대.

이날 공연의 후원금과 수익금 전액은 수술비로 쓰여진다.

프로그램

하이든/런던트리오 제1~3번

다마스/Sonate en concerto 등

· 연주/김인호, 이주연(플루트), 이연정(피아노), 정인주(바순)

www.wendl-lung.co.kr

The early years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2012 이상근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진주시립국악관현악 특별연주회

11월 4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상근국제음악제 사무국(010-4594-5255)



진주가 배출한 작곡가 故 이상근 선생의 주활동 무대였던 부산에서 열리는 2012 이상근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부산과 진주에서 활동하는 지휘자 홍희철이 이끄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정동희/국악관현악 '동살' (부산초연)
강봉천/가야금협주곡 '절영의 전설'
이상근/예술가곡(부산초연) 등 수곡
· 지휘/홍희철(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김남순(가야금), 유형광(베이스), 이꽃별(해금)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트리오로 출발,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독일문화원 초청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비르투오조 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현악4중주 제1번
도흐나니/피아노5중주 제1번 다단조
· 연주/백재진, 김도경(바이올린), 김은진(비올라), 정준수(첼로), 한영란(피아노)

테너 김기형 귀국 독창회

11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기형(010-6313-5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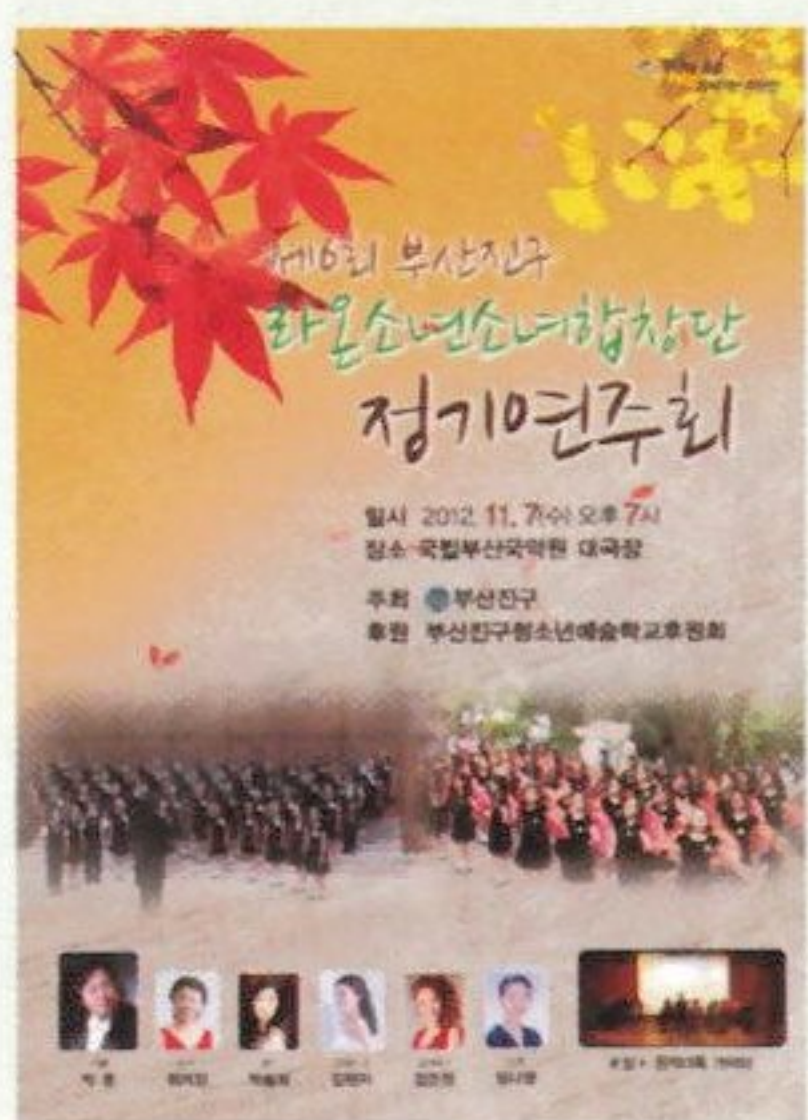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시립음대와 함부르크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쾰른음대에서 수학하며 음악적 열정을 키워온 테너 김기형 귀국 독창회.

김기형은 유학기간 중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중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성량의 소유자'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 피아노/이소영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진구청(605-4631)



2007년 3월, 중학생 80여명으로 창단된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빈소년합창단, 생마르크합창단과의 협연무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박훈 · 특별출연/음악대륙 가이아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7일 벨리씨미와 함께하는 가을, 행복 더하기

신라대학교 성악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벨리씨미가 모차르트의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소프라노 신진범, 이은미, 박수정, 이윤순,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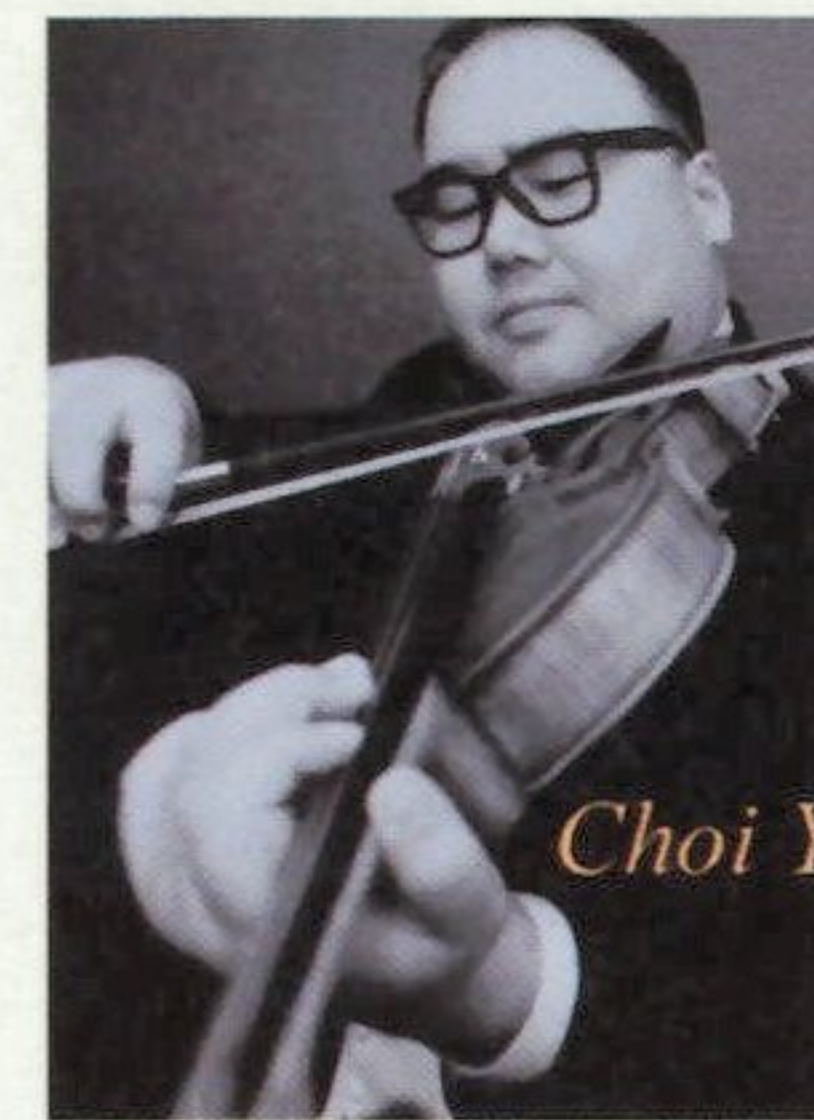
▶14일 합창으로 연주하는 애창 한국가곡의 향연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김성규와 부산콘서트과 이어가 들려주는 애창 한국가곡의 향연.

▶21일 제7회 한울 연주회 'Melody in Fantasy'

피아니스트 객수현, 민소연, 김은주, 박필은, 김진희로 구성된 한울의 7번째 연주회.

▶28일 최영식 비올라 리사이틀



한양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챔버오케스트라 수석, 뮤즈앙상블 단원, 용스트링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식 독주회.

· 피아노/이진성
· 해설/박은아

을숙도 명품콘서트

가을... 낭만에 빠지다 '슈베르트vs멘델스존'

11월 8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국내외 우수연주자들의 협연 및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을 들려주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11월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의 협연으로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한 곡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슈베르트 교향곡 제3번, 김민철 창작곡 'Blitz II'를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

제11회 한울소리 정기공연

행복 강에 띄울 풍물 배

11월 9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한울소리(010-8521-9225, 909-7902)

2001년 10월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축하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풍물패 한울소리 정기공연.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11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예술기획(010-4909-7444)



고신대학교 음악과와 체코 Opava 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 이태리 ARAM 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임혜정 독창회.

- 피아노/문상인
- 찬조출연/테너 조윤환

토요해피콘서트

11월 10일, 24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만나는 토요해피콘서트.

- 10일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클래식 음악여행
- 24일 드림챔버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축제

안준희 피아노 독주회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안준희(010-8559-8356)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음악원, 말메종 국립음악원,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안정되고 감각있는 피아니스트로 호평 받아온 피아니스트 안준희

독주회.

프로그램

- 투리나/지타나스 댄스 작품 84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작품 109
- 쇼팽/피아노 소나타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3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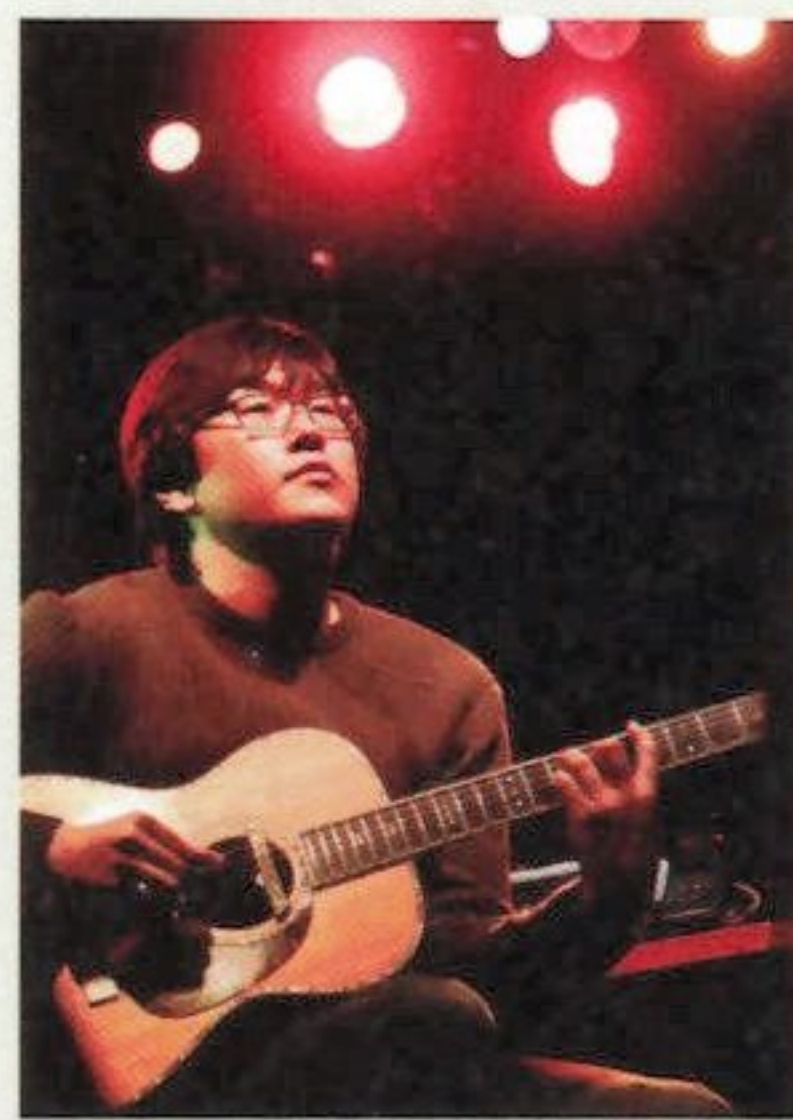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장일범의 '영화 속의 아리아' 콘서트**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KBS FM라디오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인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영화 속 명곡들을 들려주는 '영화 속의 아리아' 콘서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의 '힐링콘서트'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세계적인 핑거스타일 음악인의 축제 '2011 YOKOHAMA Finger Picking Day' 본선 진출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이 들려주는 '힐링 콘서트'.

김종걸은 울산시립합창단, 하타슈시 부산공연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제3회 슈테츠 정기연주회
 이은재&김소연 피아노 듀오 콘서트**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렉스(757-7570)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를 역임하고 현재 요하네스
 브람스 뮤직아카데미 원장
 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은
 재와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를 수석 졸업하고 다수 무대
 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소연
 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네 손의 피아노를 위한 세곡의 군대행진곡
 브람스/네 손의 피아노를 위한 헝가리 춤곡 등

**베토벤 기획연주 시리즈
 피아노, 현을 만나다**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권준(010-8717-7963)

피아니스트 권준,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정
 준수가 마련하는 베토벤 기획연주 시리즈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라장조 작품 12, 첼로 소
 나타 제4번 다장조 작품 102, 피아노 트리오 제
 7번 내림나장조 작품 97 '대공'

**2012 목요 미니콘서트 플림
 드니 성호의 미니콘서트**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유럽콘서트홀협회 선정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은 세계적인 클래식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목요 미니콘서트 끝림 11월 무대.

프로그램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

스의 사계 중 '여름'
드니 성호/Morning Due
바흐/파르티타 제2번 등

신라대학교 관현악 졸업연주회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윤지현(010-7662-2315)

졸업을 앞둔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패 기념치는 무대.

· 연주/윤지현, 장은혜, 예미현(이상 바이올린), 추민주(첼로), 손원주, 배설화, 김선훈, 주예라(이상 플루트) 외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류성식(010-4567-1582)



부산지역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교과서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조익래

· 객원출연/조위현(해금), 박은정(가야금), 신아진(거문고), 진민진(아쟁), 손성민(노래)

· 특별출연/대구교사국악관현악단(지휘/배해근)

토요스쿨데이 콘서트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토요스쿨데이 콘서트.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겨울'

하이든/교향곡 제26번 '라멘타치오네' 등

· 연주/뉴프라임오케스트라

2012 철학과 예술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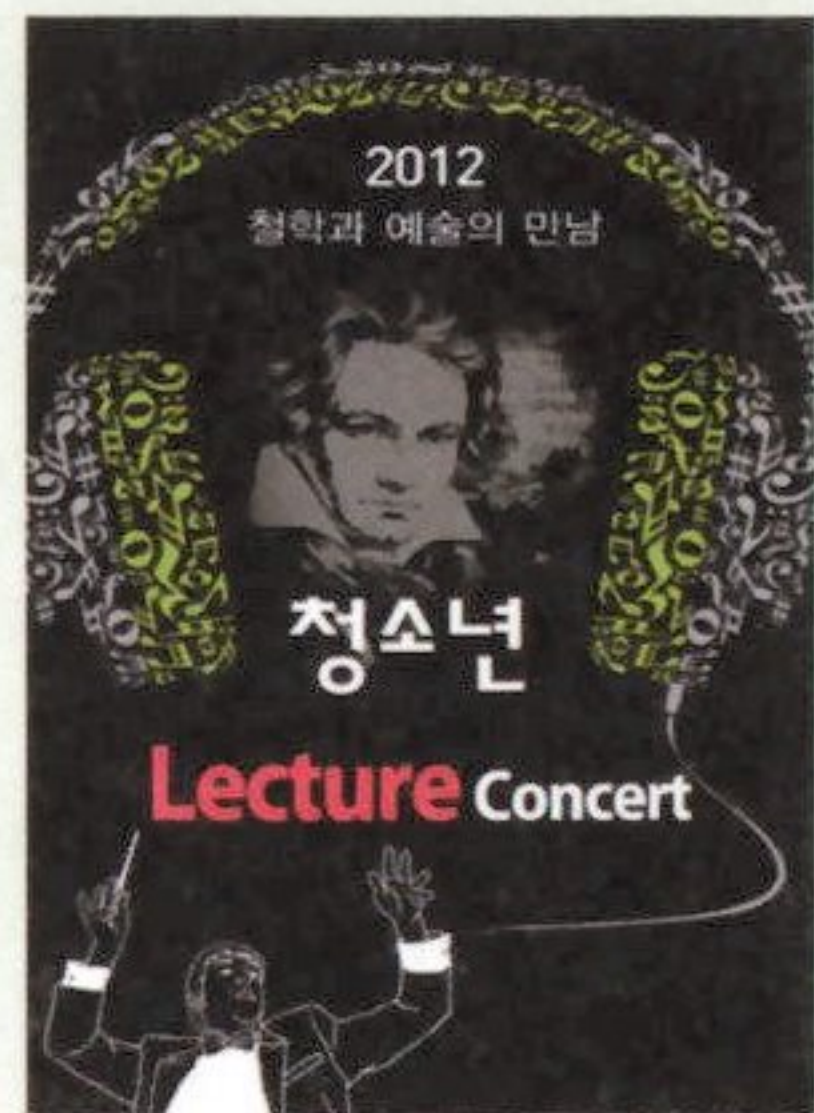
청소년 렉처콘서트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유명 클래식 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주는 청소년 렉처콘서트.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된 2012년 마지막 무대로, 지휘자 박성완 부산대학교 교수가 지휘하는 T.I.F 심포

니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이 교향곡 제9번 '합창'을 들려준다.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협연/소프라노 서활란,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전병호, 베이스 크리스토퍼 템포렐리

울속도 창작음악제

11월 19일-21일 월-수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2)

부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모임인 작곡모임 잉태(19일), 부산전자음악협회(20일), 향천회(21일)가 함께하는 울속도 창작음악제.

테너 임성규 귀국독창회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예원엔기획(817-0224)



동아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잘츠부르크 시립오페라극장 단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테너 임성규 귀국 독창회.

임성규는 독일 레베쿠젠 대극장,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시립극장 등에서 모차르트 전문가수로 활동했다.

· 찬조출연/소프라노 양근화

· 피아노/박소미

제10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신인음악회

11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길명훈(010-9250-3348)

손명균 지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신인연주자를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신인음악회.

· 지휘/손명균(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김민경(피아노), 임정민(피아노), 이가희(피아노), 안소영(소프라노), 박한결(플루트) 외

청소년을 위한 행복나눔 문화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연주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부산 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우리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두실초등학교 수피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고은주(011-9317-2625)



2011년 두실초등학교 재학생 53명으로 창단된 두실초등학교 수피아 관현악단의 창단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두실초등학교 중창단, 어머니 합창단, 두실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함께 한다.
· 지휘/황남용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의 '四季'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참여후원비 1만원(사전예약 필수)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연세대학교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과 앙상블 아모르 리더인 김창균(바이올린),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수석 유라미

(바이올린), 광명심포니 수석 오혜수(비올라), 연세신포니에타 수석 박혜준(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정찬학(콘트라베이스), 박지영(첼발로)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실내악 앙상블 무대.

제2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제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7개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해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2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제.
· 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동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제59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제7회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정기연주회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학생(2층) 1만원
문의 | 흥정표(508-0459, 010-2962-0459)

2003년 브릴란떼 솔리스트 앙상블로 첫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오페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정기연주회.



부산악기서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20명의 남성합창단과 남녀 솔리스트 14명, 30인조 챔버 오케스트라가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 지휘/양승엽 · 피아노/안준희

iTrio-정성흡, 양욱진의 친구들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첼리스트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iTrio와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그들의 음악친구들과 펼치는 실내악 무대.

· 연주/한수진, 이리나, 이기종(바이올린), 임정은(비올라), 양욱진(첼로), 정성흡(피아노)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23회 정기연주회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화순(010-7235-7572)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리코더 연수, 청소년 리코더합주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정기연주회.
 · 찬조출연/용산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

독일가곡연구회 제41회 정기연주회 캔버스에 묻어나는 독일향기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우원석(010-3120-4116)



1987년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들로 창단된 후 독일가곡의 연구와 보급에 힘써온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중 '홍수'
 스트라우스/헌정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김현숙, 정서영, 김현주, 장은영, 테너 이은민, 김현식, 김지호,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김일석, 피아니스트 박미은, 김성희, 이화영선, 객원희, 임효진, 임소영, 홍성택(클라리넷, 특별출연)

목요국악콘서트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소리'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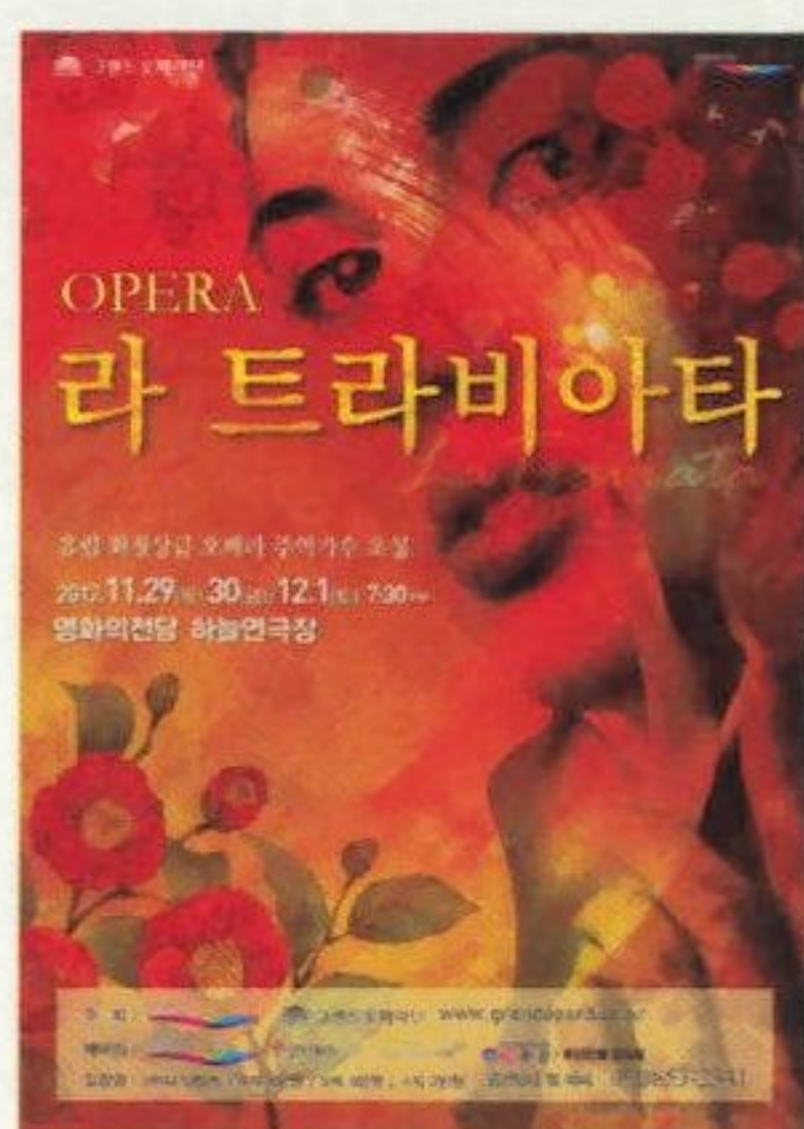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프로그램

동해바다, 가시버시 사랑, 다랑쉬, 캐럴, 너영나영, 소나무

유럽 최정상급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1월 29일-12월 1일 목-토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 R석 8만원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그랜드오페라단(853-2341)



유럽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디에고 크로베티와 유럽 오페라계의 샛별 소피 고르델라쎄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총예술감독/안지환
 · 연출/안주은

- 지휘/디에고 크로베티
- 오케스트라/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
- 합창/드림오페라합창단
- 출연/소피 고르델라쎄, 박현정, 허동권, 이창룡, 박대용 외

Play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6월 26일(화) -12월 3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연극 '4가지 사랑이야기'

10월 19일(금)-1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미니티켓(1600-1716)



애인과의 이별로 자살을 시도한 여자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저승사자와 함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코믹극.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진솔하고 소박한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뮤지컬 '잇츠유'

9월 7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네 남녀의 사랑과 꿈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속에 펼쳐지는 감성뮤지컬.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9월 13일(목)-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새로운 정신병 기준 재정립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 천재박사 김희진과 그의 조수가 펼치는 요절복통 헤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유리동물원'

10월 10일(수)-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

(611-8518, cafe.daum.net/say012)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중하층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 '유리동물원'.

· 작/ 테너시 윌리엄스

· 연출/김만중

· 출연/김미경, 전채희, 이준, 홍연택

연극 '짬뽕'

10월 12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황당한 설정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소시민들의 삶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연극 '짬뽕'.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제19회 정기공연

동희호태

10월 16일(화)-11월 3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월요일 휴관) 일터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예매시 25% 할인)

문의 | 일터소극장(635-5370)



아빠의 뒤를 이어 돼지를 키우고 싶은 호태와 싱어송라이터가 꿈인 동희, 하룻밤 옥상에서 펼쳐지는 두 주인공의 꿈으로의 여행을 그린 창작극 '동희호태'.

· 작/반민순

· 연출/김선관

가마골소극장 폐관공연 시리즈 1

홀연했던 사나이

10월 18일(목)-1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프리뷰 11/2일까지는 균일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마골 소극장이 거제동 시대를 마감하며 갖는 폐관공연 첫번째 무대.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홀연히 나타난 사나이의 등장으로 영화 속 주인공을 꿈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을 그린 유쾌한 연극 '홀연했던 사나이'를 선보인다.

· 작/오세혁 · 연출/이윤주

· 출연/황인택, 박혜린, 홍민수, 민혜림, 오동석, 이민아 외

감성연극 '새끼손가락'

10월 26일(금)-11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웹툰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착하게 살아보려 몸부림 쳐봐도 지독한 현실에서 벗



어날 수 없는 주인공 용호의 현실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새끼손가락'.

· 작/이익수

· 각색/김나정

· 연출/박윤호

· 출연/최대철, 박명훈 외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뮤지컬 '루나틱' 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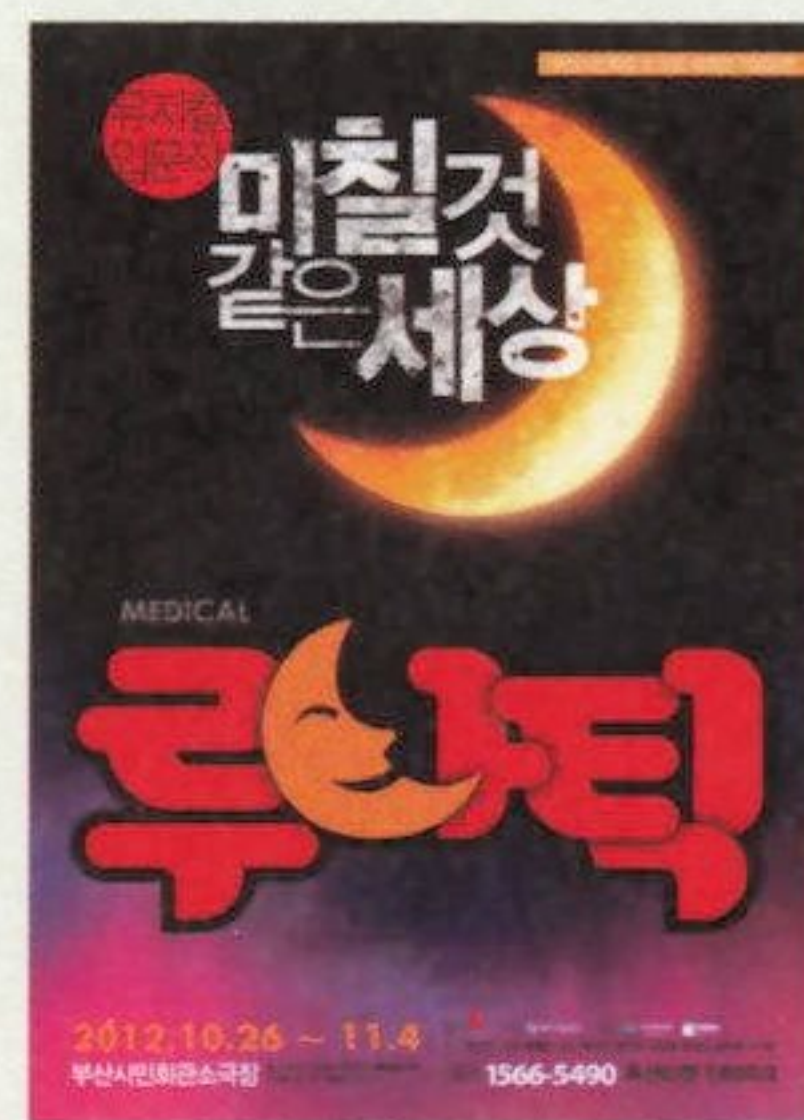
10월 26일(금)-11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수, 금요일 오후 3:00 공연 추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4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정신병원 의사인 굿 닥터와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고 노래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풀어내는 창작뮤지컬 '루나틱'.

· 작, 연출/백재현

· 출연/백재현, 정재민, 김동현, 김혜연, 김추리, 이기형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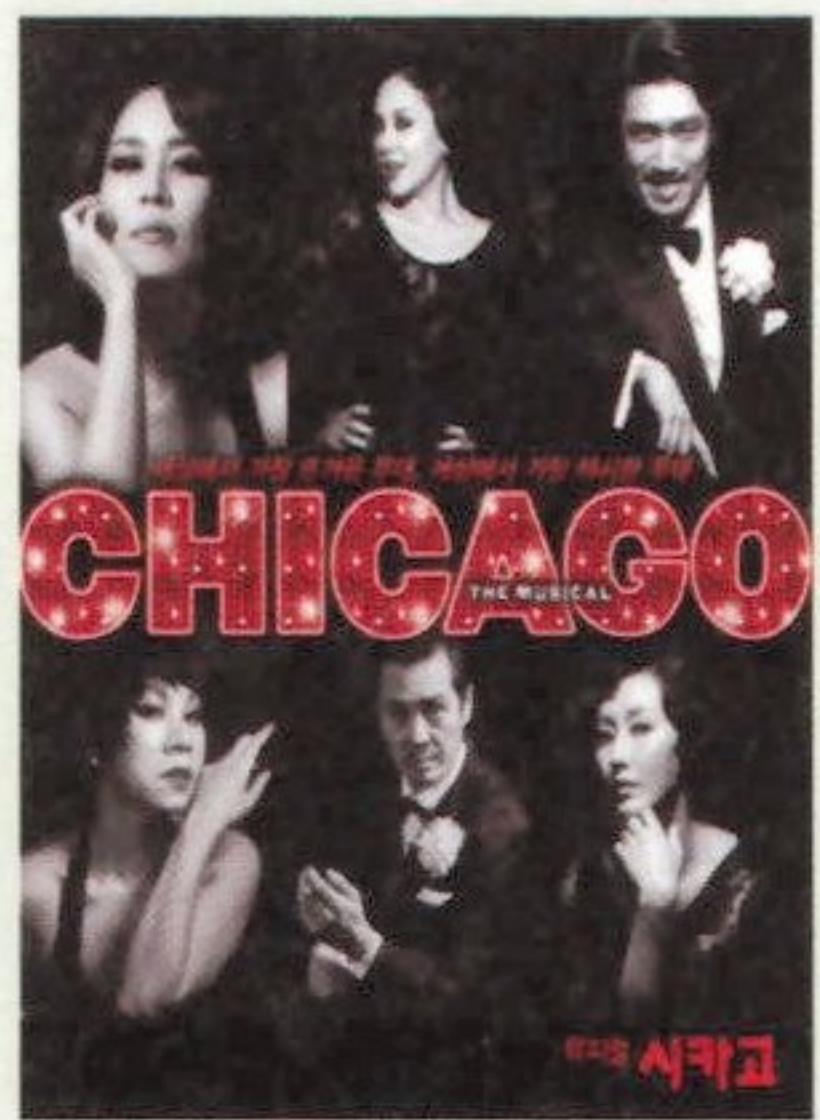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뮤지컬 '시카고'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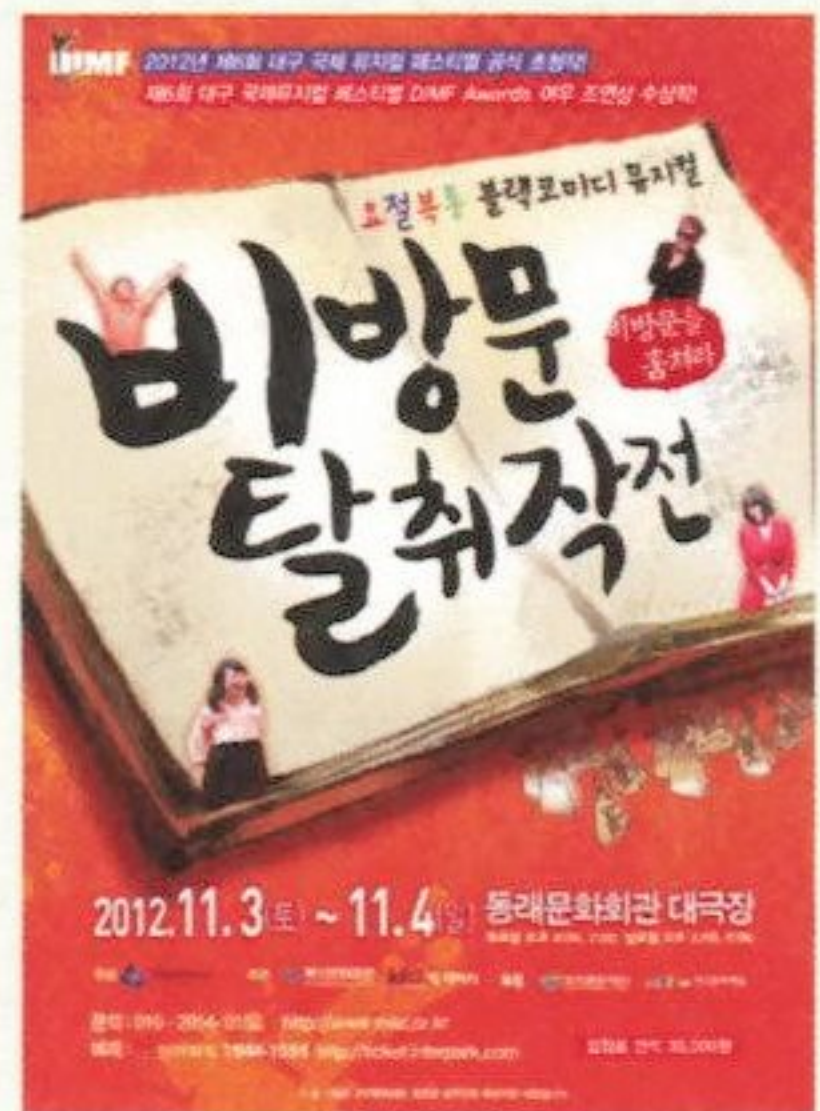
11월 2일(금)-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1920년대 시카고를 배경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됐지만 인기와 명성을 놓지 못하는 두 여죄수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의 이야기가 매혹적인 재즈선율과 관능적인 안무 속에 펼쳐지는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창작뮤지컬 '비방문 탈취작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MAC Theatre(010-2054-0152)



약전골목을 배경으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비방문 탈취작전'. 판소리에서부터 퓨전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형식과 흥겨운 안무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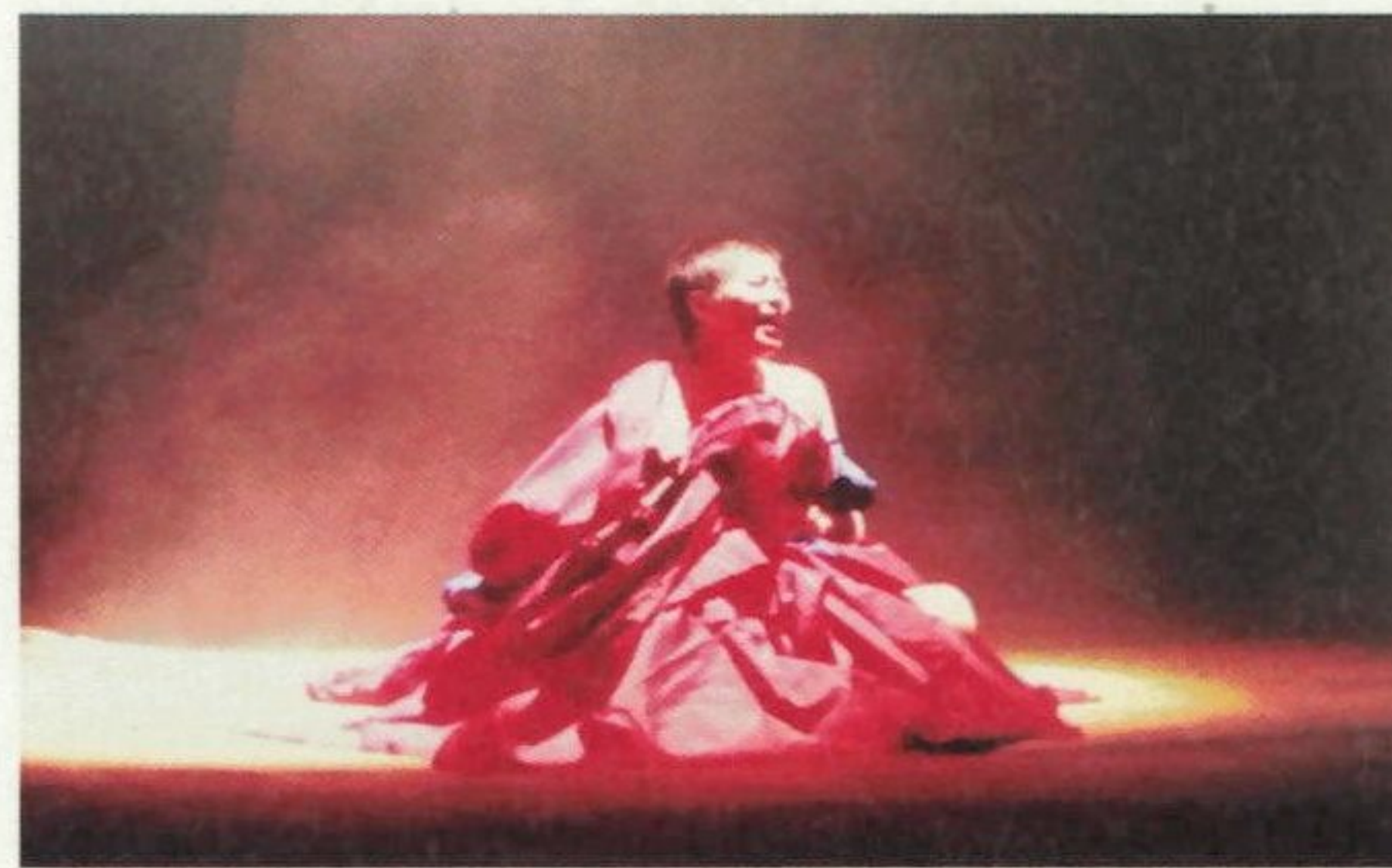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11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 S석 5만 5천원
문의 | 편애플레이엔터테인먼트(1566-2892)

파격적이고 스타일리쉬한 비주얼과 심장을 멎게 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락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뮤지컬에서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중인 배우 오만석과 박건형이 주인공 역을 맡아 저마다 다른 색깔의 헤드윅을 보여준다.

극단 하늘개인날 '느낌, 극락같은'

11월 6일-7일 화-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의 | 광종필(010-9495-4730)



불상제작에 있어 형태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착하는 동연과 형태는 무의미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믿는 서연을 통해 과연 참된 인생이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연극 '느낌, 극락같은'.

· 작/이강백 · 연출/광종필
· 출연/이정허, 박찬영, 황창기, 우명희, 허경진

연극 '춘향 YO'

11월 7일(수)-12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춘향이 못생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에서 출발해 '춘향전'이라는 익숙한 내용과 소재를 비틀어 오늘날의 외모지상주의를 유쾌하게 꼬집어보는 창작극 '춘향 YO'.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2012 아트드림 지역아동극축제 성시어터라인 '여우야 뭐하니?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11월 9일-10일 금-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11일 일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02-745-5864)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놀이문화에 감성적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뮤지컬로, 2001년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최고인기상, 극본상, 연기상을 수상했다.

· 작, 연출/김성제
· 출연/김태경, 조민희, 최기룡, 조소영, 정화영, 최경식 외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11월 9일 금요일 오후 8:00, 1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2일 일요일 오후 3: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5만원
문의 | (주)문화CONG(1688-8998)



19세기 영국 런던 최고의 가문 앤더슨 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실종, 살인 사건을 소재로, 탄탄한 구성과 스토리, 배우들의 호연으로 호평 받은 뮤지컬 '셜록홈즈'.

· 출연/송용진, 김도현, 구민진, 방진의, 선우 외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마지막 한탕을 위해 '그분'의 미술관에 잠입한 어리숙한 두 늙은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현시대를 익살과 해학으로 풀어낸 시사코미극.

· 작/이상우
· 연출/민복기
· 출연/김승욱, 송재룡, 민성욱

극단 맥 창작뮤지컬 '알개시대'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1:00, 13일 화요일
오후 8:00, 14일-16일 수-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1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전 9:30, 11: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010-5232-1350)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통해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는 창작뮤지컬 '알개시대'.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조영미, 허정현, 강숙하, 배문수, 박석재 외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1월 13일(화)-22일(목)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단 11/22일 오후 7:30,
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평강 공주의 보물 1호인 거울을 훔친 공주의 시녀 연이와 숲에서 만난 야생소년이 펼치는 또다른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로, 배우들의 몸과 소리만으로 감동을 전하는 색다른 형식의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2012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발표회 뮤지컬 '그리스'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2: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뮤지컬을 우수한 강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가정

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수강생 발표회.
1950~60년대 방황하는 미국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뮤지컬 '그리스'를 선보인다.

뮤지컬 '빨래' 부산공연

11월 23일(금)-12월 2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목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 의 | (주)문화CONG(1688-8998)



서울 달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그린 창작뮤지컬 '빨래'.
· 출연/조현정, 엄태리, 이진규, 박정표, 김송이 외

연극 '바쁘다 바빠'

11월 28일(수)-12월 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빈민가족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연극 '바쁘다 바빠'.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극단 에저또 정기공연 뮤지컬 '친구'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3)

1970~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구수한 사투리와 추억의 7080 음악이 함께하는 락큰롤 뮤지컬 '친구'.
· 작,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최재민, 박지훈, 정재훈, 김성훈, 김지연 외

Dance

2012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33주년 기념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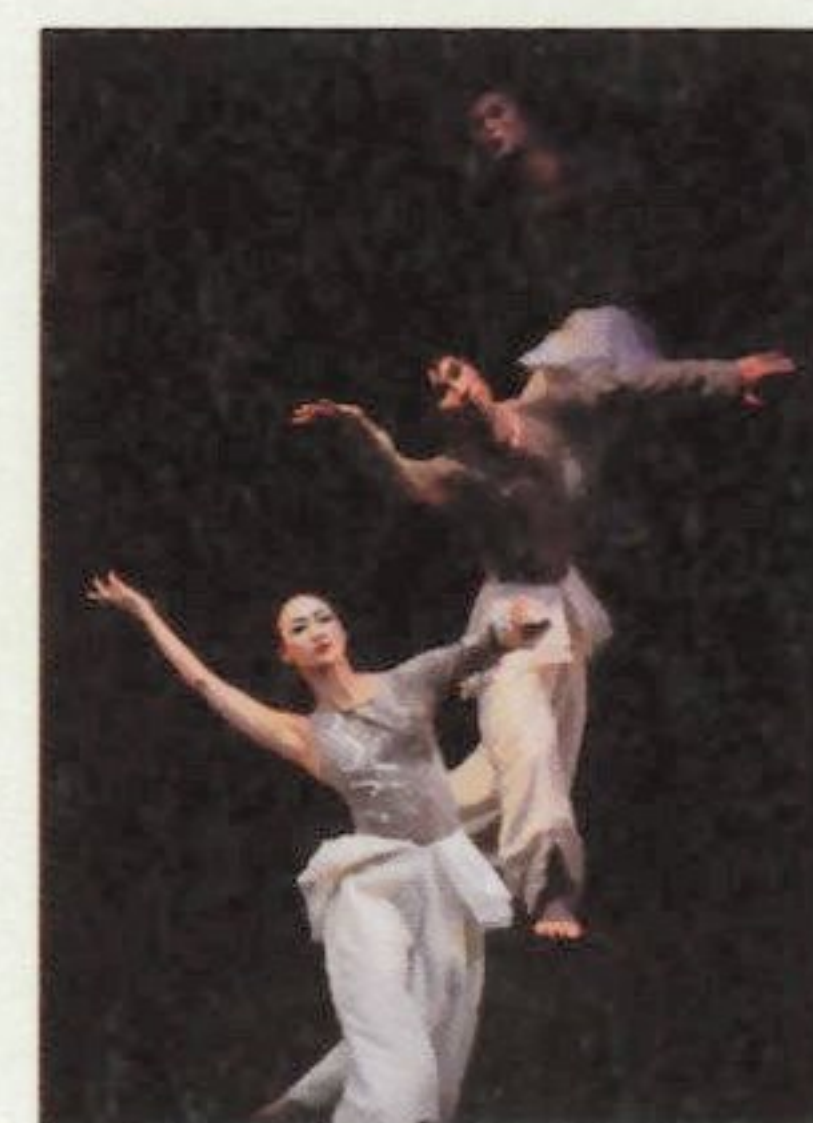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라대학교 무용학과(999-5301)

1979년 지역에서는 최초로 독립된 무용학과로 개설되어 우수한 무용 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33주년 기념무대.

프로그램
살풀이춤, 창작춤 '파란', '백조의 호수' 중 빠드트로와, 창작춤 '까마귀, 그 너머를 보다', 'Black & White' 등

무용단 Redstep 창작춤 'To Somebody'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1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이상현(010-2762-1827)



삶에 대한 궁극적 의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존재적 갈등의 상황을 춤언어로 그려낸 무용단 Redstep의 다섯 번째 창작무대 'To Somebody'.
· 안무/허경미
· 찬조출연/M-note 무용단
· 출연/허경미, 박광호, 신윤경, 신승민, 김동석

2012 홍순아 현대춤 'a wall'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홍순아(010-2260-9046)



부산대학교 무용학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극단 맥 상임안무, 한국 필라테스학회 상임이사로 활동중인 홍순아 창작무대. 자신의 삶의 벽에 관계성을 가지고 색깔을 움직임으로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표현한 창작춤 'a wall' 을 선보인다.

- 안무/홍순아
- 출연/김현정, 박근영, 이연주, 홍순아 외
- 음악/사운드 아티스트 문수경, 베이스 송봉근

여풍류

11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진홍전통춤보존회(646-0845)

대한민국 여성명무들이 펼치는 전통무용의 향연 '여풍류'.

프로그램

가사호점(김문숙), 장고춤(김진홍전통춤보존회), 영남입춤(정양자), 태평무(홍진희), 도살풀이춤(양길순), 교방입춤(원미자), 예기무(김광숙), 살풀이춤(김정녀·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보유자후보), 살풀이춤(이애주·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예능보유자), 승무(김진홍·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예능보유자)

김옥련발레단 '분홍신 그 남자'

11월 25일 일요일 오후 4:00,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2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 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김옥련발레단(626-9486)



운명처럼 '춤' 과 함께 살아왔으나 이제는 치매환자가 되어 기억을 잃은 한 여자와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쓸쓸한 시선 속에 생각, 예술과 삶을 춤언어로 그려낸 창작무대.

- 안무/김옥련, 이원국
- 연출/유상훈(극단 장고개 대표)
- 출연/이원국, 김옥련, 안유리, 최연순, 최예원, 김동우, 임정인, 김현애, 강경원
- 연주/송용창(아코디언), 박미은(피아노), 박광식(바이올린), 고충진(클래식기타)

을숙도문화회관 '수요일은 춤'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로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의 제자들이 꾸미는 다양한 발레무대가 펼쳐진다.

Movie

스타일의 혁신:닛카츠 창립 100주년

스즈키 세이준 회고전

10월 16일(화)~11월 21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신파영화부터 전후 액션영화, 청춘영화, 70년대 '닛카츠 로망 포르노' 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들며 '스타일의 혁신' 을 이뤄낸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사인 '닛카츠'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특별전.

Concert

오영실과 함께하는 트로트보다 쉬운 재즈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주옥같은 재즈명곡을 방송인 오영실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재즈 입문 콘서트.

Event

제116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11월 7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송찬호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6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음악회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옥균(010-6367-0149)

· 초청음악가/현악앙상블 '라 메르', 시노래 가수 김모화
· 초대시인/배상호, 최귀례, 권정일 외
· 사회/손계정 · 연출/김옥균

Gallery

닥종이 인형으로 보는 독도展

9월 1일(토)~11월 30일(금) 40계단 문화관
문의 | 40계단 문화관(600-4541)

제4회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선정작가

사진 미래色-강재구, 권진우, 김태동

9월 8일(토)~11월 2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4-3924)

2012 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Garden of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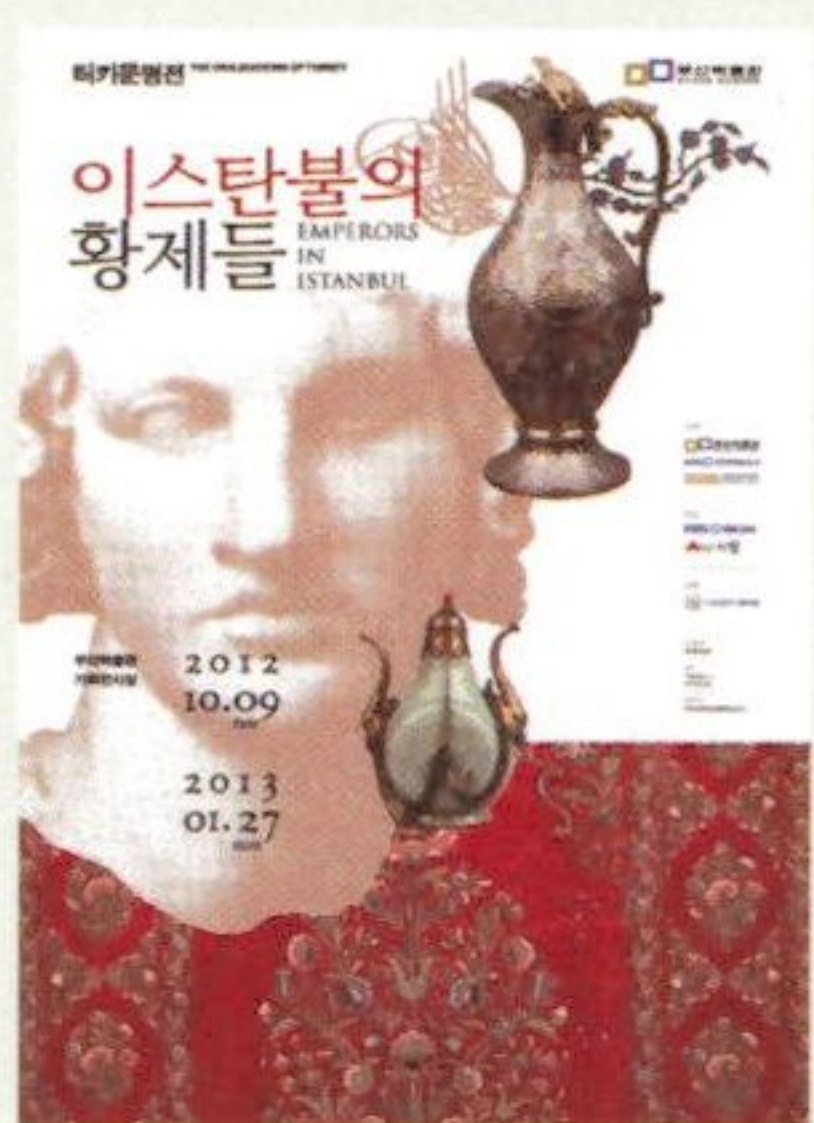
9월 22일(토)~11월 24일(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진역사, 광안리 미월드
문의 |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3-6111, www.busanbiennale.org)

오형근 '中間人(중간인)'

9월 23일(일)~11월 2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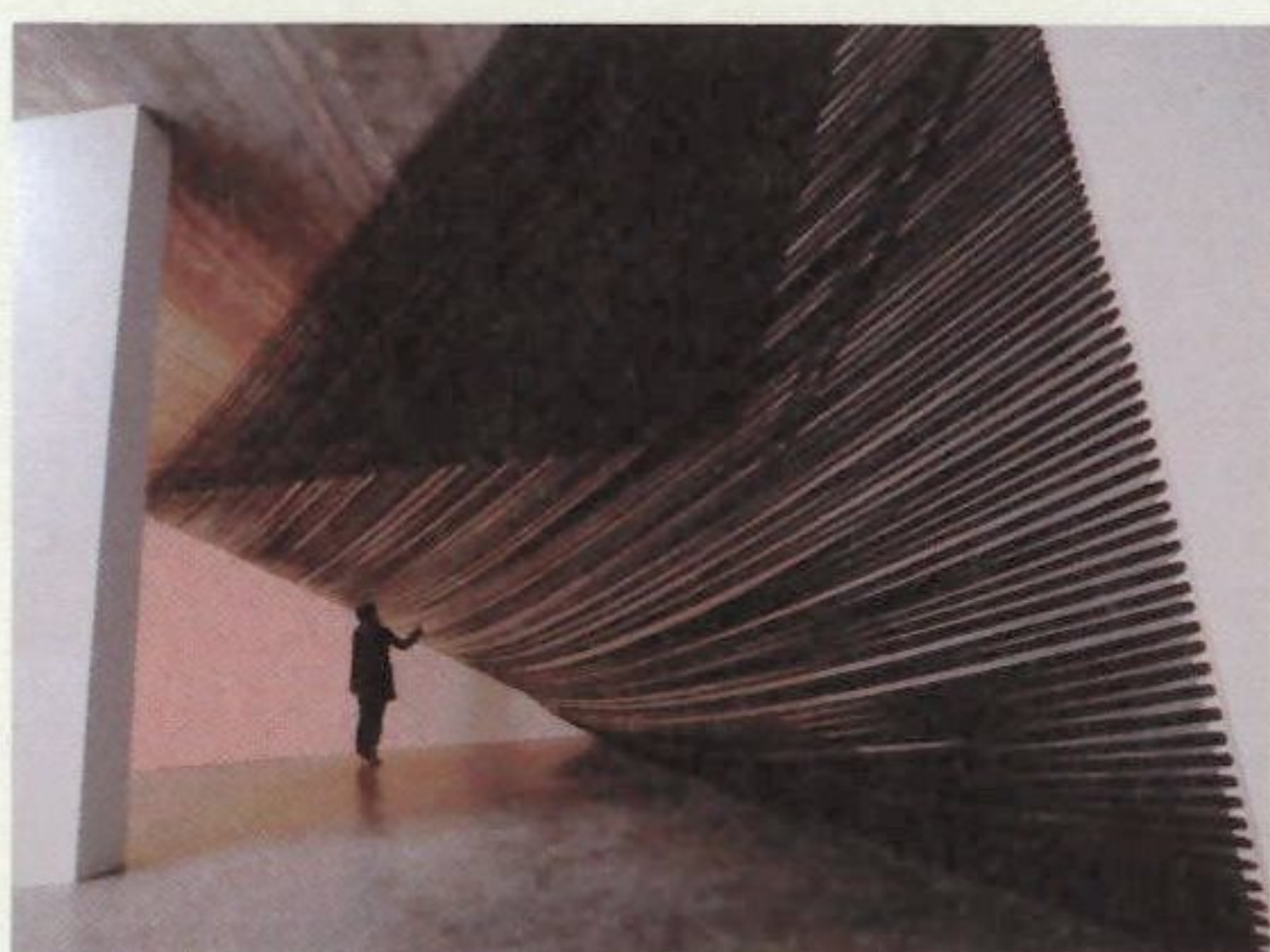
2012년 10월 9일(화)-2013년 1월 27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원 · 중고생 9천원
 초등학생 7천원 · 유아 및 65세 이상 5천원
 문 의 | 터키문명전 사무국(1666-4392)



부산, 이스탄불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맞아 터키의 문화유산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터키문명전:이스탄불의 황제들' 부산전. 아나톨리아문명박물관, 이스탄불고고학박물관, 톱카프궁박물관, 터키이슬람미술관 등 터키를 대표하는 4곳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187점을 선보인다.

손몽주 설치전 'No Signal'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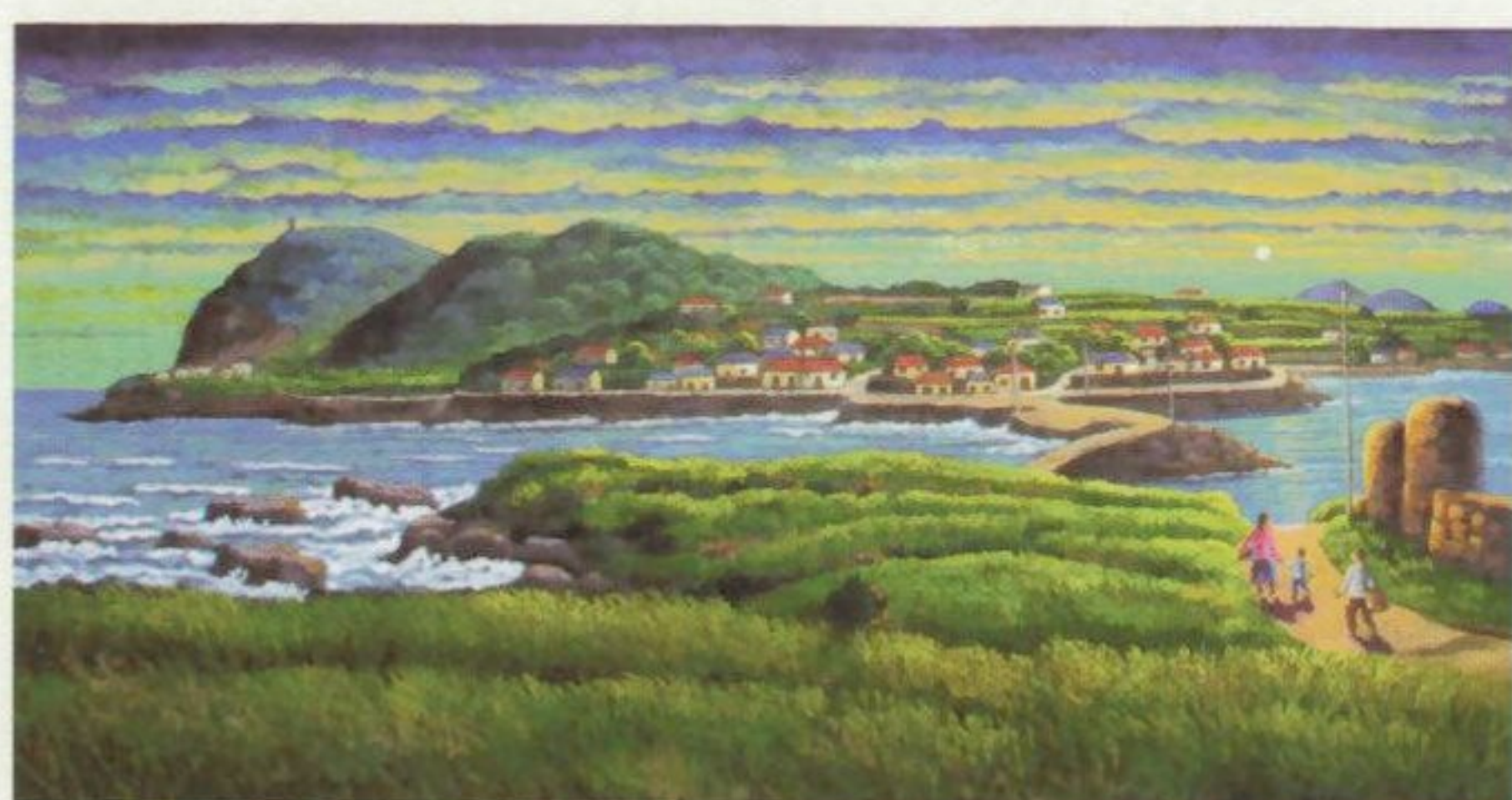
10월 14(금)-11월 6일(화)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대량의 고무줄을 이용해 모서리를 막고, 기둥을 싸고, 내부를 분할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공간 속 드로잉을 연습하는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이는 송몽주 작가 개인전

다정다감-김외칠, 박운화, 설종보, 윤경아

10월 23일(화)-11월 25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624-0933)



설종보 작 '집으로 가는 길'

2012 대안문화공간 자인 기획전

No, Frame! '틀없는 틀'

10월 23일(화)-11월 10일(토) 대안문화공간 자인
 문 의 | 대안문화공간 자인(011-9506-7231)

윤옥수 서양화展

10월 25(목)-11월 3(토)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고빈 사진전 '밀레가, 만나게 될 거야'

10월 26일(금)-12월 10일(월) 토요타 포토스페이스
 문 의 | 토요타 포토스페이스(744-3924)



출판과 광고분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고빈이 인도를 중심으로 10여년간 여행했던 당시의 행복했던 만남의 순간들을 기록한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제10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 BIEAF-2012

11월 1일(수)-11월 6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내마음의 자유-모기홍展

11월 5일(월)-11월 30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747-2612)



종이비행기를 소재로 힘겹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이상을 향해 날아가는 아름다운 꿈의 비행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정성훈 조각전

11월 5일(월)-11월 17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새로운 조형세대의 표현에 걸맞는 참신한 입체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신진작가 정성훈 조각전

한국화 · 서양화 · 도예 30인전

11월 5일(월)-11월 20일(화)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의 향토작가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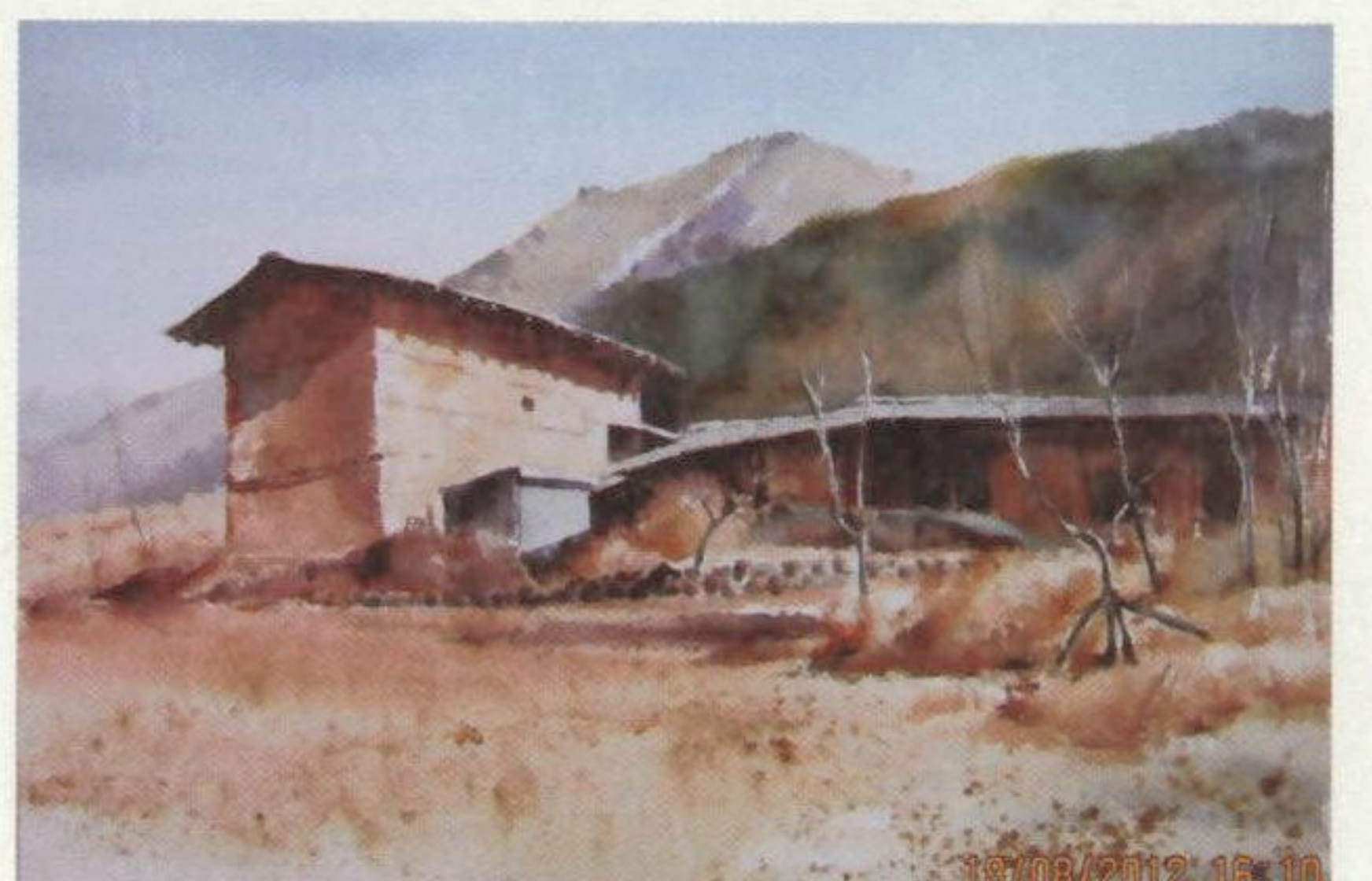
11월 7일(수)-11월 13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롯데 창립기념 'The Great of POP ART' 展

11월 9일(금)-11월 29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이상배, 김정숙 부부 수채화展

11월 20일(화)-11월 26일(수) 동래문화회관 전시실
 문 의 | 이상배(010-9395-8837)



이상배 작

타워갤러리 기획 2012 '가을의 서정'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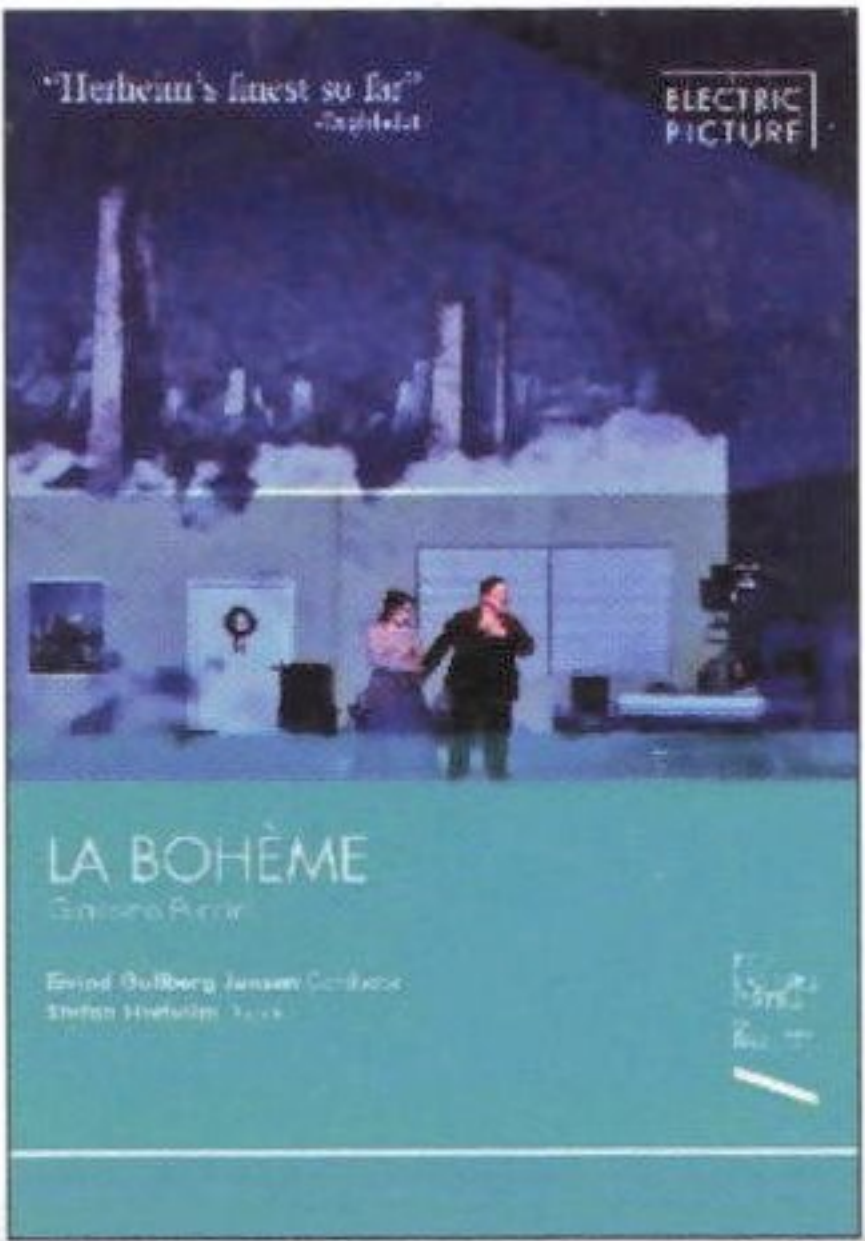
11월 21일(수)-11월 30일(금)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464-3939)

제54회 토백회 정기전

11월 14(수)-11월 20(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최봉준의 부산항 50년전

11월 22(목)-11월 30(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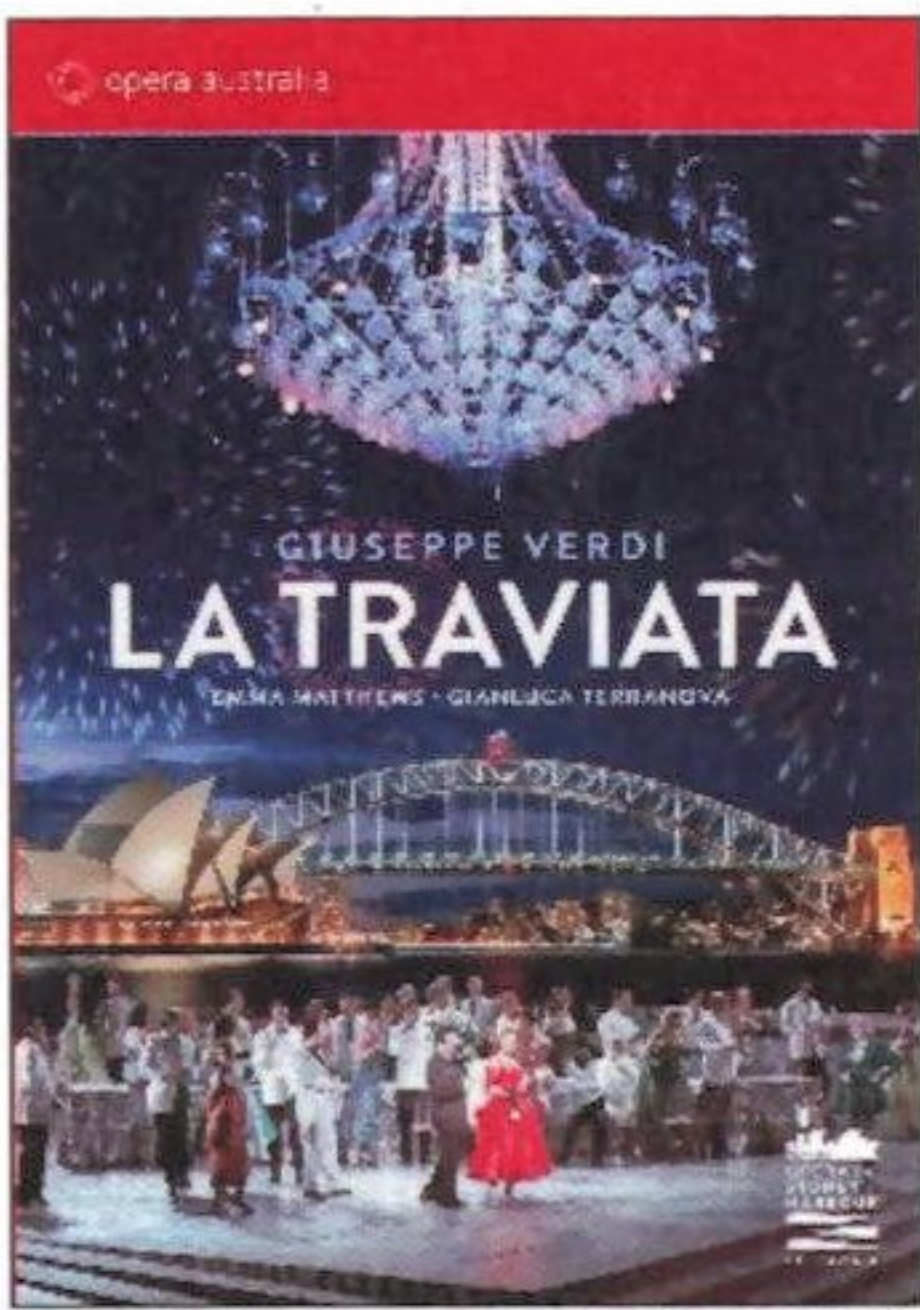


푸치니 '라 보엠'

디에고 토레스(로돌포)/마리타 실베르크(미미)/바실리 라디욱(마르첼로)/제니퍼 로울리(무제타) 외
에이빈드 굴베르크 연센/노르웨이 국립오페라

▶ 냉엄한 현실과 아스라한 과거를 교차하는 슬픈 사랑의 드라마

현재 유럽 오페라 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출가의 한 사람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테판 헤르하임이 2012년 1/2월 노르웨이 국립오페라 무대에 올렸던 충격적인 <라 보엠> 프로덕션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현대의 병원을 배경으로 암으로 죽어가는 미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페라는 시작된다. 죽어가는 미미를 지켜보던 로돌포는 이러한 현실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둘 사이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병원의 스태프들은 로돌포의 환상속으로 들어가 마르첼로, 무제타나 같은 옛 친구들로 모습이 바뀐다. 과거와 현재의 현격한 대비를 통해서 이들의 비극을 더 한층 극적으로 드러낸 헤르하임과 사실적인 연기와 안정된 가창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젊은 성악가들의 활약 또한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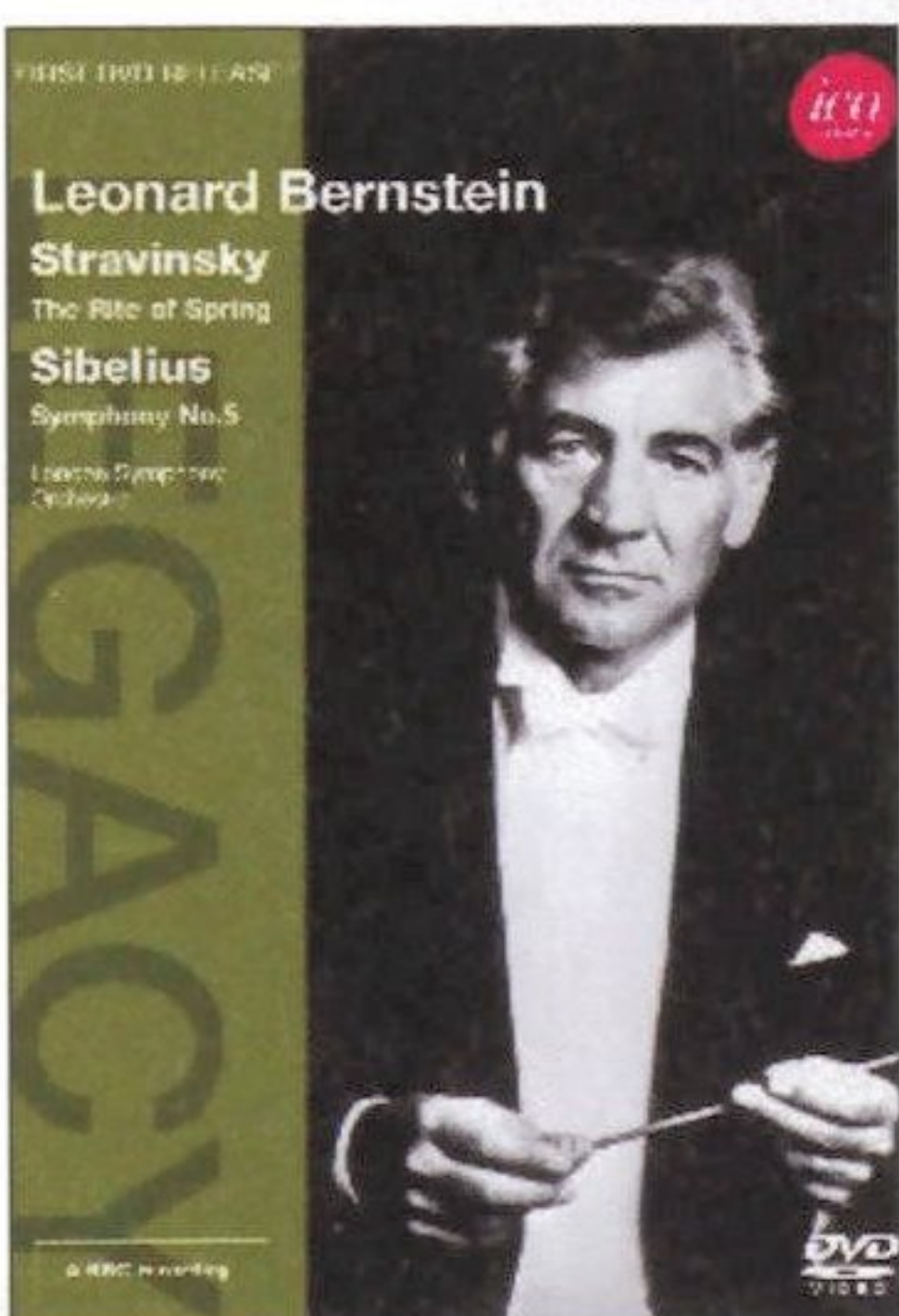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엠마 매튜스(비올레타)/잔루카 테라노바(알프레도)/조나선 섬머즈(제르몽)/마가렛 플루머(플로라) 외
브라이언 캐슬스-어니언/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 시드니 항구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본 영상물은 2012년 4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가 만들어내는 인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시드니 항구의 수상 무대에서 펼쳐졌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의 야외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여류 오페라 연출가인 프란체스카 잠벨로는 거대한 상들리에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불꽃놀이를 무대에 더함으로써 이 프로덕션의 화려함을 더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히로인으로 활약하면서 이 나라 오페라 애호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엠마 매튜스가 비올레타를 노래하였으며, 베로나 아레나와 밀라노 라 스칼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탈리아의 젊은 테너 잔루카 테라노바가 알프레도를 연기하였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레너드 번스타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 미국을 벗어나 막 유럽으로 도약하던 무렵의 정력적인 번스타인을 만나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57년 서른아홉의 나이로 뉴욕 필의 상임지휘자에 취임하면서 일약 미국 음악계의 자존심으로 등극하였다. 그는 1969년 이 악단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활동무대를 유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유럽 음악계에 본격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던 무렵의 값진 영상기록이 DVD로 출시되었다. 1966년 11월 27일, 크라이던의 페어필드 홀에서 있었던 콘서트실황을 담은 흑백영상으로, 런던 심포니를 이끌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함께 연주하였다. 화면을 통해 만나는 번스타인은 48세의 정력적인 모습 그대로인데, 특히 '봄의 제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온 몸으로 표출해내는 그의 지휘모션은 '역시 번스타인답다'라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당당한 스케일과 섬세한 서정이 자연스레 교차하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역시 만년의 레코딩에서와는 또 다른 일면의 신선한 매력을 선사한다. 두 작품에 대한 번스타인 자신의 코멘트를 담은 12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이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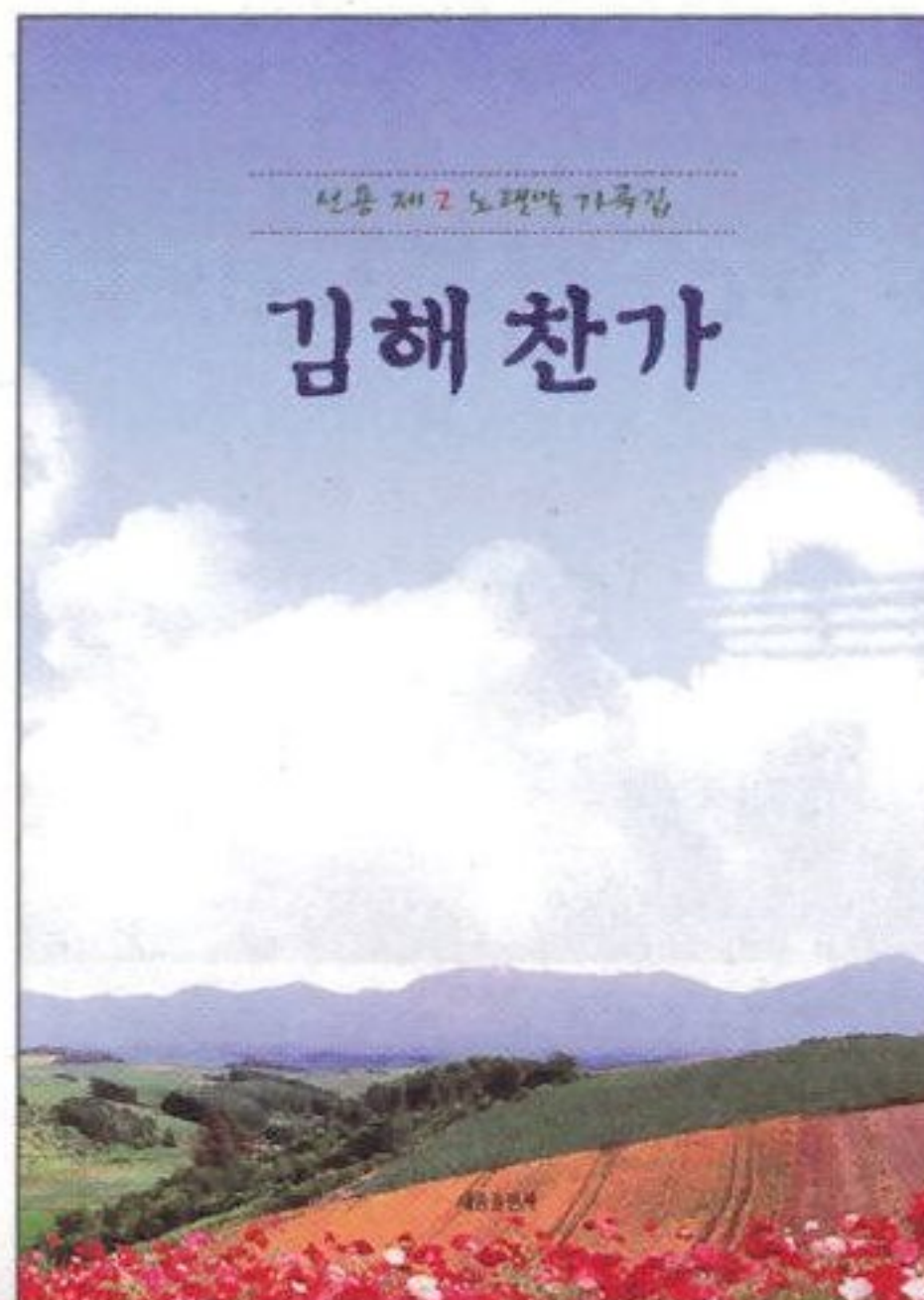




평상위의 안경

김형양 지음 / 전망 / 269p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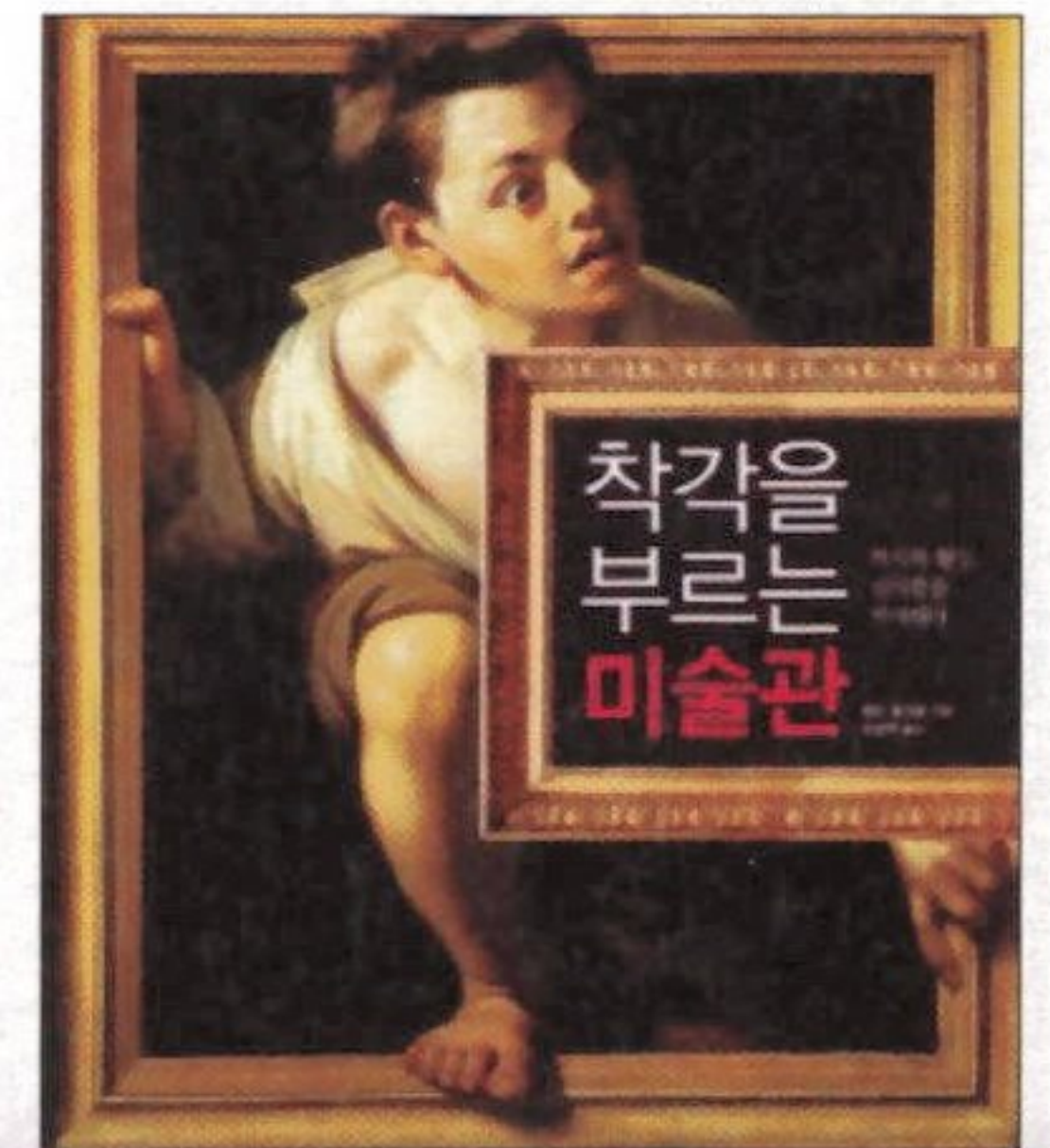
김형양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이 산문집을 펴냈다. 김형양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온 현직 관료이다. 행정가로서의 일상 속에서도 100회 이상의 독서모임을 이끌어 온 저자는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지속해 왔다. 이 산문집에는 그의 사유에 자양분이 되어 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저자는 남 다른 독서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의 실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의 균형감각, 영혼의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 삶의 근원적 가치 추구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각성 등 삶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카프카의 <변신>,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김구의 <백범일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등 그의 사유에 자양분이 되어 준 많은 책들에 대한 예리한 감상은 해당도서를 읽고 싶게 하는 독서 욕구까지 불러일으킨다. 산문들 사이에는 저자가 직접 찍은 부산의 풍경 사진들이 있다. 부산의 골목길, 시장, 철길, 바닷가, 산길, 갈매기 한 마리. 그 사진들에서 부산에 대한 저자의 사랑을 느껴보는 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김해찬가

선용 지음 / 세종출판사 / 155p / 1만 2천원

아동문학가 선용의 노랫말 가곡집. 김해 한림면 장방리 출신의 작가는 이 책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옛 김해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해에서도 오지 않았던 고향마을은 작가의 기억 속에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던 11년'으로 남아있다. 작가는 서문에서 "그때는 건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름다운 추억이 되어 허전한 마음 받을 지금까지 풍성하게 꾸며주고 있다"고 고백한다. 작가는 살기에 바빠 마음의 고향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도시에서만 살아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들꽃 한 송이를 안겨주는 마음으로 노랫말을 썼다고 말한다. <조만강 달맞이꽃> <봉화산 부엉이> 등 최근에 새로 쓴 시와 <도요진 푸른 마을> <노을 속의 호 계천> 등 김해를 노래한 옛 한시와 문헌을 기초로 해서 쓴 시들이 모두 노랫말이 되었다. '푸른 강이 마을을 껴안고 흘러간다 조개처럼 엮드린 초가집 작은 마을 저녁 연기 술술술 하늘로 올라 가면 망태 가득 고기를 등에 진 어부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노을 속 좁은 길로 따라간다'는 <도요진 푸른 마을>의 노랫말은 생림면 도요마을의 옛 풍경을 되살려냈다. 이종록, 김종덕 등 8명의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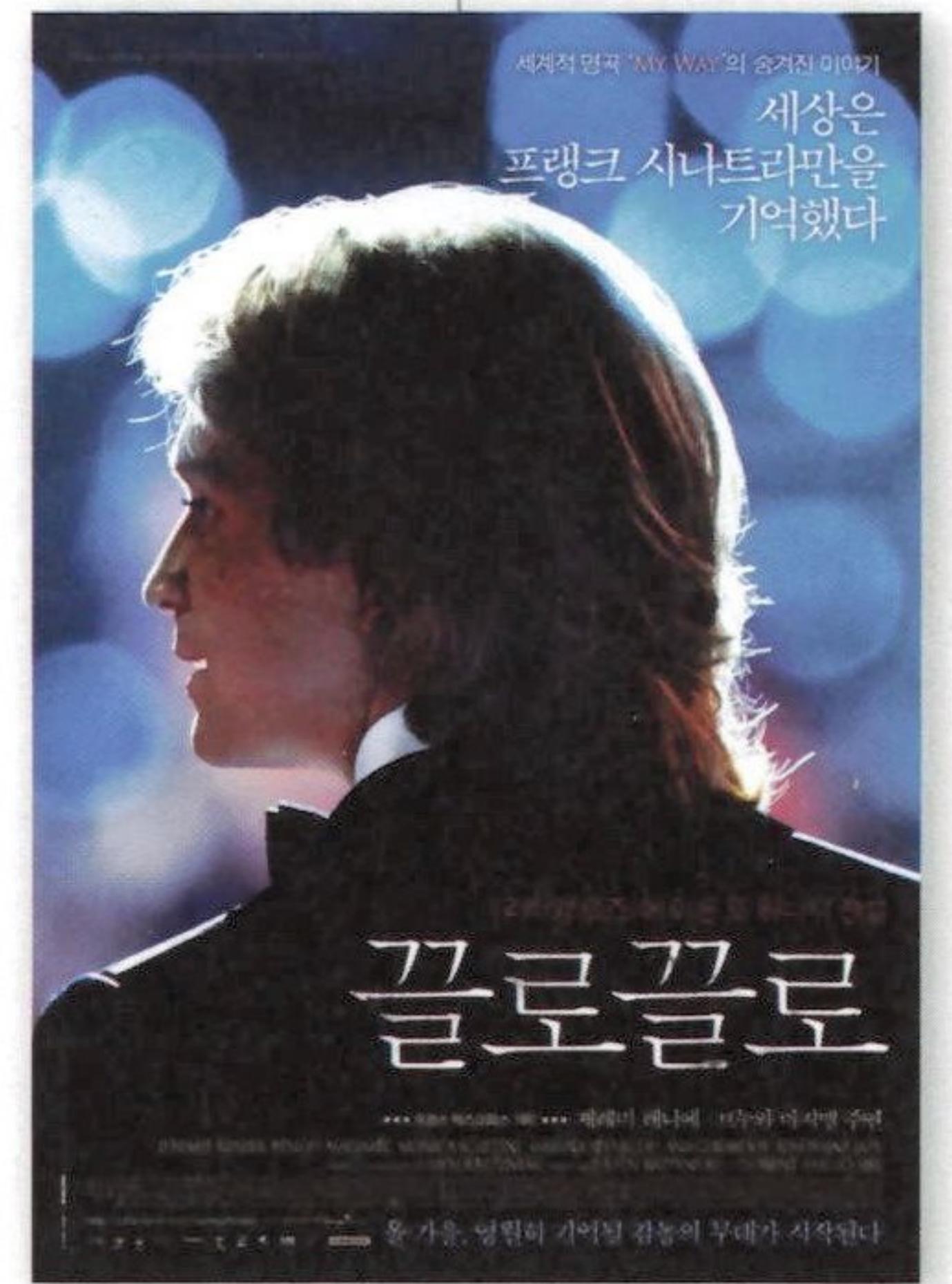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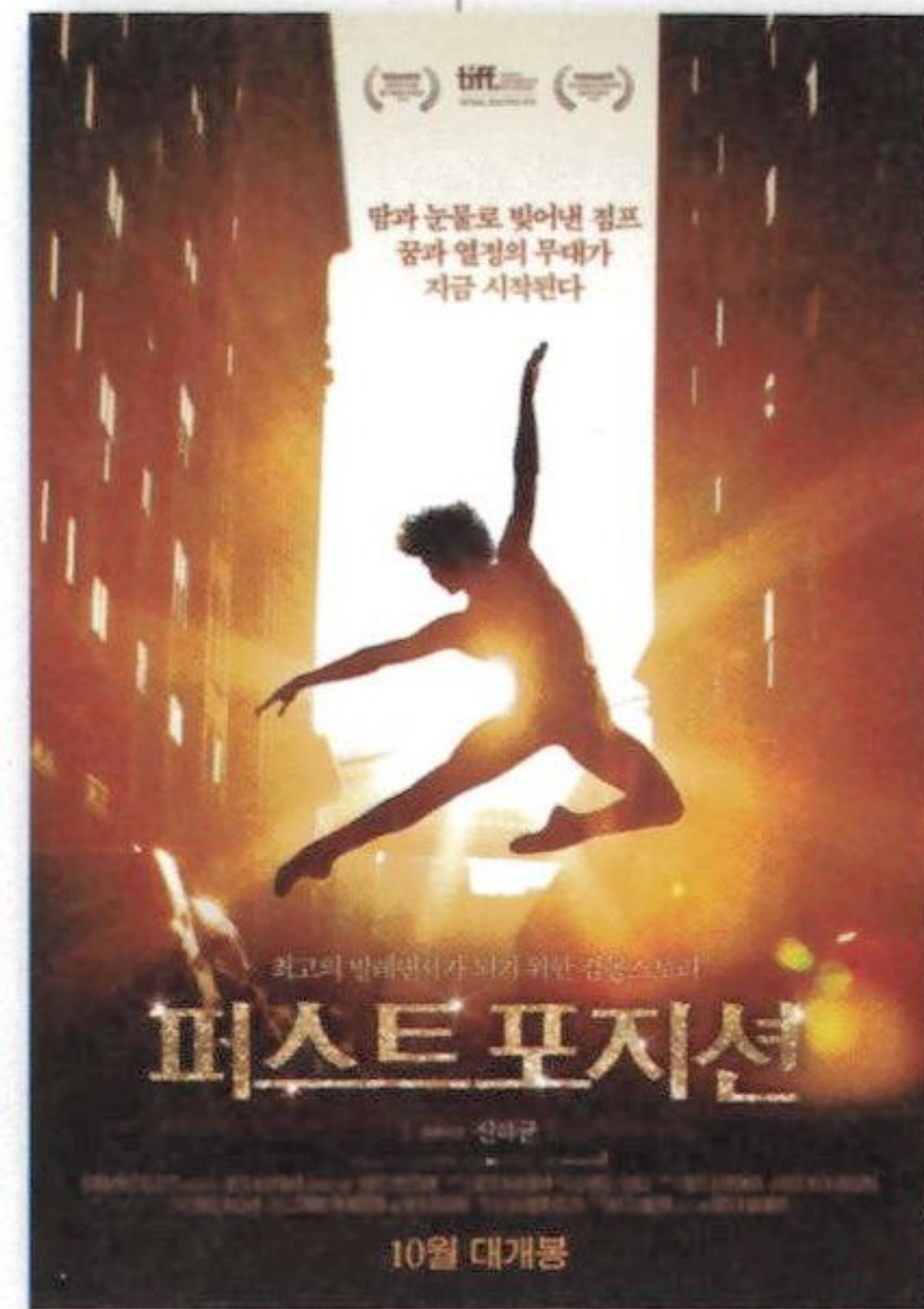


착각을 부르는 미술관

셀린 들라보 지음, 김성희 옮김 / 시그마북스 / 192p / 2만5천원

그림 속의 대상물을 실물로 착각할 만큼 생생하게 표현하는 미술 기법을 '트롱프뢰유'라고 한다. 벽에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실제 소나무인줄 안 새들이 날아와 부딪혔다는 신라의 화가 솔거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단지 옛날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미술 작품 가운데는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트롱프뢰유' 외에도 대상의 모습을 변형시켜 묘사하는 왜상화법, 이중적이거나 숨겨진 이미지, 착시 작용,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왜곡된 원근법,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등을 이용한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눈속임 기법에는 미술가의 상상력 뿐만 아니라 기술적 능력과 학술적 지식이 동원된다. 네덜란드의 화가 얀 반 에이크는 종교화를 그릴 때 농담과 명암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는 '그리자유' 기법을 즐겨 이용했다. 에이크의 그림은 입체감이 뛰어나 그림이 아니라 마치 조각처럼 보였다고 한다. 에이크의 작품 중, 스페인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소장된 '수태고지'는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라 해도 믿을 만큼 입체적이다. 이 책은 착시와 환상을 일으키는 작품 6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는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롱 폴링'

10월 25일 개봉
부산국도예술관, CGV서면 무비콜라주

지난 2009년 국내에서 개봉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영화 '세라핀'의 제작진이 다시 한번 뭉쳐서 만든 영화 '롱 폴링'. 키스 리지웨이의 베스트셀러 소설 '나쁜 길(Mauvaise pente)'을 각색한 '롱 폴링'은 남편의 오랜 학대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중년 여성 '로즈'의 도주와 방황을 그린 작품으로, 인내와 헌신을 요구했던 '아내'와 '엄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한 명의 '여성'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주인공 로즈와 그런 로즈의 도주를 돕는 여관주인과의 가슴 벅찬 연대와 우정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주인공 '로즈'는 전작인 '세라핀'에서 신들린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올랜드 모로가 맡아 명불허전의 연기력을 보여준다. 벨기에 출신의 연기파 배우 올랜드 모로는 영화 '세라핀'으로 2009년 제34회 세자르영화제, 제35회 시애틀국제영화제, 제35회 LA 영화비평가협회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10,000명의 지원자, 1,000리터의 땀과 눈물
다큐멘터리 '퍼스트 포지션'**

10월 25일 개봉, 서면CGV 무비콜라주

1년에 단 한번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는 발레 댄서를 꿈꾸는 20세 이하 친구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거액의 상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유명 발레스쿨과 발레단에 입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퍼스트 포지션'은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6명의 발레 댄서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아 낸 영화다. 세계 각국에서 온 나이도 피부색도 다른 여섯 명이 단 5분 동안 주어지는 무대에 오르기 위해 전 세계 도전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잔잔하면서도 때론 걱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배우 신하균의 목소리 연기가 영화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준다. 영화제목인 '퍼스트 포지션'은 양쪽 발의 뒤꿈치를 붙여 발끝을 60도로 벌리고 상체를 편 채 양 손을 옆으로 내린 발레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뜻한다.

**'라 비앙 로즈'에 이은 또 하나의 전설
'끼로끼로'**

11월 1일 개봉, 부산국도예술관

1960~70년대 프랑스를 뜨겁게 달군 전설적인 뮤지션 콜로드 프랑소와의 불꽃같은 삶을 그린 영화 '끼로끼로'가 오는 11월 관객들과 만난다. 프랑소가 사랑한 20세기 최고의 스타였던 콜로드 프랑소와는 39세의 나이에 사망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다간 프랑스의 전설적인 뮤지션으로, '끼로끼로'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프랑스의 국민적 가수로 사랑받았다. 대표곡으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의 원곡인 'Comme d'habitude'를 비롯해 1962년 발매 당시 17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그를 탑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히트곡 'Cette Annee-la(Belles, Belles, Belles)',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ADF 디스크 대상을 수상했던 'If I Had a Hammer' 등이 있다. 영화 '끼로끼로'에서는 6,700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음반 판매를 기록한 히트곡 제조기이자 화려한 퍼포먼스로 좌중을 압도했던 스타로서의 삶이면에 성공에 대한 강박 아래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 실제 삶 사이에서 끝없이 통제하고 통제당하는 삶을 살아야했던 콜로드 프랑소와의 무대 뒤 고독한 인간으로서의 삶까지 그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브람스와 함께하는 가을

조영석_필하모니 대표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도심을 한 걸음만 벗어나면 발 아래 수북이 쌓인 낙엽이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케 한다. 인디언 아라파호 족은 11월을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했다 한다.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듯한 아쉬움과 쓸쓸함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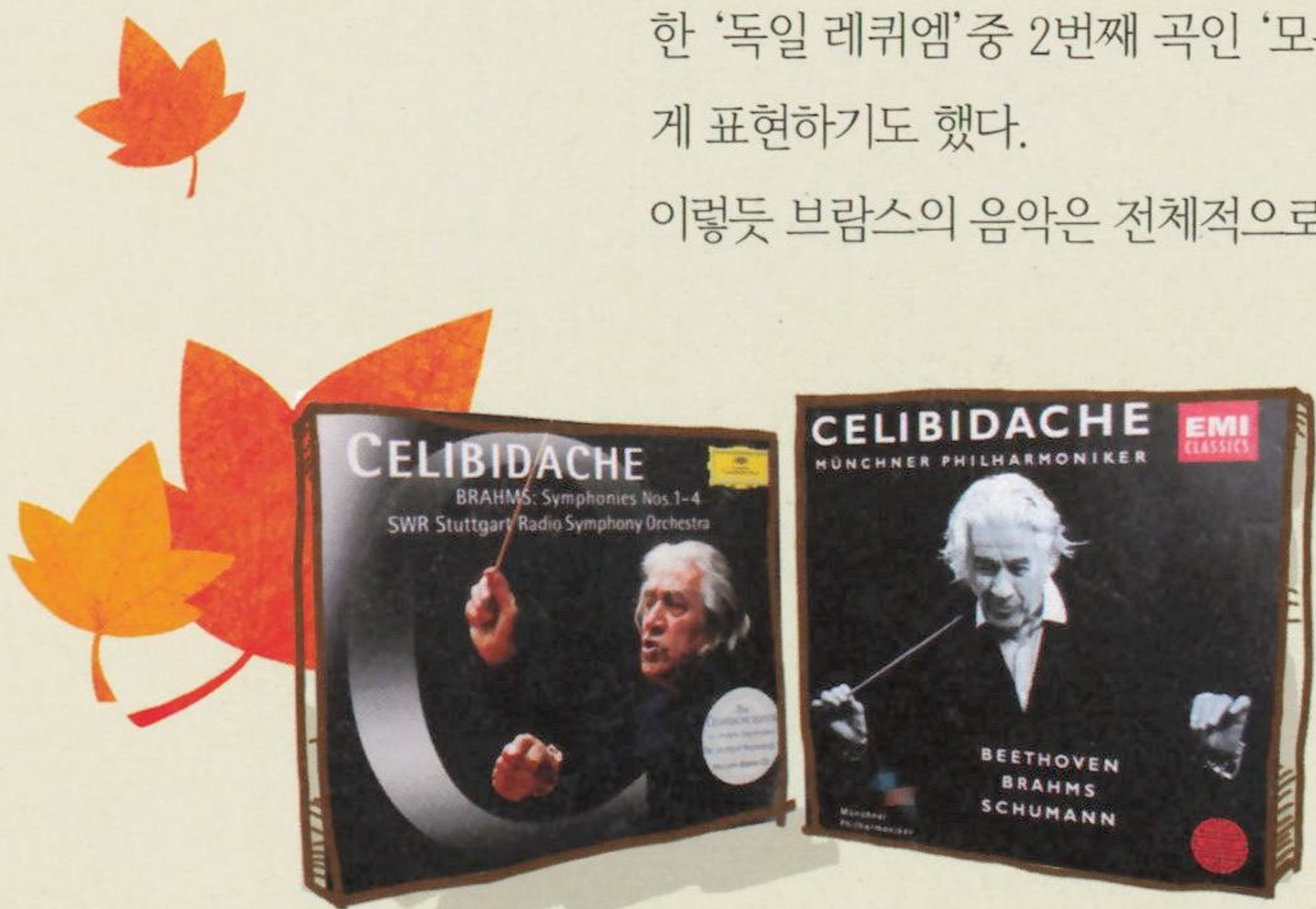
그래서 11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텅 빈 내면의 들판과 마주 서게 되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심오한 소리에 귀를 기울리게 된다. 그를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브람스의 선율들...

브람스의 음악은 회색빛 우수를 머금고 늦가을의 텅 빈 가슴을 따뜻이 감싸주지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브람스의 음악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내면적인 깊이와 엄숙함이 짙게 배어있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심오한 세계로 빠져들며, 한편으로는 한없이 여린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브람스' 하면 먼저 프랑수아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중 3악장이 사강의 소설을 영화화한 '안녕 다시 한 번'에 사용되면서 일약 유명해졌는데 브람스 특유의 쓸쓸한 선율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한 '현악6중주 1번' 중 2악장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여 클라라 슈만에게 바치면서 가슴에 품었던 고독한 사랑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교향곡 4번'에서 인생의 가을을 노래했다. 브람스가 52살에 작곡한 4번 교향곡에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브람스 만년의 고독한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느리게 시작되는 1악장에서 인생의 황혼을 짙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브람스는 자신이 작곡한 '독일 레퀴엠' 중 2번째 곡인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니'에서는 인생의 무상함과 숭고한 종교적 사상을 진지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듯 브람스의 음악은 전체적으로 회색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 참고로 필자가 좋아하는 브람스 교향곡 전집으로는 첼리비다케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실황음반이 있는데, 같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보다 템포나 내용면에서 훨씬 정감어린 연주를 들려준다. 또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오래된 녹음이지만 오토 클렘페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하는 음반이 연주 내용도 좋고 녹음 또한 훌륭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취향이지만...



NEWS

부산시립합창단 체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한국의 날 초청공연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체코 한국대사관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CMS 유니버설의 초청으로 11월 7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해외 순회 연주길에 오른다.

독일과 이탈리아 순회공연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이번 순회 연주를 통해 체코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교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11월 7일 부산을 출발, 9일 오후 8:00 루마니아 티미슈아라市 '티미슈아라 시립예술단'과의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12일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을 맞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자랑스런 한국인' 축하공연을, 16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Janacek Filharmonie Ostrva Orchestra'와의 합동공연무대를 갖는다.

한국의 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한 아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체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한국 순회 연주 중 많은 연주자와의 협연과 그에 따른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아나첵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의 유명도시 오스트라바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할 계획이다. 루마니아 티미슈아라市에서의 공연은 '한국의 날-Korean Day's를 기념한 무대로 이날은 특별 행사의 일환으로 '티미슈아라 시립예술단'과의 합동공연이 계획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공연은 체코의 초청연주가 이루어지면서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건의로 마련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국내는 물론 해외활동 유명 한인 연주자를 초청, 오스트리아 내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 오스트리아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로 현 비엔나 시장의 방문까지 조율이 될 정도로 현지의 반응은 뜨겁다. 11월 12일 비엔나에 '한국민요'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11/9(금) Timisoara 루마니아 - Korean Days

11/12(월) Vienna 오스트리아 - Korean Days

11/16(금) Ostrava 체코 - Korean Days

2012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공개채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자(남자의 경우)
- 무용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예술감독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안무 경력자 우대)
- 겸직 불가

■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이력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확인용)
경력(재직)증명서 1부, 최종학위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통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작품기획(안) 1부,
최근 3년 이내 공연실적물(프로그램) 및 응시자 본인이 안무한 대표 작품(창작 1, 전통 1), 동영상 CD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2. 11. 12(월) ~ 11. 15(목) 17:00까지
- 원서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자료 활용, 방문 및 우편 접수
-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시 : 2012. 11. 26(월) 11: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접수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42)
- (우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의 고시/공고란 참조

지 / 난 / 호 / 정 / 답

부	산	국	제	영	화	제	상	강
산		보	웅	중	용		수	
세	종	발	본	색	원		강	진
계	파	색			해	태		
불	가	리	아	모			공	자
꽃		넬	베	네	룩	스		라
축		리	스트				덤	섬
제			맨	해	튼		채	
	피	에	타	금	피		감	
스	파		석	전	모	나	리	자

10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정화(사하구 하단1동)
초대권 김종훈(금정구 장전동)
 박태욱(남구 용호동)
 정정숙(수영구 수영동)
 최현주(해운대구 좌동)

나랏소 고미정(해운대구 재송동)
식사권 문지현(남구 대연동)
 배은주(부산진구 부전동)
 장지연(해운대구 우동)
 황미숙(수영구 남천동)

조은극장 권옥순(부산진구 양정2동)
초대권 박미정(수영구 남천동)
 서선희(중구 중앙동)
 장영숙(해운대구 우동)
 한은주(연제구 거제동)

큰집 김재란(사하구 다대2동)
식사권 김재현(연제구 연산동)
 김정숙(사하구 다대2동)
 박선재(사상구 주례2동)
 최상갑(동래구 사직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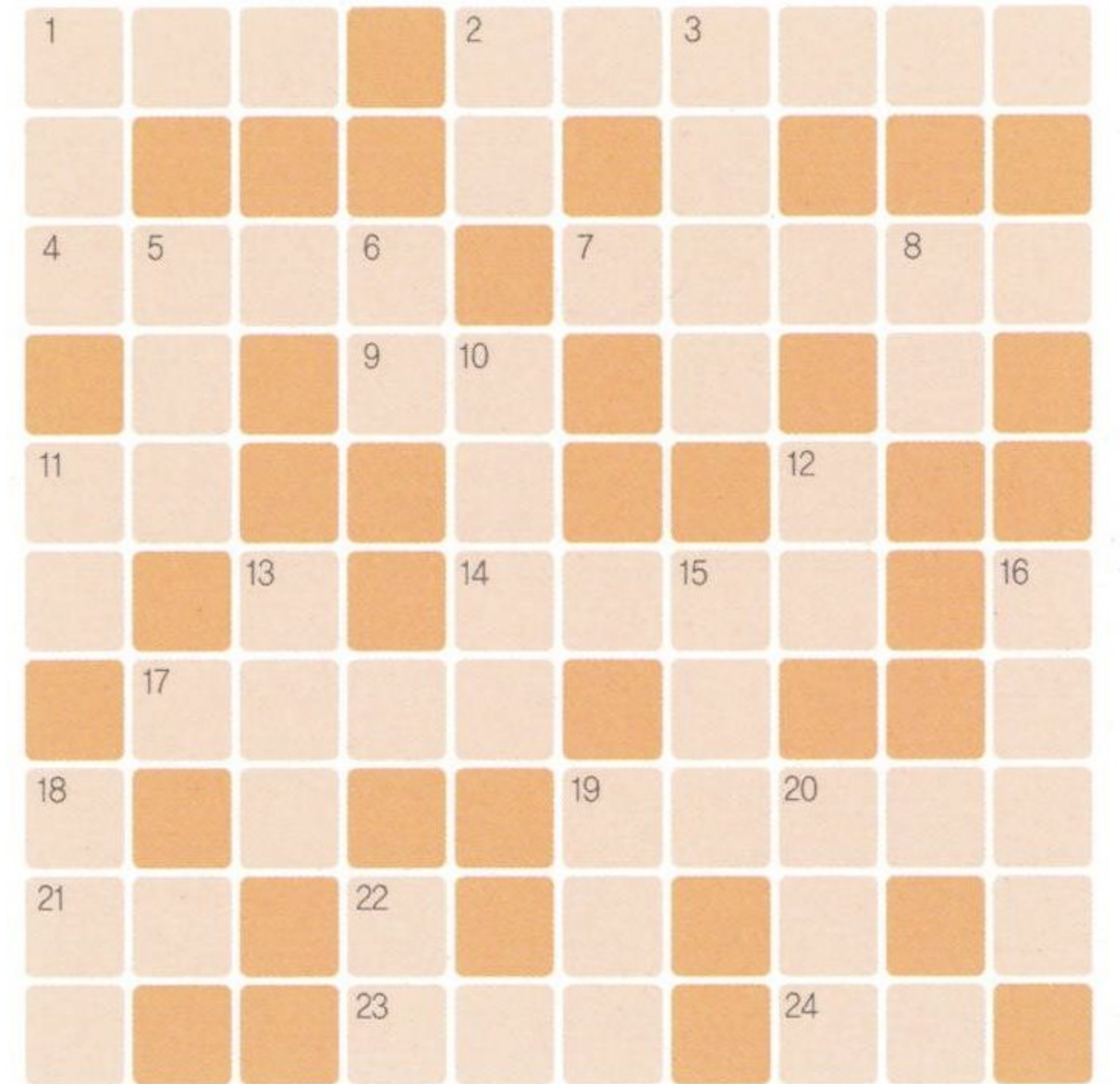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가로열쇠]

- 45세 나이에 데뷔한 늦깎이 뮤지션으로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펼쳐온 소리꾼.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 청중들과 만난다.
-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 대학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 매년 11월 둘째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올해는 11월 8일 시행된다.
-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곳곳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다.
- 할리우드가 가까이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호화로운 고급 주택단지가 형성된 도시. 특히 로데오거리나 월셔거리에는 고급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식당이 많기로 유명해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 체조경기 종목의 하나인 뽀름 운동에서 쓰는 기구. 안마(鞍馬)와 비슷하나 손잡이가 없는 것이 다르다.
- 궁에서 벌어지는 애육의 정사(情事), 광기의 정사(政事)를 그린 김대승 감독의 궁중사극.

[세로열쇠]

-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예후디 메뉴힌으로부터 '내가 지금껏 들어 본 이중 가장 대단한, 가장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다'라는 호평을 받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따위를 일정한 형식에 엮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산문 형식의 글.
- 버드나뭇과에 속한 낙엽교목. 개울가나 들에 나며, 가지가 길게 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충청도민요인 '천안삼거리'에 등장한다.
- 조선시대의 궁궐. 1395(태조 4)년에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버리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다. 국권강탈 후 정면에 총독부 청사가 세워질 때 대부분 철거당하고 근정전, 경희루, 향원정, 집옥재 등만이 남아 있다. 사적 제17호.
- 울릉도의 남동쪽 50마일 해상에 있는 화산섬.
-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의 새로운 코드로 등장한 용어. 영어사전적 의미로는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의미한다.
-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독일의 고전파 가극의 대표작인 하바로 낭만파 가극에 큰 영향을 주었다.
- 피터팬에 등장하는 해적선 선장.

- 이탈리아 작가 콜로디가 발표한 동화의 주인공. 착한 목수 제페토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무인형이 결국 사람이 된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산 중구와 영도구를 연결한 다리. 1934년 11월에 준공된 한국 최초의 연륙교(連陸橋)이자 유일한 일엽식(一葉式) 도개교(跳開橋)로, 중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다리의 한쪽을 들어올려 통과시킨다. 2011년 4월 완전 철거됐으나 내년 7월 새롭게 준공될 예정이다.
- 쇠막대를 세모꼴로 구부려 만든 타악기. 강철로 된 채로 쳐서 연주하며, 음색이 맑고 투명하여 관현악 따위에 쓰인다.
- 최근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추창민 감독, 이병헌 주연의 영화.
-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해상을 통해 유럽과 러시아 곳곳으로 진출한 노르만 족.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의 한 가지. 발로 품자(品字)를 밟으면서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팔을 상하좌우로 흔들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술이다.

- 낮 12시.
- 곧 폐쇄될 운명에 처해있는 작은 간이역의 역장, 오토마츠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일본작가 야사다 지로의 단편소설로, 2000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는 사자, 가슴은 양, 꼬리는 뱀으로 된 상상의 동물.
-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사생아를 낳은 여인 헤스터 프린을 통해 죄와 벌, 인간본성에 관한 문제를 그린 나다니엘 호손의 대표작.
- 경남지방 일대에 두루 분포되어 있던 민속가면극으로, 다섯 광대가 탈을 쓰고 춤추며, 대개 다섯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 들과 바람따라 떠나는 사색 여행. 전문 산악인들이 개발한 네팔의 히말라야 등 험한 산악길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이 용어로 정착됐다.
- 극단 연희단거리패, 가마골소극장, 밀양연극촌 예술감독으로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
-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라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공산국가. 수도는 아바나.

피아니스트 박종화 UNPLUGGED 다시, 날다

2012 / 11 / 25

오후5시 / 일요일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정명훈 뒤에 올 재목, 피아노의 스타 탄생 예고” -조선일보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 -보스턴 글로브

“천둥같이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스페인 ABC 지

PROGRAM

FRANCK
RACHMANINOV
RACHMANINOV
AND

PRELUDE, CHORAL ET FUGUE
PIANO SONATA NO. 2 OP. 36
MOMENT MUSICAUX OP. 16
UNPLUGGED



주최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주관 前衛 공연예술 전위
Jeon We Performing Arts

협찬 (주)한진중공업

후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PENIEL HIGH SCHOOL OF THE ARTS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예매처 INTERPARK 인터파크

공연문의 051) 582-2026

November 2012 Program Guide

2012
November
11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전시일정 2012 Busan Biennale Main & Middle Exhibition Hall 9.22(Sat)- 11.24(Sat) Busanbiennale(503-6111)</p>				01	02	03
					<p>Ⓜ The 484th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50th Anniversary Special concert' 19:30 10,000/7,000/5,000/ B.P.O(607-3111-3)</p> <p>Ⓜ 2012 Kim BokSeon Ballet Performance 19:00 20,000/10,000 Kim BokSeon Ballet Company(200-7823)</p>	<p>Ⓜ Baritone Min JeongSik Recital 19:30 Invitation/Min JeongSik(301-9701, 010-7562-9701)</p> <p>Ⓜ 2012 Kim HeeEun's Dance 'Anschauim' 19:00 20,000/10,000/ Kim HeeEun Dance Company (890-2513,010-7770-5395)</p>
04	05	06	07	08	09	10
<p>Ⓜ Tenor Park InSoo 50th Anniversary Concert 19:30 Invitation Hanullim Chorus(010-2595-9249)</p> <p>Ⓜ Nam SeonJu's Dance 'Fascination' 19:00 20,000/10,000/Nam SeonJu Dance Company (011-9557-1929)</p>		<p>Ⓜ Messiah for Busan Citizen 19:30 Invitation/Uri Art(010-5555-3825)</p> <p>Ⓜ 2012 Kang TaeHong's Sori (Korean Traditional Music) 19:30 Invitation/Kang TaeHong's Gayaguem sanjo Preservation Company(558-4678)</p>	<p>Ⓜ Kim BilBun's Dance 19:30 Invitation/ Kim BilBun Korean Traditional Dance Company(010-9428-7143)</p> <p>Ⓜ Choi JaeHo's Daeguem Recital 'Synesthesia of Tone and Timbre' 19:30 Invitation/Choi JaeHo(011-704-4444)</p>	<p>Ⓜ The 1139th MBC Thursday Concert 'Baritone Park DaeYoung & Soprano Kim EunSu' 19:30 10,000/5,000/ Park DaeYoung(010-4213-8220) Moonhwadosi Network(760-1494)</p> <p>Ⓜ Kim SeongHye's Flute Recital 19:30 Free/ Kim SeongHye(010-6265-0674)</p>	<p>Ⓜ The 18th Regular Concert of Una Piano Company 20,000/ Una Company(010-8325-9704)</p>	<p>Ⓜ All The Brothers Were Valiant 15:00, 19:00 70,000/50,000/40,000/KnP Entertainment(1599-8879)</p> <p>Ⓜ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11	12	13	14	15	16	17
<p>Ⓜ All The Brothers Were Valiant 14:00, 18:00 70,000/50,000/40,000/ KnP Entertainment(1599-8879)</p>	<p>Ⓜ Romania Bacau Philharmonic Orchestra 19:30 30,000/Pro Art(02-585-2934)</p> <p>Ⓜ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Taming of the Shrew' for teenager 11:00 2,000/B.M.T(607-3151)</p> <p>Ⓜ The 16th Saemulgyul Dance Performance 19:30 Busan Dance Association(010-8755-5284)</p>	<p>Ⓜ The Night of Song & Aria 19:30 20,000/5,000 Busan Art Company(010-5590-4728)</p> <p>Ⓜ Busan Metropolitan Theater 'The Taming of the Shrew' for Teenager 11:00 2,000/B.M.T(607-3151)</p>	<p>Ⓜ 2012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Opening 19:30 50,000/10,000/ Korea Choral Institute(632-0176)</p> <p>Ⓜ The 16th Saemulgyul Dance Performance 19:30 10,000/ Busan Dance Association (010-8755-5284)</p>	<p>Ⓜ 2012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13:00, 19:30 Free/Korea Choral Institute(632-0176)</p> <p>Ⓜ The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for Test-taker 11:00 2,000/B.P.O(607-3111-3)</p>	<p>Ⓜ 2012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13:00 Free/Korea Choral Institute(632-0176)</p> <p>Ⓜ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Well-being Concert IV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 11:00 10,000/B.P.O (607-3111-3)</p>	<p>Ⓜ 2012 Busan International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10:00, 14:00, 19:30 2,000/ Korea Choral Institute(632-0176)</p> <p>Ⓜ Korean Traditional Court Music 19:30 Invitation/Hanul (622-4472)</p>
18	19	20	21	22	23	24
<p>Ⓜ The 20th Busan Flute Ensemble Concert 17:00 20,000/Busan Flute Ensemble(442-1941)</p> <p>Ⓜ The Night of Piano Solo and Duo with Elles Sont 19:00 Elles Sont(010-6426-0968)</p>	<p>Ⓜ The 37th Regular Concert of Busan Symphony Orchestra 19:30 Invitation/ B.S.O(621-4577)</p>	<p>Ⓜ Kim EunHee Class Piano Concert 18:30 Free/Kim EunHee(010-9269-5567)</p>	<p>Ⓜ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1 Lee HanChul 20:00 30,000/ Busan Cultural Center (607-6058)</p>	<p>Ⓜ The 67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usan Fantasy' 19:30 10,000/7,000/5,000/ BMDC(607-3131-2)</p> <p>Ⓜ The 164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9:30 10,000/7,000/5,000/ B.M.T.O(607-3121-2)</p> <p>Ⓜ Jung HaYeong Piano Recital 19:30 Free/ Jung HaYeong(010-6399-7114)</p>	<p>Ⓜ The 67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usan Fantasy' 19:30 10,000/7,000/5,000/ BMDC(607-3131-2)</p> <p>Ⓜ Pungmulnori-the Korean Traditional Music 19:30 Free/Busan Women Culture Center (320-8332)</p>	<p>Ⓜ The 15th Regular Concert of T.I.F Wind 19:30 10,000/5,000/ T.I.F Wind Orchestral(070-7624-7740)</p> <p>Ⓜ The Regular Concert of Silla University Chorus 18:00 Free/Silla University(999-5265)</p> <p>Ⓜ Saturday Regular Stage- Ilpa Gayagum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25	26	27	28	29	30	12/1
<p>Ⓜ Pianist Park JongHwa Recital 'Pianologue' 17:00 50,000/40,000/30,000 Performing Art 'Jeon-we'(582-2026)</p> <p>Ⓜ Happy Music Concert(3rd Story) 17:00 10,000/ Di Art(070-7532-1117)</p> <p>Ⓜ The Ocarina Concert 15:00 Free Hurkpin(010-2947-9580)</p>	<p>Ⓜ The 14th Regular Concert of Gideon Choir 19:30 Free/ Gideon Choir(010-9613-0020)</p> <p>Ⓜ 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 'La boheme' 19:30 50,000/30,000/10,000/ 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070-7727-0188)</p> <p>Ⓜ Namgu Culture-Music Society Concert 19:30 Free/ Gang HakYun(010-9287-6350)</p>	<p>Ⓜ Tenor Oh DongJu Story Concert 19:30 20,000/Oh DongJu(010-4556-5058)</p>	<p>Ⓜ The 2nd Youth Choir Festival 19:00 Free/ Soongin Cultural Foundation(621-0640)</p> <p>Ⓜ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s Special Concert for Teenager 11:00 2,000/B.M.T.O(607-3121-2)</p> <p>Ⓜ 2012 Dong-a University Graduation Dance Performance 19:30 Free/ Dong-a University(200-7819)</p>	<p>Ⓜ Jang Salk Concert 19:30 100,000/80,000/60,000/40,000/ B.C.C(607-6057)</p> <p>Ⓜ The Regular Concert of Mirusaem Choir 19:30 Free/Busan Women Culture Center (320-8332)</p> <p>Ⓜ 29 Violinist Daniel Jeon Recital 19:30 30,000/ Daniel Jeon(010-4057-8278)</p>	<p>Ⓜ Jang Salk Concert 19:30 100,000/80,000/60,000/40,000/ B.C.C(607-6057)</p> <p>Ⓜ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Harmony Choir for Teenager 2,000/B.M.H.C(607-3141-2)</p> <p>Ⓜ The 8th Regular Concert of Dulos Men's Vocal Ensemble 19:30 Free/ Dulos Men's Vocal Ensemble(643-0311)</p>	<p>Ⓜ The 16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Academic Orchestra 18:00 I.A.O(010-4842-6688)</p> <p>Ⓜ Saturday Regular Stage- July Dance Theater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C.C(607-6056)</p>

2012년 11월 공연일정

2012
November
11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전시일정</p> <p>2012 부산비엔날레-대, 중전시실 9월 22일(토)-11월 24일(토)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료: 일반 7천원, 학생 4천원 (예매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문의: 부산비엔날레(603-6111)</p>				01 기울밤, 달밤, 별밤 19:30 초대/이건영(010-2574-3213)	0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4회 정기연주회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2012 김복선 발레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 19:00 2만원·1만원/김복선발레단(200-7823)	03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19:00 초대/민정식(301-9701, 010-7562-9701) 2012 김희은의 춤 'Abschaum' 19:00 2만원·1만원/김희은댄스컴퍼니 (890-2513, 010-7770-5395) 토요상설무대-하연화무용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04 테너 박인수 데뷔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초대/청향회(010-2595-9249) 남선주의 춤 '십이도 춤추다' 19:00 2만원·1만원/남선주 무용단(011-9557-1929)	05	06 초량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부산시민들을 위한 '헌법의 메시아' 대공연 19:30 초대/우리아트(010-5555-3825) 2012 강태홍의 소리 19:30 초대/(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558-4678)	07 김필분의 춤 19:30 초대/김필분전통춤연구회(010-9428-7143) 최재호 대금독주회 '음과 음색의 공감각화' 19:30 초대/최재호(011-704-4444)	08 제1139회 MBC목요음악회 '바리톤 박대웅 초청연주회' 19:30 1만원·5천원/박대웅(010-4213-8220) 김성혜 귀국 플루트 독주회 19:30 무료/김성혜(010-6265-0674)	09 제갈삼 교수 미수(米壽) 기념 제18회 운아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운아회(010-8325-9704)	10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15:00, 19:00 7만원·5만원·4만원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괴르벳-G'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1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14:00, 18:00 7만원·5만원·4만원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12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9:30 균일 3만원/(주)프로아트(02-585-2934)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제16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부산무용협회(010-8755-5284)	13 부산예술기획 창립 25주년 기념 '애창곡의 향연' 19:30 2만원·5천원/부산예술기획(010-5590-4728)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14 2012 부산국제합창제 '인천시립합창단 초청 개막공연' 19:30 5만원·1만원/(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제16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부산무용협회(010-8755-5284)	15 2012 부산국제합창제 '클래식 혼성 경연' 13:00, 갈라공연 '우수합창단 공연' 19:30 무료/(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부산시립교향악단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6 2012 부산국제합창제 '민속음악 경연' 13:00 무료/(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4 '체비야의 이발사'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7 2012 부산국제합창제 '클래식 동성 경연' 10:00, '대중음악 경연' 14:00, 시상식 및 수상팀 공연 19:30 경연 무료, 폐막식 2천원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한일정악연구소 제17회 정기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보유자 김경배, 조순자 초청무대' 19:30 초대/한일정악연구소(622-4472)
18 부산플루트앙상블 창단 20주년 특별연주회 17:0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엘송과 함께하는 4인 4석 피아노 독주&듀오의 밤 19:00 초대/Elles Son(010-6426-0968)	19 제34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선생님께 존경을'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 선착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부산플루트앙상블 창단 20주년 특별연주회 17:0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엘송과 함께하는 4인 4석 피아노 독주&듀오의 밤 19:00 초대/Elles Son(010-6426-0968)	20 김은희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 18:30 무료/김은희(010-9269-5567)	2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1 - 이한철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2 부산시립무용단 제67회 정기공연 '부산판타지'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월광'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경하영 피아노 독주회 19:30 무료/경하영(010-6399-7124)	23 부산시립무용단 제67회 정기공연 '부산판타지'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여성문화회관 풍물봉사단 제2회 정기공연 19:30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2) 토요상설무대-일파가야금주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4 2012 T.I.F 윈드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사)T.I.F 윈드오케스트라(070-7624-7740) 2012 신라대학교 합창 정기연주회 18:00 무료/신라대학교 음악부(999-5265) 토요상설무대-일파가야금주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5 음반발매 기념 전국투어 피아니스트 박종화 리사이틀 'Pianologue' 17:00 5만원·4만원·3만원/공연예술 전위(582-2026) Happy Music Concert(3rd Story) 17:00 균일 1만원/디아트(070-7532-1117) 휴피리 오카리나 정기연주회 15:00 무료/휴피리(010-2947-9580)	26 기드온 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윤진용(010-9613-0020) 부산메트로폴리탄 팍소오케스트라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리보엠 19:30 5만원·3만원·1만원 부산메트로폴리탄팍소오케스트라(070-7727-0188) 남구문화회 음악회 19:30 무료/강학운(010-9287-6350)	27 데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그리움'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회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012년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19:30 무료/동아대학교(200-7819)	28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축제 19:00 무료/송인문화재단(621-064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회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012년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19:30 무료/동아대학교(200-7819)	2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사의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19:3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생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2)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 리사이틀 19:30 균일 3만원/다니엘 전(010-4057-8278)	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장사의 소리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19:30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연주회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돌로스 남성중창단 제8회 정기발표회 19:30 무료/손상기(010-3872-5661)	12/1 탈복자 및 다문화가정 돕기 자선음악회 18:00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010-4554-4403) 인코리언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인코리언아카데미오케스트라(010-4842-6688) 토요상설무대-줄리아댄스시어터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김세환, 남궁옥분, 추가열, 이치현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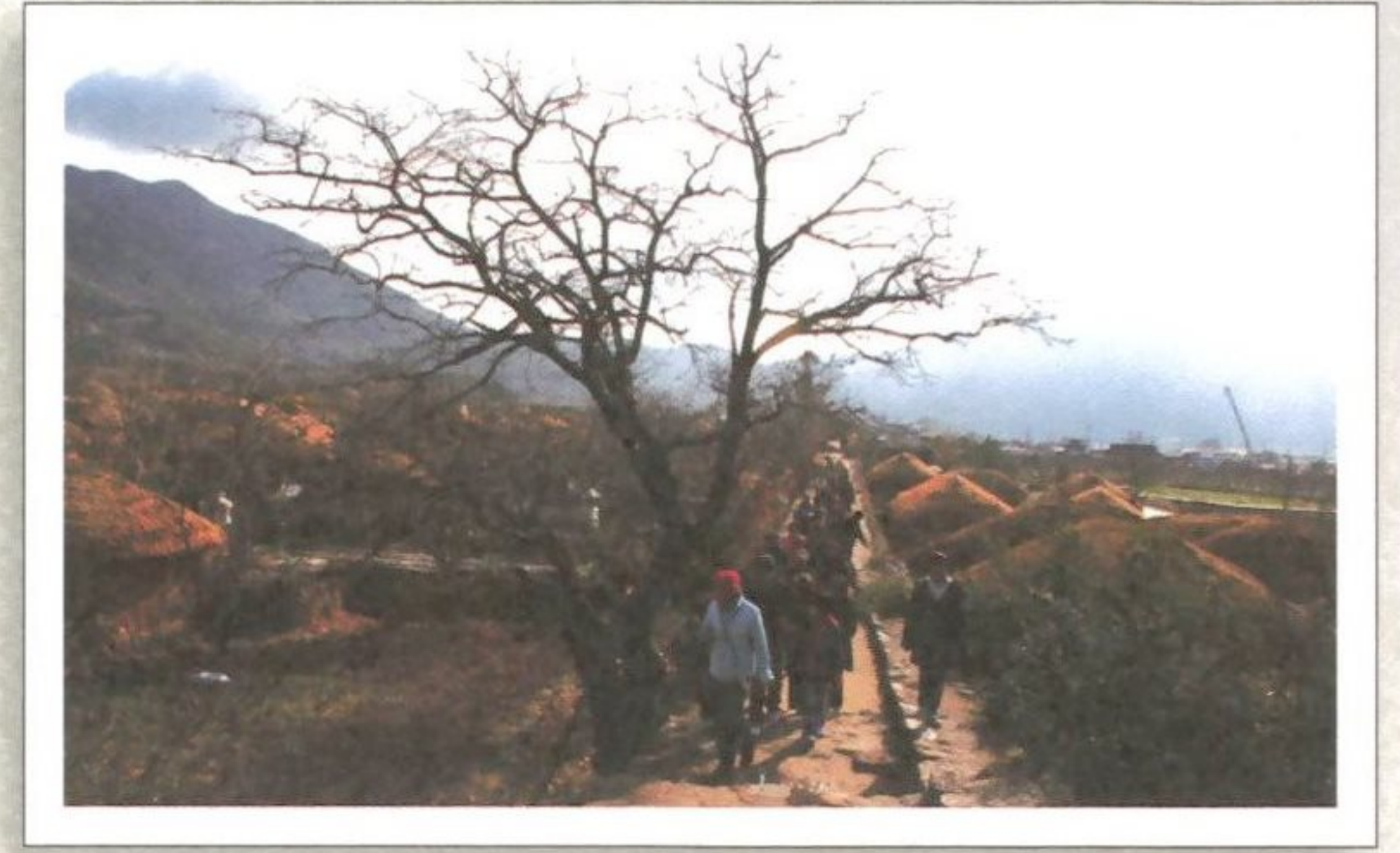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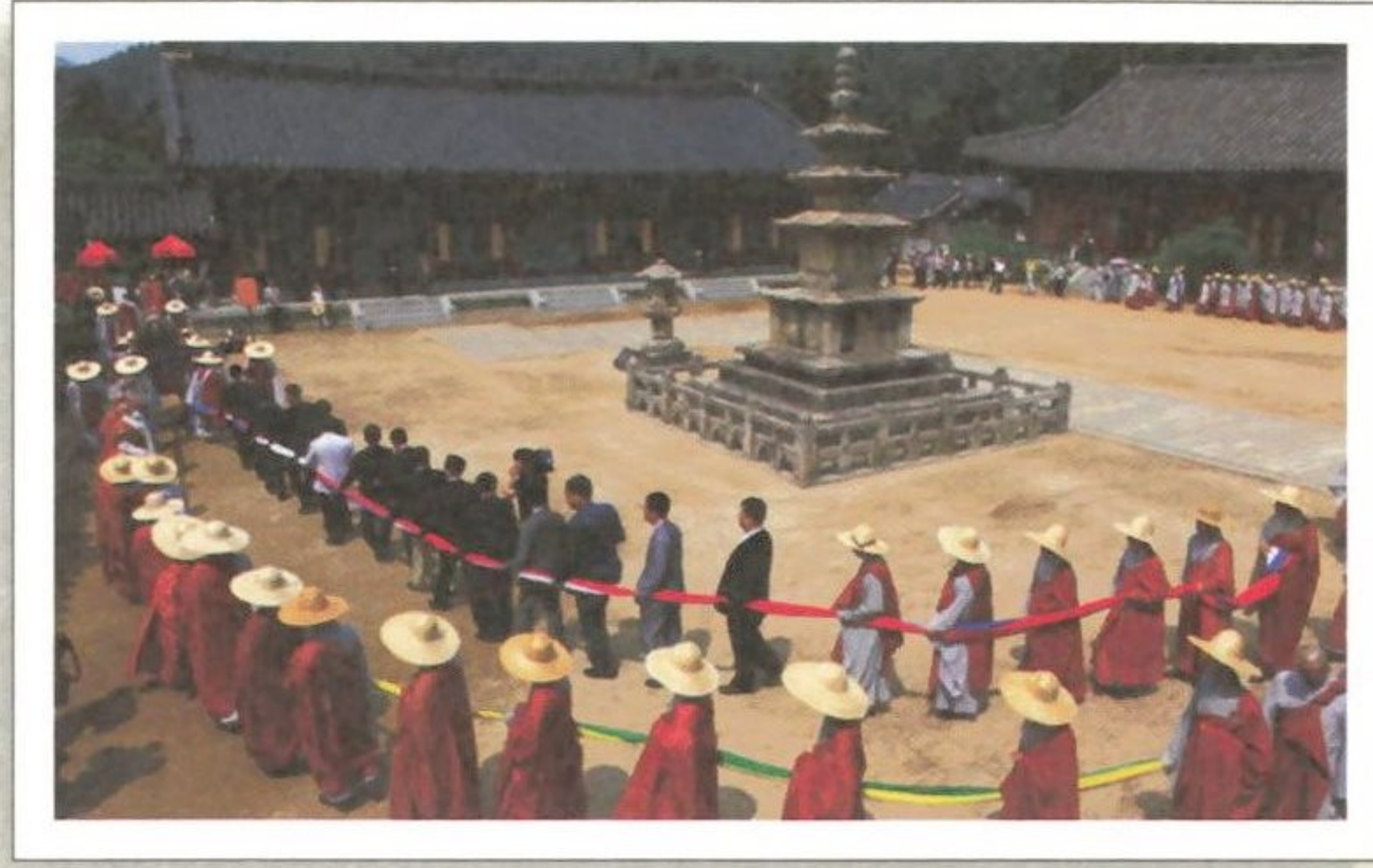
7080 퀸세트

2012. **12. 24** (월) 오후 **8시**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예약 051. 607. 60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합천 여행

2012년 12월 14일(금)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고이 간직한 합천 해인사와 새롭게 단장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주제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우리의 뛰어난 기록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합천 도착,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람
- 12:30 중식
- 13:30 해인사 탐방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생태 도시 순천

2013년 1월 00일(금)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 순천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에게 편안한 휴식을 전해주는 순천전통야생차 체험관을 시작으로 태고총림 선암사, 조선시대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을 둘러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순천 전통야생차 체험관 도착, 다도체험
- 12:30 중식
- 13:00 선암사, 고인돌공원, 낙안읍성 답사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November Vol.251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y
Restaurant

Since 1985

2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늬동기스

10%
Discount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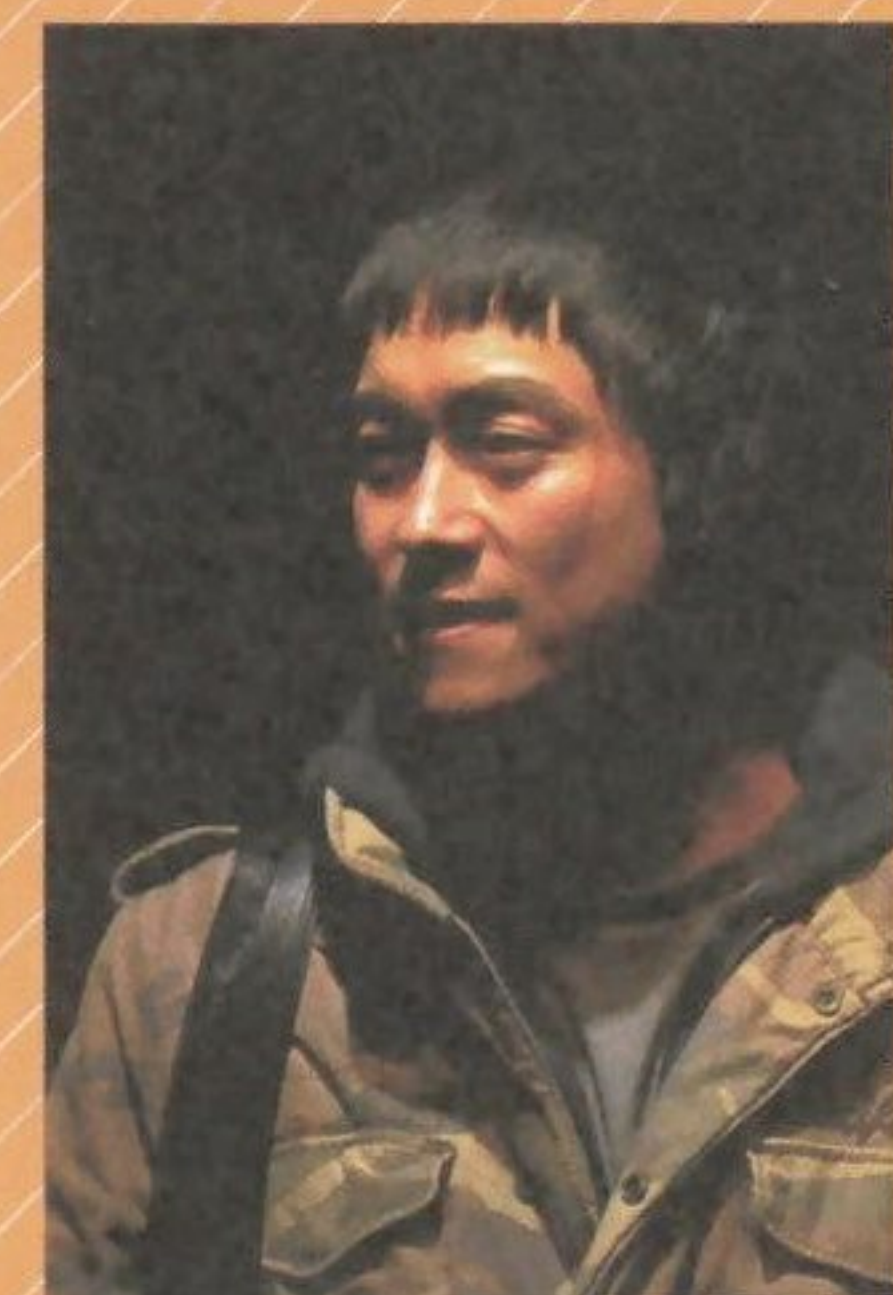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Since 1981
philharmony

10%
Discount



감성연극
새끼손가락

20%
Discount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31

이한철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는
유쾌한 슈퍼스타

2012.11.21. WED. PM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051.607.6058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우리동물원

30%
Discount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성연극 '새끼손가락'

2012.10.26(금)-11.25(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유리동물원'

2012.10.10(수)-11.1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12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부산 MBC 창사 53주년 기념

2012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L.v.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2012.12.14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왕 홍야오 · 테너 슈에 하오인 · 베이스 양희준

부산시립교향악단 · 부산시립합창단 · 울산시립합창단 · 김해시립합창단

| 주 최 | 부산광역시 부산 MBC

| 주 관 | 부산문화회관

| 문 의 | 607-3111(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607-6058(공연과)

| 입장권 |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리켓링크 1588-7890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The new Audi A6 2.0 TDI

디젤세단의 새로운 영향력



Audi TDI의 효율성과 파워로부터, 새로운 영향력은 시작된다

더 좋은 디젤엔진만으론, 세상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는다.
르망24시간레이스 6회 우승을 기록한 아우디 TDI가 선보이는, 압도적인 파워와 효율성.
한층 더 견고해지고 가벼워진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바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교한 드라이빙 감각.
그리고 멈춰있을 때조차 다이내믹한 스타일이 드러나는 The new Audi A6만의 디자인까지.
아우디 TDI 모델로 더 완벽해진 The new Audi A6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영향력이 시작된다.

www.ucaro.co.kr

The new Audi A6 2.0 TDI 스페셜 금융프로그램

1. 저금리 유예 금융리스 / 할부금융: 월 309,155원 (36개월, 선납금 30%, 상환유예원금 65%)
 2. 저금리 3.46% 운용리스 (36개월,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3. 저금리 36개월 할부금융 (선수금 30% 기준) 또는 취득세 지원
- 상기 프로그램 이용 기간 중 신차 교환 프로그램 적용

* 기간: 10월1일~10월31일 * 상기 프로그램은 Audi A6 2.0 TDI m, 모델기준이며 기타 모델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Audi Financial Service 이용 시 적용되며, 조기마감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공제 부대비용 별도 부담 조건

- | | | |
|--------------|----------|--------------|
| 전시장 | · 부산 남 천 | 051-611-3844 |
| | · 부산 해운대 | 051-740-5566 |
| | · 창원 | 055-245-2233 |
| 서비스센터 | · 부산 남 천 | 051-628-0056 |
| | · 부산 민 락 | 051-626-0056 |
| | · 창원 | 055-245-0999 |

Service Namcheon



Service Millak



Service Changwon



아우디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주)